

보 고 서
공개여부
공 개

교육홍보팀-000(2006.7.13)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초·중·고등학교
경제영역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2006. 7

KDI 경제정보센터

< 연구 참여자 >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책임자 : 천규승(KDI 경제교육실장)
- 연구원 : 김예기, 윤철환, 유성임, 이지은, 공은주, 이종찬

공동연구자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손정식(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박형준(성신여대 사회교육과), 한진수(경인교대 사회교육과), 이윤호(순천대 사회교육과), 한경동(한국외대 경제학과), 주만수(한양대 경제학부), 김덕수(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
-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김영식(서울대 경제학부), 김진영(건국대 경제학과), 박정수(서강대 경제학부)

목 차

제1편 KDI 경제영역 교육과정 설계(안)	1
I.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주요 내용	3
3. 기대 효과	3
4. 연구 방법	4
II. KDI 경제영역 교육과정의 특징	4
1.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4
2.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경제」 교과서	10
III.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12
1. 초등학교 경제 영역	12
2. 미시경제 영역(중학교)	13
3. 거시경제 영역(고등학교)	15
4. 주제중심 영역(고등학교)	16
5. 고등학교 선택과정 「경제」 교과서	18
제2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사회」 교과서 경제영역	23
제1장 연구의 기본방향	25
제2장 초등학교 경제 영역	28
I. 교육의 목표	28

II. 단원별 내용체계	29
1. [4학년] (4) 경제 활동과 선택	29
2. [6학년] (2)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	34
III. 7차 교육과정 및 개정시안과의 비교	38
제3장 미시경제 영역(중학교)	44
I. 교육의 목표	44
II. 단원별 내용체계	44
1. 경제 활동과 경제 문제	45
2.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57
III. 7차 교육과정 및 개정시안과의 비교	67
1. 단원 비교	67
2. 교육목표 비교	70
제4장 거시경제 영역(고등학교)	77
I. 교육의 목표	77
II. 단원별 내용체계	78
III. 7차 교육과정 및 개정시안과의 비교	87
1. 단원 비교	87
2. 교육목표 비교	88
제5장 주제(strand)중심 영역(고등학교)	91
I. 교육의 목표	91
II. 단원별 내용체계	93
제3편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경제」 교과서	99
제1장 연구의 기본방향	101
제2장 교육과정	104

I. 교육의 목표	104
II. 단원별 내용체계	105
1. 경제 문제의 이해	107
2. 시장과 경제 활동	112
3. 시장 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118
4. 시장의 한계와 정부의 개입	123
5. 국가 경제의 활동과 변동	127
6.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132
제4편 교육과정 연구 추진현황 및 주요 토론내용	137
I. 협정 체결	139
II. 연구진 워크숍	139
III. 중간세미나	146
IV. 중간세미나 결과 연구진 워크숍	159
V. 학회공동세미나	164
부록 1. 중간세미나 토론자료	185
I.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87
II.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253
III. 관련기관	277
부록 2. 학회공동세미나 토론자료	285
I.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287
II.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303

제1편 KDI 경제영역 교육과정 설계(안)

- I .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II . KDI 경제영역 교육과정의 특징
- III .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1.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1. 연구의 필요성

- 전문 연구진의 분석 결과 현행 7차 교육과정의 경제영역(초·중·고등학교 사회 및 경제관련 교과서 경제관련 내용 분석)은 교육목표, 내용요소, 교육수준별 편제, 기술수준 등에서 문제점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향후의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 경제영역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교육단계별로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표준 지침이 강구되어야 함.

2. 주요 내용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서 다뤄져야 할 경제영역의 단계별 교육목표와 내용체계
-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 경제교과서에서 다뤄져야 할 교육목표와 내용체계

3. 기대 효과

- 학생들의 경제이해 수준과 경제교과 목표에 맞추어 학년별 교과내용을 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표준화된 학습자료 개발에 기여
-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제교육 기회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

4. 연구 방법

- 경제영역의 교육과정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부문과 선택교육과정 부문으로 나누고 경제학 및 경제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연구
- 연구진이 연구한 각각의 내용체계를 현장교사, 경제교육 관련기관, 한국경제학회(경제학교육위원회)와 한국경제교육학회 공동세미나를 통해 수정 보완한 결과를 토대로 KDI 경제영역 교육과정(안)을 설계

II. KDI 경제영역 교육과정 연구의 특징

- KDI 경제영역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학교 급별, 학년별, 과정 유형별 내용체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대강화를 지향함으로써 교과서 집필자가 재량에 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의 우수한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설계하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별로 각각의 연구진에 의한 내용체계 설명 자료를 첨부
- 설명 자료에서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의 일방적 전달을 지양하고 생활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이용하여 경제현상과 경제활동을 이해시키는 등 교과서 집필자들이 집필과정에서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학습방법이나 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

1.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본 연구는 제7차 경제 교육과정에 비해 교육과정 내용 서술의 객관성, 명확성, 균형성을 유지하여 학생들이 경제 현상이나 원리를 충실하게 이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내용체계를 설계
 -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영역 내용체계나 이에 근거한 교과서가 경

제 주체의 윤리적 또는 당위적 행위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비해 본 연구는 경제 주체의 윤리적 행위 규범을 규정하는 서술을 지양하고,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모호하거나 편향적인 내용전개를 방지하고 교과서 서술의 명확성과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체계를 지향함으로써 학생들이 경제 현상이나 다양한 경제문제에 대하여 균형적인 시각을 갖게 하도록 강구
-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4, 5학년에서 경제영역을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4학년(“경제 활동과 선택”)과 6학년(“우리나라의 경제 모습”)에서 경제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에 미시경제 영역, 고등학교 1학년에 거시경제 영역을 학습하는 것으로 내용체계를 설계
 - 중학교 미시경제 영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경제영역의 주요 내용요소를 심화시켜 중학생 수준에 적합한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거시경제 영역의 국가경제에 관한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 내용을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나선형 반복 심화 학습의 연계를 시도하고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을 지향
 - 고등학교 거시경제 영역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배운 기초 경제개념과 시장경제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흐름을 전반적 이해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이러한 개념을 실제 경제문제의 해석에 적용하는 방법과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을 해석하는 방법을 함양하도록 내용요소를 구성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라도 국가경제의 기초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상
 - 교육부의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2005년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개발, 이하 ‘개정 시안’)은 중학교 3학년에서 미시경제 영역과 거시경제 영역을 함께 다루고 고등학교 1학년은 사회과 공통의 통합 주제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내용체계를 채택

- 그러나 ‘개정 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7차 교육과정에서 미시경제 영역만을 학습하던 중학교 3학년 사회과 수업시간에 거시경제 영역까지 학습하게 되어 수업시간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학습내용이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수업내용 부실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
- 초등학교 4학년에서 경제활동의 의미와 선택의 기본원리, 6학년에서 시장경제 작동에 대한 기초학습을 이루고, 중학교 3학년이 되어 미시경제의 개념적 구조를 접해본 학생들에게 시장경제를 경험할 기회나 수용능력, 습득한 학습내용의 숙지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시경제 흐름을 수동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은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무리한 시도임.
- ‘개정 시안’의 내용체계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내용체계의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효과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시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주어진 경제교육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사회교과의 통합 주제 형 접근을 지양하고 현행대로 중학교에서 미시경제 영역, 고등학교에서 거시경제 영역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본 연구는 동 ‘개정 시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 주제 중 경제영역 학습에 비교적 도움을 줄 것을 예상되는 특정주제(세계화와 지역화) 중심의 내용체계를 별도로 구상

□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경제교육의 논리적 일관성을 강화

○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의 경우 환경 확대 접

근법을 적용하고 있어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내용체계에 있어 개념의 중복이 나타남. 또한 학습연령(학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배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발생. 개인 금융(personal finance) 등 몇몇 주요 개념은 내용요소에서 누락됨.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개념의 중복을 피하거나 학년 배치를 새롭게 하고 누락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요소를 추가

-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영역 학습내용은 학교 급별 연계나 용어상의 통일성이 부족하여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학습내용과 중·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학습내용이 서로 연결되지 않거나 사용하는 경제 용어가 다른 경우가 발생

- 본 연구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논의를 연계하여,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이 중학교에서 반복되면서 심화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각의 경우 사용하는 경제 용어를 통일

- 미시경제 영역(중학교 3학년) 내용체계에서는 시장경제의 특징에 관한 개념적 접근에 의한 암기식 학습의 요구에서 벗어나 현실 경제문제의 조정체계로서 기능하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스스로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내용요소의 배열을 재조직

- 소비자, 기업, 정부 등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삶과 시장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을 학습하도록 하고 학습자가 경제적 사고방식을 깨우쳐 생활 속에 부딪치는 경제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용체계를 설계

- 이를 위하여 경제활동 참여자 간의 분업과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제적 조정의 필요성과 시장을 통해 자원이 배분되고 소득이 분배되는 메커니즘을 학습하게 함

로써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장점과 시장 교환으로 특징지어지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터득할 수 있도록 내용요소를 구성함으로써 시장경제와 계획 경제의 특징을 수동적으로 비교하도록 요구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미시경제 영역의 문제점을 극복

- 또한 제7차 교육과정과 달리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로서 사적 소유 및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 주체가 되는 정부를 소개하고, 시장질서의 유지와 외부 경제 등으로 인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활동의 자유와 소유권 행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포괄적으로 표현으로 시장과 정부간의 상호 보완관계를 설명. 특히 정부의 규제와 제한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름을 강조

- 거시경제 영역(고등학교 1학년) 내용체계는 제7차 교육과정 거시경제 영역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세계화, 지역화, 지식정보화를 전제로 거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주5일제 수업으로 시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하여 내용체계를 정비
 - 국민소득의 의미와 국민소득이 분배, 지출되는 국민소득의 순환구조를 학습하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해외부문의 역할을 이해하며 경제성장의 의미와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 변동,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원인 및 영향, 경제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체계를 구성
 - 제7차 교육과정은 현대 경제문제와 해결방안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경향을 보완하여 본 연구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 물가 안정을 위한 각 경제주체의 도덕적 규범의 강조를 탈피하여 경제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
 -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경제에 관한 학습내용이 별도의 주제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는 세계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

경제의 틀을 설명하는 과정에 흡수하여 학습하는 동시에 미시경제 영역과 거시경제 영역으로 내용 구성을 전환

- 주제중심 영역(중학교에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를 모두 다루게 될 경우에 해당)은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경제교과를 선택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습자에게 공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이 마무리되는 학습과정에 해당되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등 사회교과 전체의 통합적 사고를 함양하는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 쟁점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과정을 설계
- 교육부의 ‘개정 시안’에서 거론되는 주제는 문화, 정의, 환경, 세계화, 인권, 변화, 삶의 질 등 7개로 그 중 경제영역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제인 세계화에 관한 내용체계를 제시
 - 시장경제의 기초 작동원리를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영역에서 이해한 학습자에게 세계경제의 공통적 환경으로 조성되고 있는 당면 과제인 세계화와 지역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갖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학습내용을 체계화
 - 기본적인 경제개념이나 원리를 이용하여 실제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 정의, 환경, 세계화, 삶의 질 등 주제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 주제를 접근 분석하고, 학습지도하기에는 교사의 수업부담이 과다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서 학생 또는 교사 사회에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과서 집필자들이 집필과정에서 기술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

2.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경제」 교과서

- 선택교육과정 경제교과의 내용체계는 기초경제개념, 미시경제, 거시경제 및 국제경제 영역의 4개영역으로 구성하되 한 학년(32주 수업)에 맞추어 매주 새로운 주제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소주제를 배치
 - 학습자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배운 기초 경제개념, 미시, 거시, 국제경제 영역의 내용요소를 심화 학습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펼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지식을 함양하는 학습과정으로서 설계
 - 현실 경제의 각종 제도와 원리의 기본 골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기초영역 3주, 미시경제 영역 15주, 거시 및 국제경제 영역 14주의 수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
 -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과 내용 중 지나치게 윤리를 강조하거나 편향적 시각의 내용은 조정하고,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의 내용은 보강
- 기초경제 영역인 ‘경제문제의 이해’ 단원은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문제 해결’ 단원을 수정 보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이 경제 영역과 정치, 법 등 여타 영역과의 관계 설정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경제 활동의 광범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체계를 지향
 - ‘기회비용’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분업’과 ‘조정’의 문제를 포함함으로써 경제체제로서의 시장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
- 미시경제 영역은 ‘시장과 경제활동’, ‘시장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시장의 한계와 정부 개입’의 세 단원으로 구성
 - ‘시장과 경제활동’ 단원은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이어 시장실패를 학습하게 설계되어 있

- 는 것과는 달리 ‘시장’에 관한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시장의 예를 통해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깨우치는 방향으로 내용의 초점을 맞추고, 별도의 단원에서 시장실패를 학습하도록 설정
- 아울러 학습자의 관심과 최근의 경제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
 - ‘시장 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단원을 신설하여 현실경제는 시장경쟁을 통하여 작동하며, 정부개입은 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보완, 강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
 - 현실 경제의 이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면서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업가 정신, 금융시장, 노동3권 등의 내용요소를 추가
 -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던 ‘시장 실패’와 ‘불법·부당행위’의 차이를 학습하도록 내용요소를 조정
 -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 중 경제 원리와 동떨어지고, 지나치게 윤리추구적인 경향의 내용을 담고 있던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단원은 폐지하고 그 내용도 상당부분 삭제
 - ‘시장의 한계와 정부개입’ 단원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루던 시장 실패 와 재정운용 관련 내용요소를 분리하고 공공재와 공기업의 문제, 사회안전망의 내용요소 등을 보강하여 신설
 - 거시경제 영역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의 활동과 변동’ 단원에서 학습하도록 설계
 -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실제 데이터에 나타난 주요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국가경제를 살펴보는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
 - 경제성장과 정책의 역할, 단기적 경기변동과 정부의 역할 등의 내용을 분리, 보강하고 재정수지와 통화제도 관련 내용을 추가
 - 국제경제 영역인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단원은 고등학교 경제교육

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통일 한국경제의 미래’와 ‘인류공동체와 경제협력’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내용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국제경제 관련 내용요소를 보강

- 특히 세계화 시대의 국가간 상호의존성, 보호무역의 문제점, 자유무역의 추세, 환율과 수출입간의 관계, 국가간 자본이동의 추세에 관한 내용요소를 추가하고 BRICs의 부상, WTO 및 FTA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학습자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III.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1. 초등학교 경제 영역

가. 경제교육의 목표

-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경제적·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경제교육의 목표로 설정
-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학교 경제교육의 시작으로써 일상생활 주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며, 이를 토대로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배우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의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
- 이를 위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우며 자기주도적인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교수 학습 전략을 지향

나. 단원별 내용체계

대단원명	내 용 요 소
경제 활동과 선택	경제 활동, 희소성, 기회비용, 상충관계, 합리적 선택, 생산과 생산요소, 분업, 특화, 생산성, 상호의존, 소득, 소비와 저축, 수요와 공급, 돈, 금융기관, 이자, 신용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	시장 경제, 경쟁, 사유재산, 영리 추구, 인센티브, 경제 순환, 세금, 경제 성장, 수출, 수입, 실업, 국제 거래, 상호의존, 기업가의 혁신, 기술 개발, 창의적 사고

- ‘경제 활동과 선택’ 단원은 4학년,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 단원은 6학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
 - ‘경제 활동과 선택’ 단원에서는 경제의 기본 개념과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자 주변의 소재를 통해서 제공하고, 이와 같은 미시적 지식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 단원에서는 영역을 확대하여 시장 경제, 경제의 순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탐구하도록 조정

2. 미시경제 영역(중학교)

가. 경제교육의 목표

- 중학교에서 학습하도록 설계된 경제기초 및 미시경제 영역은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경제의 주요 학습 내용요소를 심화시키면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삶과 시장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경제교육의 목표로 설정

- 소비자, 기업, 정부 등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이 활동하는 모습과 이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제문제들을 학습함으로써 경제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동시에 경제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방식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강구
- 학습자가 생활 주변에서 경험하는 사례들에 대한 조사와 탐구를 바탕으로 경제현상과 경제활동에 접근하여 스스로의 이해에 도달하도록 조치

나. 단원별 내용체계

대단원명	중단원명	내용요소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1. 경제 생활과 합리적 선택	경제문제, 희소성,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분업, 상호의존성, 비교우위, 특화, 무역
	2. 개인의 소비와 저축	소득, 소비, 저축, 신용 관리, 재산 관리, 수익, 위험
	3. 생산자의 생산 활동	기업, 생산, 생산요소, 이윤, 기업가, 혁신, 기업가정신, 노동자, 근로
시장경제의 이해	1. 시장과 가격 결정	시장, 수요, 공급, 수요량, 공급량,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시장 균형
	2. 시장가격의 변동	수요의 변동, 공급의 변동, 가격의 변동, 가격의 기능
	3. 시장과 정부	경제체제, 공공재, 규제, 조세, 소득재분배

- 미시경제 영역은 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이라는 맥락에서 경제활동과 경제생활의 모습, 경제주체의 소비와 저축, 생산 활동의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며,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모습과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활동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주안점

- 초등학교에서 배운 경제 내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개념화하여 학습하며 거시경제 영역의 국가경제에 관한 학습내용과 연계되는 기초적 내용을 다룸으로써, 나선형 반복 심화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
- 학습 내용요소에 대한 추상적이며 이론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생활 주변에서 경험하는 사례들에 대한 조사와 탐구를 중심으로 경제 현상과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며, 이를 통해 현실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강구
-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개인의 재산관리와 신용관리 문제를 정식 학습 내용요소로 다루며, 창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경제 사회적 의의를 비중 있게 학습하도록 설계

3. 거시경제 영역(고등학교)

가. 경제교육의 목표

- 고등학교 1학년에 학습(고등학교 사회교과를 통합 주제형으로 접근할 경우 중학교에서 미시경제 영역의 연결 과정으로 운영) 하도록 설계된 거시경제 영역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학습한 경제순환, 경제성장, 국제거래 등의 주요 학습 내용 요소를 한층 심화시키면서, 국가경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들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과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설계
- 특히 이론적 전개를 지양하고,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폭넓게 제시하여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경기변동, 실업, 인플레이션 등 기본적인 거시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초점
- 구체적으로, 국가 경제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의 의미와 국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일인당 국민소득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활용방법을 탐색하게 하는 한편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국가경제의 순환구조를 이용하여 파악하며,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요소를 구성

- 아울러 장기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원인 및 국가경제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학습하는 동시에 아울러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

나. 단원별 내용 체계

대단원명	중단원명	내용요소
국가 경제의 이해	1.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	국민소득, 일인당 국민소득, 국민소득의 순환, 경상수지, 경제 성장, 경제성장률
	2. 실업과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실업, 인플레이션,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경제 안정

4. 주제중심 영역(고등학교)

가. 경제교육의 목표

-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마무리하면서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새롭게 이수하게 될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연결과정 역할을 수행
- 중학교에서 학습한 기본적인 경제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개념의 학습내용과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과목 「경제」에서 이를 좀 더 심화시키고 학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 학습내용과의 연결 기능을 수행해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연구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중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경제 개념과 원리를 이용하여 실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과’를 ‘주제(strand)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개정시안’에 의해 교육과정이 설계될 것에 대비해서 주제중심 영역의 내용체계를 별도로 강구
-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 제시된 주제는 문화, 정의, 환경, 세계화, 인권, 변화, 삶의 질 등 7개로 이들은 통합적 사고를 기르는 입장에서 각각 경제적 측면에서 쟁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실제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는 특정 영역이 각 주제의 중심이 되어 통합 기술될 가능성이 높음.
 - 문화는 사회·문화 영역이 중심이 되고, 정의와 인권 등은 정치·법 영역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는 7개의 주제 가운데 경제 영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세계화와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성취 목표를 기술
- 세계화 단원에서는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환경변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조망
 - 일반적으로 ‘세계화(globalization)’ 개념은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법 등 여러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임.

나. 과정별 내용체계

대단원명	내용요소
세계화와 지역화	무역규모, 자유무역의 이해득실, 자유무역협정, 국산품과 외제품,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 해외 직·간접투자, 외국노동자, 부국과 빈국 사이의 소득격차와 해외원조

5.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경제」 교과서

가. 경제교육의 목표

-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현대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교육하는 과정이므로 고교 졸업 이후 독립적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펼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현실 경제의 각종 제도과 원리의 기본 골격을 이해시키는 것을 과정의 목적으로 삼아 내용체계를 구성
 - 우리 경제는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기축으로 하여 움직이고 세계 경제도 시장경제의 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으므로 개인이든 나라든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번영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쇠락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세계화의 무한 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번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설계
 - 시장경제의 효능과 폐단을 균형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되 기본적으로는 졸업 후 생활하는 데 유익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절히 터득시키기 위한 내용을 지향
 - 세계경제질서를 충분히 이해시키기 이전에 비판적 안목부터 배양한다면 배워야 할 대상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하기 쉽고 이러한

교육은 세계적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개인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시장경제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비판을 지양

-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를 넘어선 정부개입이 필요하나 정부개입이 시장을 폐기하고 정부 결정으로 경제생활을 이끄는 경우보다 시장이 더 잘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효능과 폐단 가운데 어느 것을 부풀리고 축소하거나 또는 달리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내용을 설계

나. 단원별 내용체계

대주제	소주제	내용요소
경제 문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문제와 기회비용 ◦분업, 특화와 조정 ◦시장과 경제 문제 해결 (경제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문제의 중요성 - 희소성의 의미, 선택과 기회비용 - 분업 및 특화의 이익과 자원배분 문제 - 시장을 통한 경제 문제 해결 - 시장과 다른 경제체제의 비교
시장과 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 공급, 가격 ◦시장 균형과 균형의 변화 ◦시장 균형과 효율성 ◦시장의 구조와 경쟁 ◦우리 주변의 시장들 ◦시장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공급, 가격,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 균형과 균형의 변동 - 균형과 효율성 - 시장의 구조(경쟁과 독과점) - 노동시장과 다양한 형태의 금융시장 - 시장의 발전과 새로 등장한 시장들

대주제	소주제	내용요소
시장 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법치 확립 ◦불공정 경쟁행위의 근절과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과 금융규제 ◦노동시장과 노동3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의 역할과 이윤추구 보호의 필요성 - 정경유착, 탈세, 불공정 경쟁행위의 방지 - 무상보증, 제조물책임법, 품질인증제도 - 금융시장의 기능과 금융규제의 필요성 - 노동3권의 배경과 시장경쟁과의 조화
시장의 한계와 정부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성과 자원배분 왜곡의 시정 ◦공공재와 무임승차의 방지 ◦공기업과 경제적 규제 ◦정부의 실패 ◦사회안전망, 정부의 세입과 재정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의 괴리와 대처 - 공공재, 자연독점 등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성, 방법 및 한계 - 공기업의 특징, 필요성 및 문제점 -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제도 - 정부 세입세출의 구성 및 내용
국민 경제의 활동과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경제의 소득과 지출 ◦국가경제의 주요 경제 지표 ◦국가 간 장기적 경제성장의 비교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정책의 역할 ◦단기적 경기변동의 특성과 원인 ◦재정수지와 통화제도 ◦안정화정책: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경제의 소득과 지출의 순환 - 국내총생산(GDP)과 거시경제지표 - 장기적 경제 성장의 특성 및 국가 간 경제 성장 비교 - 경제 성장의 주요 결정요인 -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특징 -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제도 및 정책의 역할 - 단기적 경기 변동의 주요 특성과 원인 - 재정수지의 변동, 재정건전성, 통화제도와 중앙은행 - 경기 안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의 역할

대주제	소주제	내용요소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거래와 상호의존성 ◦무역자유화 추세와 한국 경제 ◦환율과 외환시장 ◦국제수지와 자본이동 ◦세계속의 한국경제 I ◦세계속의 한국경제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 거래와 상호의존성의 중요성 - 보호무역의 논리, 방법과 문제점 - 자유무역의 추세와 한국경제의 비교 우위 - 환율과 외환시장의 이해의 필요성 - 세계화와 국가간 자본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 국제기구, 다자간 협상, 남북교류 및 지역협력 등

※ 위의 32개 소주제는 각각 약 1주의 수업분량에 해당하도록 설정되었음.

제2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사회」 교과서 경제영역 －

제1장 연구의 기본방향

제2장 초등학교 경제 영역

제3장 미시경제 영역

제4장 거시경제 영역

제5장 주제중심 영역

제 1 장 연구의 기본방향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설계안에 따라 집필되는 것이 기본이다. 또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배우고 익힐 교육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교육과정 설계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연구진은 교육과정 설계안을 구상하기 전에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의 설계안인 제7차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집필된 초·중·고교 사회교과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초·중·고교 교육과정 설계안을 각 장에서 별도로 다루면서 7차 교육과정과 이번에 제시한 교육과정이 각 학교급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두 가지 교육과정 모형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교육과정 설계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마련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인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공청회”에서 토론 자료로 제시한 경제 영역 교육과정 설계 개정시안(이하 ‘개정 시안’)의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요소를¹⁾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그런 관계로 교육과정 설계안은 제7차 교육과정과 아주 다른 몇 가지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이 ‘상세화’를 대전제로 설정했던 방침과는 달리 개정시안은 ‘대강화’를 대전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저자들에게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을 확대해 줌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양질의 우수한 교과서가 집필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본 교육과정 설계안도 원칙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강화’ 원칙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공청회’, 연구자료 ORM 2005-58, 2005. 12. 16.

을 존중하면서도 ‘대강화’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설계안보다는 한 단계 ‘상세화’된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요소를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앞으로 교과서를 집필할 저자들에게 본 연구의 교육과정 설계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습관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개정시안에서는 가치태도 영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본 교육과정 설계안에서도 가치태도 영역에 대한 교육목표와 내용요소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 두고 싶다. 제7차 경제 교육과정에서 가치태도 영역을 강조한 결과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과 행동보다는 ‘과소비 금지’, ‘과도한 경쟁금지’, ‘공동체 의식강화’ 등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그런 것들은 윤리과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미시경제에 대한 부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개정시안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편제되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은 12개의 주제로 구성된 주제중심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사회 영역의 교육과정으로 7개의 주제가 제시되었다²⁾. 본 교육과정 설계안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미시경제를 다루고, 고등학교 영역에서 거시경제와 일반사회 주제중심 교육과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7개 주제 가운데 경제 영역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주제에 관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나타난 경제 교육과정의 학년별 배치에서 중학교에 미시와 거시경제 과정을 배치하고, 고

2) 개정시안에서 일반사회 교육과정으로 제시된 7개 주제는 ‘6. 사회 현상과 문화, 7. 공동체와 정의, 8. 사회와 환경, 9. 세계화와 지역화, 10. 조화로운 세상과 인권, 11. 변화와 미래, 12. 삶의 질’이다.

등학교 1학년에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학생들의 사고력 발달과정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는 미시경제 영역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추상성이 매우 높은 거시경제 영역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주제중심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 즉 주어진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해 보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주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주제중심 교과서를 집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주제중심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 정치, 경제, 지리, 역사, 문화, 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교수능력을 가진 사회과 교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각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학생들이 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수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미지수다. 즉, 주제중심 고등학교 1학년의 사회교육을 주제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현장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중심 교육은 중학교 과정에서 학습한 개념과 이론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학교 3년 동안의 학습이 고등학교에서 주제별로 다양한 시각에서 쟁점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예컨대, 7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세계화’만 하더라도 경제의 기본원리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등에 관한 개념의 이해와 이론적 기반이 필요한 주제인데,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국제경제 관련 학습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세계화’에서 논의할 수 있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과 같은 내용요

소는 대학교 경제원론 교과서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만큼 어렵기도 하며 심화된 이론적 기반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이론적 배경이 없이 노동시장 개방이나 자본시장 개방과 같은 주제를 다루다 보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경제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사회과목에서 미시경제 영역을 학습하게 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거시경제 영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과정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2장 초등학교 경제 영역

1. 교육의 목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경제적·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경제교육의 목표로 설정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학교 경제교육의 시작으로 일상생활 주변에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며, 이를 토대로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배우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의 제고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우며 자기주도적인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교수 학습 전략을 지향한다.

II. 단원별 내용체계

4학년의 단원명은 “경제 활동과 선택”이며, 6학년의 단원명은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이다. 4학년에서는 경제의 기본 개념과 개별 경제 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 주변의 소재를 통해서 제공한다.

4학년에서의 이와 같은 미시적 지식을 배경으로 하여, 6학년에서는 영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경제의 순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6학년에서 탐구한다.

대단원명	내 용 요 소
경제 활동과 선택	경제 활동, 희소성, 기회비용, 상충관계, 합리적 선택, 생산과 생산요소, 분업, 특화, 생산성, 상호의존, 소득, 소비와 저축, 수요와 공급, 돈, 금융기관, 이자, 신용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	시장경제, 경쟁, 사유재산, 영리 추구, 인센티브, 경제 순환, 세금, 경제 성장, 수출, 수입, 실업, 국제 거래, 상호의존, 기업가의 혁신, 기술 개발, 창의적 사고

1. [4학년] (4) 경제 활동과 선택

(1) 단원의 취지

우리는 매일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소비자나 생산자로서 경제적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경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단원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경제의 기본 개념을 이해시킴으로써 향후 소비자나 생산자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능력을 기른다. 시장에서 돈을 매개로 하여 교환이 이루어지고 분업(division of labor)과 특화(specialization) 생산 방식이 도입되며 금융기관이 발달한 것은, 모두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

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우리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다양한 예를 통해서 이해한다.

이 단원은 경제 활동의 의미,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인 희소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 소비자 또는 생산자로서 직면하는 다양한 의사결정의 사례, 생산요소의 효율적 사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소득과 소비와 저축, 금융기관과 다양한 저축 수단으로 구성된다.

(2) 단원의 목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경제 활동의 의미와 경제의 기본 문제를 이해한다.② 합리적 선택을 위한 기회비용과 상충관계를 이해한다.③ 생산의 의미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한다.④ 소비의 의미와 소비·저축·소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⑤ 경제 활동은 돈에 의해 매개됨을 이해한다.⑥ 금융의 의미와 다양한 금융기관을 알 수 있다. |
|--|

(3) 단원의 내용요소와 설명 범위

① 경제 활동의 의미와 경제의 기본 문제를 이해한다.

인간의 무한한 욕구와 제한된 자원 사이의 갈등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존재하는 현상이며, 이러한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초등학생들 역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제 문제에 수시로 직면한다.

용돈이 부족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거나 가정의 소득이 부족하여 식구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초등학생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경제 활동의 의미와 경제의 기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합리적 선택을 위한 기회비용과 상충관계를 이해한다.

최소성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으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때 한 가지를 선택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하며, 포기한 것 가운데 가치가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경제 교육의 기본 목표는 소비자로서 또는 생산자로서 직면하는 다양한 경제 문제를 인식하고 기회비용 및 상충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용돈을 가지고 한 가지 물건을 사면 나머지 다른 물건을 살 수 없으며, 주어진 시간에 한 가지 활동을 하면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용돈이나 시간을 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선택 대안들과 선택의 기준들을 포함하는 의사결정표(decision grid)를 이용해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③ 생산의 의미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한다.

생산은 생산요소의 기술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며, 생산요소에는 노동, 자본, 토지(천연자원, 자연자원)가 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이들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같은 양의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얻거나 동일한 생산량을 얻는데 생산요소를 더 적게 사용한다면 생산성은 높아진다. 교육을 통해 노동의 질(인적자본)을 높이거나 성능이 더 좋은 새로운 자본을 활용하거나, 분업과 특화의 생산 방식을 활용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생산자로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학생들에게 친숙하거나 자신의 고장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 과정의 예를 가지고 제시함으로써, 어른들과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고 있

는 다양한 노력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술한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미래의 자신이 갖게 될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분업과 특화 같은 생산 방식의 도입은 지역내·지역간 상호의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기술한다.

④ 소비의 의미와 소비·저축·소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사람은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소비수준은 주로 그 사람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소비자는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와 저축 사이의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소비와 저축에 필요한 돈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에서 생겨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저축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산요소를 잘 활용하거나 질을 높여서 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서술한다. 소득은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현명한 소비자로서 소비로 할당한 돈을 가지고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명절 때에 수요와 공급이 변하여 가격이 변하는 과일 또는 생선의 예나 세일 상품의 예를 가지고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설명함으로써 합리적 소비자의 선택을 탐구할 수 있게 한다.

⑤ 경제 활동은 돈에 의해 매개됨을 이해한다.

경제 활동은 수많은 거래를 수반하기 마련이며 화폐경제에서 거래는 돈(화폐)에 의해서 매개된다. 물건과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물물교환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래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비교·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게 된 배경과 돈이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사람들이 돈을 사용한 결과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이 한층 더 편리하고 풍요해졌다는 사실도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돈 외에 전자화폐처럼 새로운 형태의 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보다 편리한 돈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탐구할 수 있게 한다.

⑥ 금융의 의미와 다양한 금융기관을 알 수 있다.

소비와 저축 사이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저축을 통해 소득을 늘리기 위한 선택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람은 다양한 저축 수단을 통해 소득을 늘릴 수 있으며 이 때 여러 가지 종류의 금융기관을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저축한 돈은 개인적으로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돈이 금융기관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융통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기업,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금융기관에 저축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가 붙으며, 신용이 낮으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용 관리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저축한 돈의 여행 과정을 통해 금융, 금융기관, 이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즉, 저축된 돈이 금융기관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대출되고, 그 사람이나 기업이 돈을 잘 활용해 경제 활동을 수행한 후 빌린 돈과 이자를 함께 금융기관에 되돌려주면, 금융기관은 이자와 원금을 저축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순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하는 일과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신용을 상실한 사람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2. [6학년] (2)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

(1) 단원의 취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빠른 경제 성장을 해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경쟁, 사유재산, 영리 추구를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장점을 이해하고,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순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해 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개별 경제 주체들의 영리 추구 행위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뿐 아니라, 다른 경제 주체와 더 나아가 나라 경제 전체에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또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배운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탐구하고 아울러 통계와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도 습득한다.

이 단원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장점, 경제의 순환, 경제 성장과 삶의 질 변화, 국제 거래의 이득과 상호의존성,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모습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로 구성된다.

(2) 단원의 목표

- ① 시장경제의 원리와 장점을 탐구한다.
- ② 나라 경제에서 가계·기업·정부의 경제 순환 모형을 이해한다.
- ③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를 경제적 삶의 변화와 연관지어 파악한다.
- ④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확인한다.
- ⑤ 국제 거래를 통해 다른 나라와 상호의존하고 경쟁함을 이해한다.
- ⑥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를 탐구한다.

(3) 단원의 내용요소와 설명 범위

① 시장경제의 원리와 장점을 탐구한다.

시장경제는 경쟁, 사유재산, 영리 추구를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시장경제를 기본 경제 체제로 채택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개인이나 기업은 모두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인센티브를 가지며, 이득 추구 과정에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더 나아가 나라 경제에도 이득을 준다. 이와 같은 장점에 힘입어 오늘날 시장경제가 우수한 경제 체제임이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장경제를 기본 경제 체제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서 또는 시장에서 상점이나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경쟁의 경제적 의미와 장점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유는 경쟁을 통해 버는 돈이 자신의 것이 되는 사유재산 제도 때문임도 설명한다. 상점이나 기업이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의 결과 소비자도 이득을 얻으며 더 나아가 나라 경제도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시장경제의 장점임을 강조한다.

② 나라 경제에서 가계·기업·정부의 경제 순환 모형을 이해한다.

가계, 기업, 정부가 하는 경제 활동은 서로 의존적이며 이들 사이에 재화와 서비스가 돈을 매개로 거래되는 모습을 그린 것이 경제의 순환 모형이다. 가계는 번 돈을 가지고 소비하거나 저축하거나 세금으로 내고, 기업은 번 돈을 가지고 임금을 주거나 투자하거나 세금으로 낸다. 그리고 정부는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제 순환의 기본 모습을 탐구함으로써 자신이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쓰고 있는 돈이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어느 사람이 소비한 돈의 여행 과정을 통해서 경제의 순환 모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즉, 소비한 돈이 기업의 수입이 되고 이 돈은 다시 임금이나 세금으로 지출된다. 세금은 정부의 수입이 되며 이 돈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는 순환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의 순환 모습을 탐구하게 한다.

③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를 경제적 삶의 변화와 연관지어 파악한다.

경제 성장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경제 성장의 결과 사람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저마다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왔으며, 그에 힘입어 국민들의 삶의 질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우리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④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확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화된 여건과 빈약한 부존자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성과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많이 있다. 특히, 2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2위의 무역 규모, 선진국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산업 구조 등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다.

1인당 국민소득(국민총소득, GNI)의 추이, 총수출 추이, 국가별 수출 추이, 5대 수출 상품의 변화 추이, 총수입 추이, 국가별 수입 추이, 주요 수입 상품 추이, 실업률 하락 추이, 산업 구조의 변화 추이 등을 다양한 종류의 표나 그래프로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과정과 현재

의 모습, 세계 속에서 우리 경제의 위치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통계와 그래프의 해석 능력도 계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⑤ 국제 거래를 통해 다른 나라와 상호의존하고 경쟁함을 이해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시장 규모가 작았던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현재 세계 12위의 무역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 거래는 효율적인 경제 활동에 기여하며 거래 당사국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 국제 거래를 통해 세계 각국은 상호의존적이 되며, 다른 나라와의 거래 없이 발전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가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국제 거래는 한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거나, 생산되는 것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이나 보다 좋은 품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거나, 선택을 다양하게 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초등학교생들이 자주 접하는 재화를 예로 들어서 제시한다. 다른 나라와 재화나 서비스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업가의 노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⑥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를 탐구한다.

우리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서 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통해 생존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의 혁신, 기술 개발, 노동의 질 향상(인적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

신제품의 개발, 신시장의 개척, 신자원의 발견, 신생산방법의 도입, 새로운 경영기법 및 경영조직의 결성 등과 같은 다양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나 기업가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신기술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제시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중요성도 서술한다. 창의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로 얻은 혁신이나 기술 개발의 사례를 통해 창의성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한다.

III. 7차 교육과정 및 개정시안과의 비교

통합 교과를 지향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는 환경 확대 접근법(expanding-environment approach) 또는 경험 영역의 확대 원리(widening-horizons principle)를 유지하고 있다. 학년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의 환경 이해 범위가 넓어진다는 계열(sequence) 이론에 따라 3학년에서 우리 고장, 4학년에서 우리 시·도, 5학년에서 우리나라를 다루고 있다.

경제는 학년별로 볼 때 4학년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사실상 5학년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다. 6학년에 경제 관련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를 경제 분야로 보기는 어려우며, 역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다루는 가운데 극히 일부분으로 경제 소재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가 환경 확대 접근법에 충실하다 보니 일부 경제 개념이 중복되어 다루어지거나 일부 중요한 경제 개념은 적절한 위치, 즉 적절한 학년에 놓여 있지 않으며, 아예 다루지 못한 경제 개념들도 있었다.³⁾ 예를 들어, 희소성과 선택, 의사결정이 4학년에 나오는데 이것들은 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다. 즉,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3학년

3) 손정식·박형준·이운호·한진수(2005), 「초·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경제단원 내용 검토(국민공통 기본교과)」 참조

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3학년에서 ‘우리 고장’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룰 만한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했다.

또한 시장의 모습이나 역할이 3학년에서 이미 다루어졌는데 4학년에서 또다시 시장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내용이 다루어졌다. 이는 3학년에서는 우리 고장의 시장, 4학년에서는 우리 시·도의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이라는 동일한 소재가 반복된 결과이다. 이와는 달리 정작 초등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시장경제와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2005)의 개정시안에서도 환경 확대 접근법(expanding-environment approach)을 유지하고 있다. 3학년에서 우리 고장, 4학년에서 우리 시·도를 다루되, 5학년에서 역사를, 6학년에서 우리나라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는 4학년에 “경제 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그리고 6학년에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단원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시안은 대강화의 원칙에 따르고 있어 상세한 교과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주제별 주요 학습요소를 제시함으로써 학년별, 단원별로 학습해야 하는 개념을 명료화했다는 특징은 있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개정시안에서 제시된 학년별 학습 단원의 기본 골격은 따르되, 단원 명칭을 4학년 “경제 활동과 선택”, 6학년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으로 수정하고, 교과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초등학교 경제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4학년에서 회소성과 선택,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의 개념을 옳게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업이나 특화의 현상을 묘사하고 의미만을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으로 그쳤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분업이나 특화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탐구하게 하였으며, 돈과 금융이 경제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과 연결시킴으로써 경제적 사고방식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 없었던 개인 금융(personal finance)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다.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기관이나 예금 상품을 고르는 방법뿐만 아니라 신용의 의미나 신용의 중요성을 학습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가 하는 경제 활동은 서로 의존적이며 이들 사이에 재화와 서비스가 돈을 매개로 거래되는 모습, 즉 경제의 순환 모형 등을 탐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와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은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요소를 7차 교육과정 및 개정시안에서의 주요 학습요소와 비교하고 있다. <표 2>는 본 연구의 교육목표와 개정시안의 교육목표를 비교하고 있다.

<표 1> 초등학교 경제 영역 교육과정 비교 : 내용요소

구분	학년	대단원	주요 학습요소 또는 내용요소
제7차 교육과정 ¹⁾	4	◦우리 시·도의 발전하는 경제 ◦가정의 경제 생활	자연자원, 생산, 무역, 수출입, 정부의 역할, 세금, 분업, 특화, 교환, 돈, 상 호의존, 수출입, 희소성, 선택, 기회비 용, 의사결정, 효율, 생산, 생산요소, 소득, 소비, 지출, 상충관계, 합리적 소비, 은행, 저축, 이자, 금융기관
	5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자유, 경쟁, 경제 체제, 산업의 종류, 경제 성장, 실업, 경제 위기, 무역, 수출, 수입, 기술 개발
개정 시안 ²⁾	4	◦경제 생활과 관련한 선택	경제 활동, 생산, 소비, 분배, 산업 및 직업, 자원의 희소성, 바람직한 선 택, 소비자와 생산자, 소비 및 저축, 경제 정보의 활용,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 복지
	6	◦우리 경제의 성장 과 과제	시장경제, 자유와 경쟁, 경제의 성장 과 위기, 경제 성장의 성과와 문제, 국제 거래와 상호의존, 수출과 수입, 국제 경쟁력, 기업가, 노동자, 정부, 기업가의 혁신, 기술 개발, 분석적· 비판적·창의적 사고
본 연구의 교육과정 설계(안)	4	◦경제 활동과 선택	경제 활동, 희소성, 기회비용, 상충관 계, 합리적 선택, 생산과 생산요소, 분업, 특화, 생산성, 상호의존, 소득, 소비와 저축, 수요와 공급, 돈, 금융 기관, 이자, 신용
	6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	시장경제, 경쟁, 사유재산, 영리 추 구, 인센티브, 경제 순환, 세금, 경제 성장, 수출, 수입, 실업, 국제 거래, 상호의존, 기업가의 혁신, 기술 개발, 창의적 사고

주 : 1) 손정식·박형준·이윤희·한진수(2005), 『초·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경제단원 내용 검토(국민공통 기본교과)』에서 정리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2005), 『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결과』

<표 2> 초등학교 경제 영역 교육과정 비교 : 교육목표

[4학년]

구 분	교 육 목 표
개정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의 생활을 생산, 분배, 소비라는 경제 활동의 측면에서 파악한다. ②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경제 활동의 각 영역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고려할 점을 확인한다. ③ 생산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산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④ 소득의 원천 및 용도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 및 저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⑤ 소비자 권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체험한다. ⑥ 분배의 의미를 사회 복지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분배가 필요한 영역을 확인한다.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제 활동의 의미와 경제의 기본 문제를 이해한다. ② 합리적 선택을 위한 기회비용과 상충관계를 이해한다. ③ 생산의 의미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한다. ④ 소비의 의미와 소비·저축·소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⑤ 경제 활동은 돈에 의해 매개됨을 이해한다. ⑥ 금융의 의미와 다양한 금융기관을 알 수 있다.

[6학년]

구 분	교 육 목 표
개정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 경제의 특징을 자유와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 ② 우리 경제의 변화를 성장, 위기, 위기 극복이라는 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나라 경제의 변화를 시민들의 경제적 삶의 변화와 연관지어 파악한다. ③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기업가, 노동자, 정부의 활동과 관련지어 분석한다. ④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 분배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⑤ 수출과 수입 등을 중심으로 국제 거래의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 경제가 국제 거래를 통해 다른 나라 경제와 상호의존하며 경쟁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⑥ 국제 경쟁력 증진을 위해 기업가의 혁신 및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경제의 원리와 장점을 탐구한다. ② 나라 경제에서 가계·기업·정부의 경제 순환 모형을 이해한다. ③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를 경제적 삶의 변화와 연관지어 파악한다. ④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확인한다. ⑤ 국제 거래를 통해 다른 나라와 상호의존하고 경쟁함을 이해한다. ⑥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를 탐구한다.

제3장 미시경제 영역

Ⅰ. 교육의 목표

중학교(9학년) 경제기초 및 미시경제 영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경제의 주요 학습 내용요소를 심화시키면서,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삶과 시장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경제교육의 목표로 한다.

소비자, 기업, 정부 등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이 활동하는 모습과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제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동시에 경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방식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생활 주변에서 경험하는 사례들에 대한 조사와 탐구를 바탕으로 경제 현상과 경제 활동에 접근하여 스스로의 이해에 도달하도록 한다.

Ⅱ. 단원별 내용체계

미시경제 영역에서는 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이라는 맥락에서 경제 활동과 경제 생활의 모습, 경제 주체의 소비와 저축, 생산 활동의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며,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모습과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활동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경제 내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개념화하여 학습하며 거시경제 영역의 국민 경제에 관한 학습내용 가운데 관련되는 기초적 내용을 다룸으로써, 나선형 반복 심화 학습의 징검다리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한다.

대단원명	중단원명	내용요소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1. 경제 생활과 합리적 선택	경제 문제, 희소성,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분업, 상호의존성, 비교우위, 특화, 무역
	2. 개인의 소비와 저축	소득, 소비, 저축, 신용 관리, 재산 관리, 수익, 위험
	3. 생산자의 생산 활동	기업, 생산, 생산요소, 이윤, 기업가, 혁신, 기업가정신, 노동자, 근로
시장경제의 이해	1. 시장과 가격 결정	시장, 수요, 공급, 수요량, 공급량,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시장 균형
	2. 시장 가격의 변동	수요의 변동, 공급의 변동, 가격의 변동, 가격의 기능
	3. 시장과 정부	경제 체제, 공공재, 규제, 조세, 소득재분배

학습 내용요소에 대한 추상적이며 이론적인 접근은 가급적 지양하고 생활 주변에서 경험하는 사례들에 대한 조사와 탐구를 중심으로 경제 현상과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며, 이를 통해 현실 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개인의 재산관리와 신용관리 문제를 정식 학습 내용요소로 다루며, 창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경제 사회적 의의를 비중 있게 다루도록 한다.

1.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1) 경제 생활과 합리적 선택

(1) 단원의 취지

삶의 물질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경제 활동의 기본적인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초등학교에서 배운 일상생활 속의 경제

활동을 생산, 분배, 소비 등의 경제 개념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또한 현실의 경제 활동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화와 전문화를 통해 풍요로운 경제 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교환을 통해 얻는 식으로 상호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이해한다.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희소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해명하고,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학습한다.

비교우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결정되는 직업의 선택(특화)이나 나라간 무역의 방향도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임을 파악하며, 개인이나 사회는 분업과 교환을 통해 상호간에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2) 단원의 목표

- ① 다양한 욕구의 해결을 위해 생산, 분배, 소비 등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 ② 합리적 선택을 통한 경제 문제의 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 ③ 경제 생활은 분업과 교환을 통해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 조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이해한다.
- ④ 비교우위의 원리를 통해 사회적 분업(특화)과 국제적 분업인 무역을 설명한다.

(3) 단원의 내용요소와 설명 범위

- ① 다양한 욕구의 해결을 위해 생산, 분배, 소비 등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으며, 소득으로 경제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산, 분배, 소비라는

경제 개념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생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욕구의 충족(소비)에 있으며, 재화의 제조뿐만 아니라 운송, 저장, 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의 제공도 모두 생산 활동에 포함됨을 이해한다.

② 합리적 선택을 통한 경제 문제의 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한 개인이나 사회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수단은 그 개인이나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희소성의 원리로부터 제반 경제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한다. 수단의 희소성은 수단의 효율적 사용을 요구하며, 여기서는 수단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된 합리적 선택을 이해하도록 한다.

누구나 희소성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으며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만 한다. 포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가치를 선택에 따르는 기회비용이라고 정의하며, 기회비용이 적어지도록 하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다.

합리적 선택의 문제는 개인, 공동체, 사회 등 모든 차원에서 발생하게 됨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예를 들면, 주어진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까와 관련하여, 개인의 용돈 사용, 학급의 자치경비 사용, 정부의 예산 사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각 경우에서의 대안 간 선택 문제를 탐구적으로 살펴본다. 또 기회비용을 간과한 채 선택 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의 확인을 통해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다.

탐구학습의 경험으로부터 합리적 선택을 위한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주어진 수단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므로 합리적 선택은 여러 선택 가능한 대안들의 비교를 필수 요건으로 한다. 무엇이 문제이며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각 대안의 가치를 평가하고 각 대안을 선택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을 확인하며, 기회비용이 적어지도록 대안을 선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③ 경제 생활은 분업과 교환을 통해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 조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이해한다.

경제 활동이 분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경제의 중요한 특성을 파악하고,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가상적인 경우와의 비교를 통해 분업적인 경제 활동이 자급자족 경제보다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을 이해한다. 분업은 특화(specialization) 및 생산과정상의 분업(division of labor)의 형태로 이루어짐을 생활 주변의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이해한다.

주변의 사례를 이용하여 각 개인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재화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설명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의존하면서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감을 이해한다.

사람들 간에 분업을 통한 상호의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각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나 요구되고 있는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 생산된 재화를 누가 얼마나 차지할 것인지 등과 같은 경제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사회적인 조정에 실패한 사례분석을 통해 조정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이해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현실의 모든 경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적인 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도 경제 문제를 조정하는 한 방식임을 단순하게 언급한다.

④ 비교우위의 원리를 통해 사회적 분업(특화)과 국제적 분업인 무역을 설명한다.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람들 간에 특화가 이루어지는 원리(비교우위의 원리)를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나라 간의 국제적 분업과 무역 또한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해한다. 여기서 비교우위의 원리란 분업 당사자 간에 기회

비용을 가장 적게 하려는 합리적 선택의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함을 파악한다.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특화하여 생산한 후 자발적 교환을 하면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자발적 교환은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 쌍방이 이득을 볼 때만 성사되는 상호 이익 게임(win-win game)의 특성을 지님을 이해한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나라 또는 두 사람 간의 특화를 가상의 간략한 예를 통해 쌍방간 특화 방향의 결정과 거래의 이익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말로써 설명한다. 설명은 사람들이나 나라들 간에 특화 방향의 결정과 특화 후 교환을 통한 상호이익의 가능성을 이해시키는 데에 한정하며, 숫자를 이용한 교역조건에 대한 설명 등 더 깊은 부분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개인의 소비와 저축

(1) 단원의 취지

이 단원에서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생산요소를 생산 활동에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은 다음, 평생에 걸친 소비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와 저축수준을 결정하는 합리적 선택 행위에 대해 살펴본다. 또 저축으로 형성된 재산의 운용을 통해 재산소득을 얻고자 하는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해 이해한다.

특히, 그 동안 개인의 경제 활동과 관련해 종전까지의 교육과정에서 도외시되어 왔던 저축 및 그에 따르는 재산의 관리 내용을 정식 내용요소로 취급한다. 특히, 개인과 사회의 현실적인 주된 관심사항을 정식으로 학습내용에 도입하여 학교 경제교육의 실용성을 강화하며, 신용 관리의 필요성 및 고령화에 따르는 노후 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갖도록 한다. 또 금융을 개인의 저축 및 재산 관리와 연결지어 생활 속에서 파악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2) 단원의 목표

- ① 소득을 얻는 여러 원천 및 개인에 따라 소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 ② 개인이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이유와 개인에 따라서 저축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
- ③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행동의 원리를 탐구한다.
- ④ 재산의 다양한 보유 형태, 재산의 운용에 따르는 수익과 위험에 대해 알아본다.

(3) 단원의 내용요소와 설명 범위

- ① 소득을 얻는 여러 원천 및 개인에 따라 소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개인의 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근로소득, 사업을 해서 얻는 사업소득, 재산으로부터 얻는 임대료와 이자 등의 재산소득 및 남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이전소득으로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각자의 생산 활동의 종류, 생산 활동에 제공하는 노동력의 양과 질,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크기가 달라짐을 이해한다.

- ② 개인이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이유와 개인에 따라서 저축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일정부분을 저축하는 이유를 전 생애에 걸친 소비 만족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파악한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의 크기, 나이, 미래의 기대소득 등에 따라서 저축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통해, 저축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전 생애에 걸쳐 소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소비-저축 계획을 작성할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어느 장년층 부부와 노인 부부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소득 크기와 구성, 저축의 비율, 보유 재산의 구성에 관해 학생에게 제시된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소득, 소비,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이 각자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탐구한다.

현재의 소비에만 집중하면서 노후를 위한 저축을 전혀 등한시하는 경우와 그 반대로 현재는 자린고비로 살아가면서 노후를 위해 모든 소득을 저축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대한 사고실험을 통해,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이 현재와 미래의 일생에 걸쳐 적절히 배분되어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소비와 저축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직관적 이해에 도달한다.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현재소득보다 더 많은 현재지출을 하게 되는 때도 있다. 이 경우 그 차액만큼을 다른 사람이나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빌려야 하며 빌린 돈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갚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소득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쓰는 것이며, 평생에 걸쳐 소비할 수 있는 돈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 얻는 소득을 넘어설 수 없음을 이해한다.

빌려 쓴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제약을 받고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봉급을 차압당하는 등 사회적 제재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③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행동의 원리를 탐구한다.

소득 중에서 얼마를 소비하고 저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소비에 쓰기로 한 돈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재화를 구입하여 소비할 때, 어떻게 소비해야 소비로부터의 만족이 극대화될 것인지에 대해 탐구한다.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설명할 때 한계효용과 같은 경제이론적인 설명을 피하고, 만족한 소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행동 지침의 탐구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한다. 자기 자신이나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구매를 하고 나서 후회를 한 사례와 후회를 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여 발표·토의하도록 하고, 급우들과 함께 이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위한 행동원리를 파악하도록 한다.

합리적인 소비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비에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회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합리적인 선택의 한 예임을 이해한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 파악과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입수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때 과소비나 사치 등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 “모방소비는 나쁘다”는 식의 소비에 관한 훈시적 설명은 가급적 지양한다.

④ 재산의 다양한 보유 형태, 재산의 운용에 따르는 수익과 위험에 대해 알아본다.

저축을 통해 재산이 형성되며, 재산은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의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운용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재산을 운용하면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 줄어드는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를 은행예금과 주식투자의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일정한 원금을 은행에 저축할 때의 안정적이지만 낮은 수익, 주식에 투자할 때의 높은 기대 수익과 동시에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는 위험을 가공적인 투자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연초의 투자액 대비 연말의 투자회수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간 수익률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 단,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복잡한 수익률 계산은 다루지 않도록 한다.

3) 생산자의 생산 활동

(1) 단원의 취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생산요소를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그 결과로 수입이 얻어지는 생산 활동의 과정을 이해하고, 이윤의 사회적 기능, 이윤을 높이기 위한 기업가의 노력, 노동자의 역할과 권리 등의 파악을 통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일수록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되어 매출이 늘고 이윤이 커짐을 파악한다. 또 기업가로 하여금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일 뿐 아니라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지표로서 기능하는 이윤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기업가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을 혁신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이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경제 주체로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기 계발의 개인적 및 사회적 의의를 이해하도록 한다.

(2) 단원의 목표

- ① 기업이 생산요소를 고용하고 재화를 생산·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생산 활동의 과정을 파악한다.
- ② 기업가의 생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및 생산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로서의 이윤의 성격을 이해한다.
- ③ 기업에서의 혁신과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의 의의에 대해 탐구한다.
- ④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기 계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3) 단원의 내용요소와 설명 범위

① 기업이 생산요소를 고용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과정을 파악한다.

크고 작은 회사뿐 아니라, 농장, 어장, 각종 상점, 음식점, 노래방, 동네 의원 등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활동을 하는 모든 단위를 가리켜 기업이라고 하며, 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한다. 기업과 기업가가 일상적인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주변에서 흔히 보는 기업과 그 경영자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학생들 스스로가 창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탐구활동을 한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데 자금의 일부가 부족한 상황을 설정하고 선택 업종(피자집 같은 일반적인 상점, 노래방, 미용실, 학원, 개인병원, 벤처기업, 농장, 어장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친근한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기업 입지의 선택, 설비투자 계획, 노동자의 고용과 원재료의 조달 계획, 부족한 자금의 조달 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이 사업계획서를 부족자금을 제공해주리라 기대되는 동업자나 은행에 제안 설명하며, 동업자나 은행은 그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수업 또는 역할놀이 수업을 조를 짜서 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 활동 내용과 과정, 기업을 경영할 때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의 종류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친숙한 감정이 형성되도록 한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가가 생산요소를 고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기업의 전형적인 생산 활동 과정을 파악한다. 기업가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고 고용된 각 생산요소에 대해 임금, 이자, 임대료의 비용을 지불하게 됨을 이해한다.

이윤은 판매수입에서 원재료비를 뺀 금액에서 임금, 이자 및 임대료

를 지불하고 마지막으로 남는 부분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윤이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음을 파악한다. 임금, 이자, 임대료가 고용된 생산요소들의 생산 활동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이윤은 기업가의 생산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가는 이윤의 획득을 목표로 하여 기업을 경영함을 이해한다.

② 기업가의 생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및 생산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로서의 이윤의 성격을 이해한다.

기업가는 생산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이윤은 기업가가 더 노력하도록 만드는 인센티브로서 작용함을 이해한다.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경쟁기업들에 비해 저렴하게 만들어 팔거나 또는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고부가가치의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일수록 보다 많은 이윤을 얻게 됨을 이해한다.

맛이 좋고 청결·친절하며 다른 음식점에 비해 양질의 음식을 값싸게 제공하는 음식점(또는 다른 종류의 기업도 무방하다)과 그와 대조되는 음식점 가운데 어떤 음식점이 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떤 음식점에 가서 외식을 하려 하는지, 결과적으로 어떤 음식점이 더 많은 매출과 이윤을 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본다. 이 같은 비교를 통해, 이윤은 소비자에게 좀더 많은 이익과 만족을 제공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또는 사회의) 보상으로, 또 기업가가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인센티브로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됨을 파악한다.

기업가가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기업을 조직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사회적 기능을 하게 됨을 이해한다. 이윤의 사회 환원 등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켜 장래에 더 큰 이윤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

③ 기업에서의 혁신과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의 의의에 대해 탐구한다.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노력들을 혁신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많은 사회일수록 경제가 발전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이 증진되는 풍요로운 사회가 됨을 이해한다. 아울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생산 활동은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한다.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혁신의 다양한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혁신이 이윤의 증대로 이어짐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조사·탐구한다.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면 개인적으로는 이윤의 증대,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부는 조세수입 증대,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됨을 이해한다.

사기·과장 광고, 유해성 상품 제조, 오염물질 배출 등을 통한 이윤추구는 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기업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이미지도 나빠져 이윤의 획득도 일시적인 것에 머무르며 지속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게 됨을 설명한다.

④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기 계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노동자는 기업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소득을 얻는 동시에 자기를 실현하며 계발하는 기회를 갖는다. 먼저, 기업의 근로자로 일할 때 근로계약의 준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근무태도와 같은 올바른 바람직한 근무 자세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향상과 자기 발전으로 보상받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이 됨을 이해한다.

임금수준,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근로자들은 노동3권의 보장 등 각종 법적 보호 아래서 그들의 권익을 추구하게 됨을 이해한다.

2.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1) 시장과 가격 결정

(1) 단원의 취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분업 활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장(場)이 시장임을 이해하고, 시장의 구성요소와 시장 거래의 특징적인 면모를 파악한다.

수요와 수요량, 공급과 공급량의 개념을 이용해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재화에 대한 과부족이 없는 균형 상태의 특징을 이해한다.

(2) 단원의 목표

- ① 재화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장으로서의 시장을 이해한다.
- ② 수요와 수요의 법칙, 공급과 공급의 법칙을 이해한다.
- ③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균형 가격이 결정됨을 이해한다.

(3) 단원의 내용 요소와 설명 범위

① 재화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장으로서의 시장을 이해한다.

시장이란 각 경제 주체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재화를 사고 파는 곳임을 이해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재화를 시장에서 구매하여 소비하고, 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다. 또 기업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고용하며 개인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생산요소를 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거래뿐 아니라 개인이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하며 기업이 생산요소를 고용하는 것도 시장 거래의 한 형태임을 이해한다. 시장의 존재로 말미암아 경제 활동

의 특화가 가능하게 되며 수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게 됨을 이해한다.

모든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그리고 거래되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거래를 행한다는 시장 거래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한다. 가급적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려는 구매자의 노력과 자신의 제품이 구매자에게 선택받도록 하기 위한 판매자의 노력이 상호 작용하여 시장에서 상품의 거래 가격이 형성됨을 이해한다.

여기서는 재래시장, 대형 할인점,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채널,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 상품, 생산요소, 자산이 거래되는 현실의 다양한 시장과 시장의 공통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를 얻으며, 가격의 기능에 대해서는 후속하여 다룬다.

② 수요와 수요의 법칙, 공급과 공급의 법칙을 이해한다.

수요란 재화를 사고자 하는 생각 또는 계획으로서, 각 가격수준에서의 수요량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한 재화의 가격 변동시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대체적인 재화를 구매하려는 개인의 대체소비 행위와, 예산의 구매력 변화로 인해 수요량이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수요의 법칙을 이해한다. 수요 계획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수요곡선임을 이해한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재 등을 예로 하는(음료수와 같이 다양한 대체재가 있는 재화가 예로서 바람직하다) 체험학습 활동을 통해,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의 대체소비 행위와 예산의 구매력 변화에 따라 수요의 법칙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해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공급이란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생각 또는 계획으로서, 각 가격수준에서 팔고자 하는 양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안다. 가격 변동시 공급량이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는 공급의 법칙을 이해한다.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 가격이 변할 때 기업가는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이윤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기업은 생산량을 확대함으로써 이윤을 늘릴 수 있음을 한계비용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즉, 생산 비용은 일정한데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단위당 이윤이 커지므로 생산량을 늘려 총이윤의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업의 비용함수에 대한 지식 없이 직관적으로 공급의 법칙에 대한 이해에 도달한다.

③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균형 가격이 결정됨을 이해한다.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때 일부 구매자들은 구매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들의 일부가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매를 하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며, 초과수요가 해소될 때 비로소 시장 가격의 상승 압력이 사라짐을 이해한다. 반대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때 일부 판매자들은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들의 일부가 더 싸게라도 물건을 팔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되며, 초과공급이 해소될 때 비로소 시장 가격의 하락 압력이 사라짐을 이해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결과적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으로 가격은 조정되고, 그 가격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됨을 파악한다.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그 상품에 대한 과부족 문제가 해소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초과수요, 초과공급, 균형상태를 이해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시장 가격의 변동

(1) 단원의 취지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을 이해하고, 각각의 경우에 시장 가격이 새로운 균형을 향해 움직이게 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가격의 변동은 시장에서 상품의 과부족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이며, 또한 수요자는 가격이 높아지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수요량을 줄이고 공급자는 공급량을 스스로 늘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조정 과정을 통해 재화에 대한 과부족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됨을 파악한다.

재화의 과부족이 있거나 또는 높은 생산비로 재화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균형 가격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효율적임을 이해한다.

(2) 단원의 목표

- ①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해 가격이 변하는 과정을 파악한다.
- ② 가격의 변동이 시장 참가자에게 보내는 신호의 의미와 신호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반응으로서 가격의 변동 과정을 이해한다.
- ③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임을 이해한다.

(3) 단원의 내용요소와 설명 범위

①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해 가격이 변하는 과정을 파악한다.

수요나 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가격이 변동한 사례를 생활 주변의 경험으로부터 찾아 분석해 본다. 그를 통해 수요나 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가격이 변동 압력을 받아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소득의 증대, 대체재 가격의 변화, 기호의 변화, 기대의 변화 등으로 수요가 확대(축소)되면 시장 균형가격 수준에서 초과수요(초과공급)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가격은 상승(하락)하게 됨을 이해한다.

생산비의 변동이나 기술 진보 등의 이유로 공급이 확대(축소)되면 원래의 시장 균형가격 수준에서 초과공급(초과수요)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가격은 하락(상승)하게 됨을 이해한다.

수요나 공급의 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동을 이해하는 학습은 추상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주변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탐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환율, 임금, 이자율 등도 일종의 가격으로서 외환, 노동력, 자금을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단순히 소개한다. 이 가운데 환율에 대해서는, 달러는 하나의 상품이며 환율은 달러라는 상품의 가격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이용해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그리고 환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로서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해외여행 비용이나 유학 비용 등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 탐구한다.

수요곡선의 이동이나 공급곡선의 이동을 통해 균형가격의 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다변수 함수 및 그래프를 이용한 다변수 함수의 표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는 중학생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므로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이동을 이용하여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한다. 생활 주변의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수요나 공급이 변동하게 되면 기존의 균형 상태에서 불균형(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가격의 조정이 진행되어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아가게 된다는 식의 조정과정에 대한 언어적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가격의 변동이 시장 참가자에게 보내는 신호의 의미와 신호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반응으로서 가격의 변동 과정을 이해한다.

재화가 과부족할 때 가격이 변동한다는 지식으로부터 가격의 변동은 재화의 과부족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또한 가격의 변동에 대해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행동을 조정하게 되며, 그 결과 과부족이 해소되는 새로운 시장 균형에 도달하게 됨을 이해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하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사람들은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재화의 과부족을 저절로 파악하게 된다. 여기서, 재화의 과부족 상태에 대한 파악이 별도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의 움직임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해한다. 또한 가격의 변동에 대해 구매자는 가격이 높아지면 스스로 수요량을 줄이고 판매자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공급량을 스스로 늘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조정과정을 통해 재화에 대한 과부족 문제가 해소됨을 파악한다.

이는 마치 사람들의 행동이 가격에 의해 이끌림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음을 이해한다. 또한 재화의 과부족 해소는 사람들의 동정이나 정부의 명령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파악한다.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들(예를 들어, 명절 때 제수용품 가격의 상승, 피서철 휴양지에서 숙박료의 급등, 공연장에서의 관람료 차등 등)을 통해, 수요나 공급의 변동 또는 차이에 따른 가격의 변동과 차이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가 수급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한다.

③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임을 이해한다.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재화의 과부족 문제가 해소된다. 그 결과 재화의 낭비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경쟁으로 인해 최저의 비용으로 생산되어 소비된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재화가 생산되고 그에 맞추어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각 재화가 사회(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씩만 과부족 없이 최저의 비용으로 생산되어 소비된다는 의미에서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된 것임을 이해한다.

또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기업가의 이윤 추구를 위한 혁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되며, 경제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됨을 이해한다. 이를 TV, 컴퓨터, 반도체 칩과 같은 제품들의 구체적인 개발 역사와 시장 변화 사례의 소개를 통해 설명한다.

3) 시장과 정부

(1) 단원의 취지

사유재산권의 보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 공공재의 공급 등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적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시장경제의 체제 원리를 우리나라 헌법의 조문을 통해 확인하며 이를 북한 사회와 비교해봄으로써, 시장경제의 제도적 특징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얻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경제를 조정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식과 체제가 있다는 이해에 도달하도록 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질서의 유지와 공익에 저해되는 경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공정하며 경쟁적인 시장질서의 유지, 환경오염이나 투기행위 등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는 재산권의 행사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해한다.

시장경제에서의 소득 격차는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임을 이해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다양한 양태에 대해서 알아본다.

(2) 단원의 목표

- ① 사유재산권의 보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 공공재의 공급 등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북한 사회와 비교해 본다.
- ② 경제 활동의 자유와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③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행해지는 이유와 다양한 지원 양태에 대해서 탐구한다.

(3) 단원의 내용요소와 설명 범위

- ① 사유재산권의 보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 공공재의 공급 등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북한 사회와 비교해 본다.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개인의 소유권, 자유로운 경제 활동(거래와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에 대해 법으로 보호하고 보장한다. 사법제도와 경찰제도 등의 의의를 시장경제 질서 유지라는 시각에서 구체적인 사례들(부동산 등기제도, 민사구제, 재산과 신체에 대한 침해의 단속과 처벌 등)을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사유재산권, 경제 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인정 등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이 우리나라 헌법 조문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북한 헌법의 관련되는 조문과 비교해본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제도적 특징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얻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경제를 조정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식과 체제가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민간기업에 의해 생산되기 어렵다. 여기서는 민간기업이 국방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를 생산한 후 시장에서 판매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그를 토대로 정부

가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하게 되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공재 서비스의 집단적 소비자인 시민들로부터의 조세 징수를 통해 마련됨을 이해한다.

② 경제 활동의 자유와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재산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이다. 직업의 선택을 위한 준비나 직업의 선택, 거주지의 선택, 소비와 저축 행위, 거래와 계약 등 모든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땅이나 건물 등 유형의 재산은 물론 특허나 저작권 등 무형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시장경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보호되고 보장받는다. 그러나 경제 활동이나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에 대해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 때 제한은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규제는 가변적이며 민주사회에서 경제적 규제 역시 민주적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시장경쟁이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정부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와 경쟁의 촉진을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됨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탐구한다.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 땅값이 급등하는 투기 지역에서의 부동산 매매 제한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경제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규제되고 제한될 수 있으며, 규제와 제한의 내용과 범위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이해한다. 환경오염 규제의 강화나 투기 지역에서의 부동산 매매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의 변천 사례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해에 접근한다.

③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행해지는 이유와 다양한 지원 양태에 대해서 탐구한다.

시장경제에서 개인 간에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확인하고, 아울러 소득의 차이는 사람들이 자기 계발과 근면에 힘쓰도록 하는 인센티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원리적으로 이해한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것도 자기 계발을 통해 장차 높은 소득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인센티브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이해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고,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나 소득의 재분배는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교정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해한다. 소득 격차가 심화될 경우에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대립과 반목의 심화, 산업 평화의 저해, 공동체 의식의 붕괴 등과 같은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토대가 침식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 사회는 소득 격차의 완화를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지원의 종류와 실태에 대해서 외국과 비교하여 탐구해 보도록 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나 의의에 대한 토론과 탐구를 통하여, 모든 시민들의 권리인 인간다운 최저 생활의 보장, 최소한의 기회 균등성 확보, 경제적 자립 기회의 제공,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완화, 사회 공동체 의식의 강화 등의 이해에 도달한다.

III. 7차 교육과정 및 개정시안과의 비교

1. 단원 비교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7차 교육과정	(2)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	(가)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나)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다)민주 시민의 경제적 구실
	(3)시장경제의 이해	(가)시장경제의 특성 (나)가격의 결정과 변동 (다)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개정시안	(2)경제적 삶과 경제 문제 (3)시장경제의 이해	-
개선안	(2)경제적 삶과 경제 문제	(가)경제 생활과 합리적 선택 (나)개인의 소비와 저축 (다)생산자의 생산 활동
	(3)시장경제의 이해	(가)시장과 가격 결정 (나)시장 가격의 변동 (다)시장과 정부

7차 교육과정에서는 경제의 기초와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미시경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 “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 “시장경제의 이해”라는 두 개의 대단원을 두었다. 그리고 각 대단원에는 세 개의 중단원을 두어 내용 구분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7차 교육과정 개정시안에서도 “경제적 삶과 경제 문제” 및 “시장경제의 이해”라는 두 개의 대단원명을 두고 있으나, 대강화의 원칙에 따라 각 대단원에서 중단원 구분은 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연구한 개선안에서는 개정시안과 동일한 두 개의 대단원을

두며, 교과서 집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대단원 내에 세 개씩의 중단원을 두는 방법으로 내용 목표들을 구분하고 있다. 대강화 원칙이 고수되더라도 개선안에서와 같은 내용요소들의 중단원 편제체계가 일정한 시사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선안의 내용 편제는 7차 교육과정이나 개정시안과는 세 가지 점에서 뚜렷하게 다르다. 그 첫 번째 차이는, 경제 체제 내용요소의 배치에 있다. 7차 교육과정과 개정시안에서는 경제 체제 내용이 앞쪽의 경제 기초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종전의 편제와 개정시안에서는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이 미리 소개되고 학생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선언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암기해야 할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개선안에서는 앞부분에서 분업과 상호의존성을 다루면서 경제 문제의 해결과 경제적 조정의 필요성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경제 체제 내용은 전체 내용 편제에서 맨 뒷부분으로 돌려서 배치하고 있다. 그 취지는 학생들이 우선 시장경제 속에서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해 파악하고 시장을 통해 자원이 배분되고 소득이 분배되는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난 후에, 그것이 경제 조정체계의 하나로서 시장경제 체제로 명명되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정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다른 조정방식인 계획경제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경제적 조정체계로서의 시장경제의 특징에 대해 암기해야 하는 선언적인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이해되는 지식으로서 명료하게 파악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런 배치의 의도하는 바이다.

개선안에서는 경제 체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내용요소를 첫 번째 대단원이 아니라 두 번째 대단원에 배치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형은 민간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시장 교환으로 특징지어지는 자유시장경제이다. 개선안에서는 첫 번째 대단원에서 경제 기초에 이어 소비자와 생산자의 합리적인 경제 활동에 관한 내용요소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단원에서는 이들이 시장

에서 만나 교환을 행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루어진다. 이어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정부의 일차적인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자연스런 규정이며 설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시장과 그 기능을 설명하기에 앞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이어 단순히 또 다른 하나의 경제 주체라는 이유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배치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과 개정시안의 편제체계를 보자. 제일 앞부분에서 경제 체제로서의 시장경제 체제의 내용이 선언적으로 제시되고, 다시 이어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선언적으로 제시되는 순서가 된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경제 체제를 이해하지 않고 암기한 후에 그와 연계하여 다시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암기해야 하는, 연속되는 선언적 지식의 암기를 요구받게 된다. 그보다는 자유시장경제(소비자, 생산자, 시장)에 대한 설명에 후속하여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정부라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다음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정부 역할에 관한 내용요소가 제시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속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관련한 헌법 조문을 확인하고, 이를 북한 헌법의 관련 조문 등과 비교 탐구하게 되면 경제 체제에 관한 지식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탐구적으로 학생들에게 습득되고 이해되는 지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7차 교육과정이나 개정시안과 본 개선안의 두 번째 중요한 차이는, 전자가 경제 주체들의 윤리적 경제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후자의 안들은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경제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시안과 본 개선안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중단원으로 다루어진 경제사 또는 경제 체제의 변천과정을 완전히 생략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개선안은 신용관리와 재산관리의 점증하는 사회적 중요

성을 반영하여 그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가 평생에 걸쳐 소비 만족을 극대화한다는 맥락에서 저축, 신용관리, 자산운용 행위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금융’의 기초 내용이 취급되고 있다. 자금의 흑자 단위는 자금을 제공하며 자금의 적자 단위는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의 흐름(금융) 현상이 가계의 신용관리 및 자산운용, 창업과정에서의 기업의 부족자금 조달이라는 실생활적인 상황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 교육목표 비교

1) 경제적 삶과 경제 문제

구분	교육 목표
7차 교육 과정	<p>(2)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p> <p>(가)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p> <p>① 경제는 인간 생존을 위한 필요(need)와 문화적인 삶을 위한 욕구(want)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제공함을 이해한다.</p> <p>② 희소성, 기회비용, 비용-편익 등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조건을 설명하고, 학습자가 경험하는 현실 경제 사례에 적용하여 의사를 결정한다.</p> <p>[심화 과정]</p> <p>① 환경오염이 물과 공기를 얻는 방법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경제학적 기본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p> <p>(나)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p> <p>① 생산(분업), 교환, 분배 등 경제 활동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여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파악한다.</p> <p>② 중세까지의 농경 사회, 근대 이후의 산업 사회, 미래의 정보 사회는 각각 농업, 공업, 정보 산업을 기본 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p>

구분	교육 목표
7차 교육 과정	<p>③ 근대 사회에 와서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가 나타났다는 맥락에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이해한다.</p> <p>④ 미래 경제에는 국제화와 정보화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이 어떻게 변해 갈지를 예측해 본다.</p> <p>[심화 과정]</p> <p>① 미래 사회에는 어떤 독창적인 상품이 소비자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예측해 보고, 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본다.</p> <p>(다)민주 시민의 경제적 구실</p> <p>①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소개하고, 개인의 소비와 국민 경제, 소비와 저축, 올바른 소비 행태, 소비자 선택(주권, 투표)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민주 시민이 해야 될 소비자 구실의 방향을 설명한다.</p> <p>②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기업가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공공의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방법을 현실 사례에 적용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본다.</p> <p>③ 시민이 국가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경제적 일을 ‘납세자, 선거권자, 정부 정책 결정자’의 처지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적용하여 관련되는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p> <p>[심화 과정]</p> <p>① 신문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는 경제 문제를 찾아 경제, 정치, 법문화 및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의 다양한 면을 고려해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p> <p>② 개인의 소비와 국가 경제 상황, 국산품, 과소비 등의 쟁점 사항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조사해서 민주 시민의 행동 원칙을 강력으로 제시한다.</p>

구분	교 육 목 표
개정 시안	<p>(2)경제적 삶과 경제 문제</p> <p>① 희소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경제적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희소성의 사례를 제시한다.</p> <p>② 경제적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여 효율성, 형평성, 장기적 관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p> <p>③ 인간의 경제적 삶은 분업과 교환을 통해 개인간, 지역간, 국가간에 상호의존적으로 전개되며, 어떤 일방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상대방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을 이해한다.</p> <p>④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경제 체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을 알아본다.</p> <p>⑤ 경제적 삶 속에서 소비자(저축·투자자), 생산자(기업가와 노동자),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과 책임을 탐색한다.</p>
개선 안	<p>(2)경제적 삶과 경제 문제</p> <p>(가) 경제 생활과 합리적 선택</p> <p>① 다양한 욕구의 해결을 위해 생산, 분배, 소비 등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p> <p>② 합리적 선택을 통한 경제 문제의 해결과정을 파악한다.</p> <p>③ 경제 생활은 분업과 교환을 통해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 조정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이해한다.</p> <p>④ 비교우위의 원리를 통해 사회적 분업(특화)과 국제적 분업인 무역을 이해한다.</p> <p>(나)개인의 소비와 저축</p> <p>① 소득을 얻는 여러 원천 및 개인에 따라 소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p> <p>② 개인이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이유와 개인에 따라서 저축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p> <p>③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행동의 원리를 탐구한다.</p> <p>④ 재산의 다양한 보유 형태, 재산의 운용에 따르는 수익과 위험에 대해 알아본다.</p>

구분	교 육 목 표
개 정 시 안	<p>(다)생산자의 생산 활동</p> <p>① 기업이 생산요소를 용하고 재화를 생산·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생산 활동의 과정을 파악한다.</p> <p>② 기업가의 생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및 생산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로서의 이윤의 성격을 이해한다.</p> <p>③ 기업에서의 혁신과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의 의의에 대해 탐구한다.</p> <p>④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기 계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p> <p>(2)경제적 삶과 경제 문제</p> <p>① 희소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경제적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희소성의 사례를 제시한다.</p> <p>② 경제적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여 효율성, 형평성, 장기적 관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p> <p>③ 인간의 경제적 삶은 분업과 교환을 통해 개인간, 지역간, 국가간에 상호의존적으로 전개되며, 어떤 일방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상대방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을 이해한다.</p> <p>④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경제 체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을 알아본다.</p>

개선안은 사회적으로 분업이 이루어지고 나라 간에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합리적 선택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예의 하나인 비교우위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을 분업의 한 종류로서 파악하고 중학교 거시 및 심화선택 경제 과목에서의 국제 경제 기초이론 부분에 대한 나선형 반복 교육의 첫걸음을 중학교 미시부분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이다.

또한 경제 체제 및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내용요소를 다음의 대단원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소비자의 경제 행위와 관련해서는 저축과 재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정식적인 내용요소로 강조하여 다루고 있으며, 기업과 관련해서는 이윤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경제 행위의 윤리성 취급은 주문하고 있지 않다.

2) 시장경제의 이해

구분	교육 목표
7차 교육 과정	<p>(3) 시장경제의 이해</p> <p>(가) 시장경제의 특성</p> <p>①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주체별로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원칙과 그 과정의 특성을 이해한다.</p> <p>②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인 사유재산권, 경제 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등을 헌법의 기본권과 경제 조항에서 근거를 찾아 그 의미를 설명한다.</p> <p>[심화 과정]</p> <p>①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p> <p>(3) 시장경제의 이해</p> <p>(가) 시장경제의 특성</p> <p>①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주체별로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원칙과 그 과정의 특성을 이해한다.</p> <p>②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인 사유재산권, 경제 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등을 헌법의 기본권과 경제 조항에서 근거를 찾아 그 의미를 설명한다.</p> <p>[심화 과정]</p> <p>①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p>

구분	교육 목표
7차 교육 과정	<p>(나)가격의 결정과 변동</p> <p>① 시장경제 활동에 신호등 구실을 하는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하는지를 이해한다.</p> <p>②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수요·공급을 예로 들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p> <p>③ 공산품, 농·수산물 및 서비스 상품을 예로 들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과정을 설명한다.</p> <p>④ 소비자와 생산자는 상품 가격 변동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신의 경험과 주위의 기업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가격 기능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p> <p>[심화 과정]</p> <p>① 도시의 교통 문제, 주택 문제, 사교육(과외) 문제 등 현실 사회 문제를 선정하여 가격 기구에 의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p> <p>(다)시장경제의 발전 과제</p> <p>① 시장경제는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지만, 경쟁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비능률과 갈등이 발생하여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이해한다.</p> <p>② 경쟁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될 제도나 행태를 조사와 토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시한다.</p> <p>③ 시장경제가 개인의 이익 추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과도한 이익 추구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 공동체 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p> <p>[심화 과정]</p> <p>① 신문 자료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경쟁 사례를 찾아 그 폐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쳐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를 추출한다.</p>

구분	교 육 목 표
개정 시안	<p>(3)시장경제의 이해</p> <p>① 수요와 공급의 의미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알아본다.</p> <p>②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변동하는 원리를 이해한다.</p> <p>③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인하는 신호로서 가격의 다양한 기능을 파악한다.</p> <p>④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사례를 들고, 그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p> <p>⑤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인 사유재산권, 경제 활동의 자유, 사회적 이익의 추구 등을 헌법의 기본권과 경제 조항에서 근거를 찾아 그 의미를 설명한다.</p>
개 선 안	<p>(3)시장경제의 이해</p> <p>(가)시장과 가격 결정</p> <p>① 재화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장으로서의 시장을 이해한다.</p> <p>② 수요와 수요의 법칙, 공급과 공급의 법칙을 이해한다.</p> <p>③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균형 가격이 결정됨을 이해한다.</p> <p>(나)시장과 가격 변동</p> <p>①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해 가격이 변하는 과정을 파악한다.</p> <p>② 가격의 변동이 시장 참가자에게 보내는 신호의 의미와 신호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반응으로서 가격의 변동 과정을 이해한다.</p> <p>③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임을 이해한다.</p> <p>(다)시장과 정부</p> <p>① 사유재산권의 보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 공공재의 공급 등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북한 사회와 비교해 본다.</p> <p>② 경제 활동의 자유와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p> <p>③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행해지는 이유와 다양한 지원 양태에 대해서 탐구한다.</p>

개선안에서는 경제 체제와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내용요소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의 한 내용요소로서 배치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시장에서 가격의 결정과 변동 및 가격의 기능에 대한 내용요소와 배치 체계는 세 개안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서는 개정시안과는 달리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 개선안은 시장경제 체제의 체제적 원리로서 사적 소유 및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 주체로서 정부를 소개하고 정부가 시장을 보완한다는 설명구도를 지니고 있다.

개선안은 시장질서의 유지, 외부불경제 등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보완 등에 대해서 정부는 공공복리를 위해 경제 활동의 자유와 소유권의 행사를 규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규제와 제한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름을 강조하고 있다. 그를 통해 경제적 규제도 시민들의 합의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현실 자유시장경제 체제도 나라에 따라 다소간에 다른 모습을 띌 수도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제4장 거시경제 영역(고등학교)

1. 교육의 목표

10학년 과정인 거시경제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학습한 경제 순환, 경제 성장, 국제 거래 등의 주요 학습 내용요소를 한층 심화시키면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들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과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정치한 이론의 전개를 지양하고,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폭넓게 제시하여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 경기 변동, 실업, 인플레이션 등 기본적인 거시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초점

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국가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의 의미와 국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일인당 국민소득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활용방법을 탐색한다.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국가 경제의 순환구조를 이용하여 파악하며,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구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알아본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성장 과정에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원인 및 국가 경제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도 탐구해 본다.

II. 단원별 내용체계

대단원명	중단원명	내용요소
국가 경제의 이해	1.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	국민소득, 일인당 국민소득, 국민소득의 순환, 경상수지, 경제 성장, 경제성장률
	2. 실업과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실업, 인플레이션,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경제 안정

1. 국가 경제의 이해

1)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

(1) 단원의 취지

우리가 직면하는 경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국가 경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민소득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소득은 국가경제 전체의 활동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임을 이해한다. 또한 국민소득의 소득측면과 지출측면을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으로 이루어진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연계하여 파악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전체적인 순환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국가의 경제 성장은 국가별로 혹은 시대별로 달라지는데,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탐색하며,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파악한다.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은 국가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다. 절약의 역설과 같은 구성의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에 개별 소비자 혹은 개별 생산자를 다루는 미시적 시각에서 경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경기 침체와 같은 경제 문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개인이나 기업가와 같은 미시적 경제 주체들도 국가경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토록 한다.

(2) 단원의 목표

- ① 국민소득의 의미와 의의를 이해한다.
- ② 국민소득이 분배, 지출되는 국민소득의 순환을 이해한다.
- ③ 국가 경제에서 해외부문의 역할을 이해한다.
- ④ 경제 성장의 의미와 경제 성장의 요인을 파악한다.

(3) 단원의 내용요소와 설명 범위

① 국민소득의 의미와 의의를 이해한다.

국민소득은 주어진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임을 이해한다. 또한 개인들이 국가경제 활동지표의 개념으로써 국민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예시하며, 국민소득의 변화는 고용규모의 변화와 연관됨을 이해한다(예시 : 기업가들은 우리나라 혹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여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될 때 투자를 늘려 생산을 증가시키거나 신제품을 출시해야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미래의 국민소득이 얼마일지를 전망하기 위해 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알기 위하여 일인당 국민소득을 이용한다. 우리나라와 주요 OECD 국가들, 중국 등 BRICs 국가들의 국민소득 및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을 이해한다. 이때 국토면적 및 인구수의 자료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력이 상당한 수준임을 인식한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음을 이해한다.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국민소득의 한계를 간단히 예시하여 이해하며 세부적으로 모두 열거하지는 않는다. 비록 한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더 좋은 지표가 없으므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국가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임을 강조한다(예시 : 어떤 한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또 다른 기업은 오염된 물이 한강에 유입되기 전에 정화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우리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기여한 크기는 생산한 상품의 가치에서 수질오염을 정화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가치임을 설명한다. 하지만 국민소득은 생산된 상품의 가치와 수질정화 서비스 가치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증가가 곧 생활수준의 증가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정부의 국민소득 통계는 국내총생산(GDP) 혹은 국민총소득(GNI) 등 여러 방법으로 발표하지만 총량의 개념으로 국민소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개념의 기술적 정의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국민소득이 분배, 지출되는 국민소득의 순환을 이해한다.

단순한 국민소득 순환모형을 이용하여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

업, 정부, 해외 부문의 경제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탐구한다. 순환모형을 완성된 그림으로 설명하지 말고 생산요소의 거래와 생산물의 거래를 단계별로 탐색한다. 또한 각 개인은 각기 다른 경제부문 하나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가계부문에 속하면서 동시에 기업부문에 포함됨을 이해한다. 경제의 순환을 이해하는 것은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함을 인식한다.

먼저, 생산요소시장을 중심으로 국민소득의 순환과정을 파악한다. 기업부문을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계부문으로부터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구입하는 대가로 임금, 이윤(이자), 지대 등의 비용을 지출한다. 따라서 가계부문을 기업부문에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게 됨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기업부문의 생산이 증가해야 함을 이해한다.

생산물시장(재화와 서비스시장)에서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의 경제 주체들이 생산물을 구입하는데 이를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라고 함을 인지한다. 국내의 경제 주체가 해외 생산물을 구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고, 수입은 기업부문의 생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해외에 지출하는 것임을 인지한다. 해외부문이란 우리나라와 거래가 있는 외국의 가계, 기업, 정부를 통틀 개념이다.

기업의 투자는 금융자산 혹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새로 생산된 자본재를 구입하는 지출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기업이란 생산 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 주체를 총칭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즉, 대기업, 중소기업들뿐 아니라 농부, 동네슈퍼, 비디오가게, 자영업자들도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기업이다.

이러한 국민소득 순환모형을 이해함으로써 생산물 및 생산요소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흐름이 증대하면 국민소득이 증대함을 예시를 통해 개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파악한다(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기업들이 미래의 경제상황을 어렵게 전망한다면 생산요소시장에서 기업은 노동을 비롯한 생산요소를 덜 구입하고 생산을

줄인다. 그 결과 가계부문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도 줄어 기업부문의 재고가 늘게 되므로 기업은 생산을 더욱 줄여 국가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나쁠 때 개별 소비자는 저축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모든 소비자가 그렇게 행동하면 국가경제는 더욱 침체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단, 독립적 지출의 승수효과와 엄격한 의미의 삼면등가의 법칙은 교과 과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경제 순환을 나타내는 그림은 정교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소득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

③ 국가 경제에서 해외부문의 역할을 이해한다.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의 국민소득에서 국제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부문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해외부문과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외국과의 우호관계가 중요함을 인지한다.

국민소득의 순환모형에서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경상수지와 같은 개념임을 이해하고 경상수지 적자, 흑자, 균형의 개념을 파악한다. 경상수지의 흑자와 적자는 좋고 나쁨의 문제로 파악하기보다는 국가 경제활동의 산물로 파악하는 시각을 이해한다.

④ 경제 성장의 의미와 경제 성장의 요인을 파악한다.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민소득의 증가율로 파악함을 인지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한다. 국민소득은 실제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할 때 증가하는데,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배제한 국민소득의 측정을 실질 국민소득이라 함을 이해한다.

또한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에 따라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속도가 서로 다를 것을 탐구한다.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측정된 경제적 생활수준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며, 국가들 생활수준의 상

대적 위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임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의 시대별 추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및 1960년대와 2000년대의 한국, 필리핀, 브라질 등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한다.

한 국가의 생활수준은 그 경제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생산 능력은 물적자본, 인적자본, 자연자원, 기술지식 수준과 재산권 제도 및 정치적 안정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이해한다.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개인과 기업은 물론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즉, 저축과 투자 장려, 해외투자 유치, 교육 강화, 연구개발 촉진, 자유무역 허용과 같은 경제행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도움이 됨을 이해한다.

2) 실업과 인플레이션

(1) 단원의 취지

한 나라의 경제는 수많은 경제 문제에 직면한다. 그 가운데 경기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나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삶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실업은 나라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개인의 경제적 기반은 물론 삶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나라 경제를 경제적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삶의 질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그것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경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학습한다. 또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나라 경제 전체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탐구해 본다.

(2) 단원의 목표

- 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변동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② 실업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한다.
- ③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한다.
- ④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및 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탐색한다.

(3) 단원의 내용 요소와 설명 범위

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변동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국가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다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호황과 불황국면이 교차하는 경기 변동을 겪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한다(이를 위해 우리나라 실질 GDP의 성장과정을 1980년 이후 연도별 자료로 제시한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과 경기 변동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한다. 또한 이런 경기변동 과정에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기변동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② 실업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한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총공급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총수요-총공급 모형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은 심화선택 과목인 「경제」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총수요-총공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나라 전체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공급’보다 ‘그에 대한 가계, 기업, 정부, 해외의 수요’가 줄어들면 생산된 생산물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누적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량을 축소하려 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수준에서 실업의 원인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또한 이 단원에서는 실업이 발생하는 다양한 양상과 실업이 나라 전체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실업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산업간 구조조정, 새로운 직업의 탐색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 다양한 실업의 양상이 소개될 수 있다. 아울러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기본적인 실업률 지표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실업은 국가적으로 인적자본의 감퇴로 인한 경제 성장 잠재력의 감퇴, 사회 불안, 범죄의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원천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실업의 고통과 비용을 학생들이 신문이나 뉴스 등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와 함께 연령별, 성별, 학력별 실업의 격차 등 실업과 관련된 문제를 학생들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한다.

실업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원인도 ‘한나라 전체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공급’보다 ‘그에 대한 가계, 기업, 정부, 해외의 수요’가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기술할 수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개별 상품의 가격과 물가의 차이, 인플레이션의 의미 등을 함께 학습하며, 이자율의 변동, 생산 비용의 증가, 환율의 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한나라 전체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와 가능한 통계 자료를 함께 제시해 준다. 또한 학생들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를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플레이션은 나라 전체에 자의적인 소득 재분배, 투기의 성행, 자원배분의 왜곡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개별 경제 주체별로도 경제 생활에서 자산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과 불편을 겪게 할 수 있다. 실업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관련된 사례를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 직접 조사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④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및 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탐색한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이것을 ‘한나라 전체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공급’과 ‘그에 대한 가계, 기업, 정부, 해외의 수요’와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나라 전체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공급’보다 ‘그에 대한 가계, 기업, 정부, 해외의 수요’가 늘어날 때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지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실업이 줄어든다고 기술할 수 있다. 반면에 원유 가격의 인상 등으로 전반적으로 생산비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며, 이에 따라 ‘한나라 전체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한나라 전체의 생산’이 둔화되어 실업이 늘어난다는 수준에서 기술할 수 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나라 경제나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때문에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구체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심화선택 「경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정부가 조세와 정부지출의 조정(재정정책)과 통화량 및 이자율의 조정(통화정책)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에서 기술한다. 또한 이런 경기 대책 이외에,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조사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Ⅲ. 7차 교육과정 및 개정시안과의 비교

1. 단원 비교

구 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7차 교육과정	1.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1)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 (2) 현대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3) 세계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
개정시안	1. 국민 경제의 이해	-
개선안	1. 국가 경제의 이해	(1)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 (2) 실업과 인플레이션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이라는 대단원에 3개의 중단원을 두었다. 개정시안은 교육과정의 대강화 원칙에 따라 대단원명을 “국민 경제의 이해”로 설정하고 중단원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연구한 개선안에서는 전체적으로 대강화의 방침은 수용하지만 교과서 집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2개의 중단원을 두는 방법으로 단원을 제시한다.

대단원명에서 용어를 ‘국민 경제’에서 ‘국가 경제’로 전환하였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초등과정에서 공부하는 ‘나라 경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발전시키는 부분이므로 국가 경제라는 용어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 중단원으로 되어 있던 세계 시장경제 부분은 제외하였다. 세계 경제와 관련된 논리적 설명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틀을 설명하면서 각 부분에 세계 시장경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통합하며 부분적으로는 미시부분에 설명하는 것으로 내용구성을 전환한 것이다. 예를 들어, 비교우위와 환율에 관한 사항은 미시경제 영역에서 다루고 경상수지에 관한 사항은 거시경제 영역에 통합하여 다룬다. 또

한 7차 교육과정의 중단원명인 현대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은 결국 경기 변동과 관련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주요 내용이므로 공부하는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바꾸었다.

2. 교육목표 비교

1)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

구분	교육목표
7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소득지표를 국내총생산(GDP) 수준에서 이해한다. ②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내총생산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론한다. ③ 국민소득 지표를 이용하여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고, 그 변동 경향을 설명한다. ④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저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⑤ 시장경제에서 정부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임을 설명한다. <p>[심화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러 나라의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개정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소득의 의미를 국민 경제의 순환과 변동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② 경제 성장의 중요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양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질적인 경제 발전도 고려해야 함을 이해한다.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소득의 의미와 의의를 이해한다. ② 국민소득이 분배, 지출되는 국민소득의 순환을 이해한다. ③ 국가 경제에서 해외부문의 역할을 이해한다. ④ 경제 성장의 의미와 경제 성장의 요인을 파악한다.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7차 교육과정 및 개정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국민소득을 총량으로서 이해하도록 할 뿐이며 그 지표인 국내총생산 등의 기술적 정의 및 측정을 강조하지 않고 이들은 선택과목 「경제」에서 다루도록 한다.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을 구분하는 설명을 배제하며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자본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관련된 경제자료들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기보다는 교과서에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세계경제 관련 내용 중 거시경제적 내용을 국민소득의 흐름 속에서 통합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2) 실업과 인플레이션

구분	교육 목표
7차 교육과정	① 우리나라 사회에서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자료를 들어 제시하고, 경제와 관련되는 현상을 분류한다. ② 우리나라의 물가와 실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변동 양상을 분석한다. ③ 물가가 변동하는 원인을 화폐, 수요, 공급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 기업, 정부의 구실을 나누어 제시한다. [심화 과정] ① 범죄, 비행, 환경 문제 등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개정시안	① 물가의 의미와 물가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② 실업의 의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개선안	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변동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② 실업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한다. ③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한다. ④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및 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탐색한다.

이 부분의 내용은 7차 교육과정이나 개정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거시경제의 주요 문제인 경기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다루고 있다. 다만, 7차 교육과정에서 실업보다는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각 경제 주체의 노력이 도덕적 규범을 강조하는 듯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경제 안정화 정책의 틀 속에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이런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추가하였다.

3) 세계 시장경제의 경쟁과 협력

구분	교육 목표
7차 교육과정	① 국제 사회와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일상생활 경험에서 찾아 그 의미와 문제를 분석한다. ② 비교우위, 국제수지, 환율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국제 경제 거래관계를 설명한다. ③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④ 세계 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심화 과정] 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산업을 조사해서 앞으로 특화해 나갈 상품을 선정해 본다.
개정시안	① 국제 거래, 환율 등과 관련된 학습내용을 통해 대외 거래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개선안	- (① 국가 경제에서 해외부문의 역할을 이해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에서 중단원으로 되어 있던 세계 시장경제와 관련된 교육목표는 논리적으로 유사한 다른 부분에 포함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내용구성을 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비교우위 개념은 세계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산의 기회비용의 차이에 의

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미시경제 영역에서 통합하여 다룬다. 또한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와 관련된 사항들은 국내총생산과 경제 성장의 중단원에서 ‘국가 경제에서 해외부문의 역할을 이해한다’는 목표 아래 간단히 다룬다.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삭제하였다. 이것은 개정시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5장 주제(strand) 중심 영역

1. 교육의 목표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까지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마무리하면서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새롭게 이수하게 될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기본적인 경제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개념을 학습하였다면,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과목 「경제」에서는 이를 좀더 심화시키고 학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 내용을 다루게 된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중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나 원리를 이용하여 실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왜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일반사회 단원을 주제(strand)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에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정시안에서 제시된 주제는 문화, 정의, 환경, 세계화, 인권, 변화, 삶의 질 등 7개이다(실제로는 7개의 주제가 5개 정도로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7개 주제는 통합적 사고를 기르는 입장에서 각각 경제적 측면에서 쟁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주제 가운데 ‘세계화’ 주제 하나만을 선정하여 경제영역 교육과정을 설계한 이유는 ‘개정시안’이 비록 각 주제별로 정치·경제·사회·문화·법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는 특정 영역이 각 주제의 중심이 되어 통합 기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화는 사회·문화 영역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의와 인권 등은 정치·법 영역이 중심이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7개의 주제 가운데 경제 영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교육과정 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7개의 주제 가운데 경제 영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주제로는 ‘세계화’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 세계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쟁점은 경제 영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와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성취 목표를 기술하였다. 세계화와 관련된 경제 이외의 다른 영역의 관점을 기술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세계화 단원이 경제가 중심이 되어 기술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세계화(globalization)’ 개념은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지역화’가 ‘지방화(localization)’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하는 궁금증도 자아내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시안’에서 ‘세계화와 지역화’로 주제명을 제시했으므로 본 연구진의 교과과정 설계에서도 동일한 주제명을 따랐음을 밝혀둔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법 등 여러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화 단원에서는 이러한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환경변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조망한다.

II. 단원별 내용체계

대단원명	내용요소
세계화와 지역화	무역규모, 자유무역의 이해득실, 자유무역협정, 국산품과 외제품,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 해외 직·간접투자, 외국인노동자, 부국과 빈국 사이의 소득 격차와 해외 원조

1. 세계화와 지역화

(1) 단원의 취지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 환경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 하라고 하면, 아마도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를 꼽는 사람들이 제일로 많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경 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 개념이 확산되어 생산물(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자본과 노동)가 쉽게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 이동함으로써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는 이른바 ‘지구촌화(global village)’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일시에 세계화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세계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국가들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을 통해 지역간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지역주의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경제 마인드를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중요하다. 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및 지역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갖는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2) 단원의 목표

- ① 국가간 경제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세계화의 진행상황, 즉 시장개방 정도를 파악한다.
- ② 세계화 시대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한다.
- ③ 지역화의 구체적 형태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와 의의를 이해한다.
- ④ 국산품과 외제품을 구별하여 구매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 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 ⑥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노동자와 우리나라에 진입한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 ⑦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들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국과 빈국 사이의 소득격차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노력을 파악한다.

(3) 단원의 내용요소와 설명 범위

- ① 국가간 경제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세계화의 진행상황, 즉 시장개방 정도를 파악한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가 사이에 경제통합 형태로 진행되는데, 경제통합은 일반적으로 상품시장, 자본시장, 그리고 노동시장 통합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경제통합 추이를 상품과 서비스 무역규모의 추이, 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규모의 추이, 해외진출 우리나라 노동자와 국내진출 외국인 노동자 규모 추이 등을 통해 파악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세계화 정도를 통계적으로 파악한다.

- ② 세계화 시대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

자유무역과 관세 등 보호무역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와 소비자 및 생산자 등 각기 다른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득과 손실),

그리고 손해 보는 집단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왜 자유무역이 세계 각국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앞으로 중요성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 대중문화(한류열풍 포함), 의료, 교육 등 서비스무역의 규모와 그 경제적 효과를 파악한다.

다만, 국제경제이론에 대한 제한적 이론배경을 가진 고등학교 1학년생들에게는 자유무역에 관한 논의의 대상을 상품시장으로 국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③ 지역화의 구체적 형태인 자유무역협정의 의미와 의의를 이해한다.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제고시키려는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파악한다.

전 세계의 자유무역 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지역적으로 자유무역을 제고시키려는 지역화(regionalization)의 구체적 형태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FTA 체결현황을 파악한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FTA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주체별 이득과 손실을 파악한다. 또한 손실을 입는 주체(집단)를 돕는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④ 국산품과 외제품을 구별하여 구매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한 국가가 모든 원자재와 부품을 자급자족해서 생산하는 상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법률적으로 국산품인지 외제품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 국내 부가가치 기준(local content) 등 다양한 기준이 있으나, 소비자들이 국산품과 외국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움을 이해한다.

구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도 국산품과 외제품을 차별적으로 소비할 때 예상되는 장단기 효과를 탐색한다. 또한 국내 기업이 국산과 외국 원자재를 차별적으로 사용할 때 예상되는 장단기 효과도 알아본다.

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자본이 국제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직접 투자를 통해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고장(또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황이나 사례를 파악한다. 또한 우리 고장(또는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의 현황이나 사례를 파악한다.

기업의 국적은 기업주(대주주)의 국적, 기업소재지 국적, 기업소속 대다수 노동자들의 국적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 그러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 고장(또는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의 국적을 파악한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이해한다. 해외 진출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의 과실송금에 대한 합리적 시각을 탐색한다.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의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 사례를 파악한다.

⑥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노동자와 우리나라에 진입한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국가 경계를 넘어 이동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고장(또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사례나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우리 고장(또는 우리나라)에 진입한 선진국 및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례 또는 현황을 파악한다.

해외 진출 우리나라 노동자들과 우리나라에 진입한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지 파악한다. 해외 진출 우리 노동자들과 외국 노동자들이 임금 등을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에 대한 합리적 시각을 탐색한다.

⑦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들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국과 빈국 사이의 소득 격차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노력을 파악한다.

세계화와 지역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국과 빈국 사이의 소득 격차 현상을 파악한다. 아울러,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이 실행하는 해외원조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한다. 각국의 해외원조 원칙이나 기준들도 파악한다. 또한 KOICA와 같은 대외원조 기구의 기능을 알아본다.

제 3편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 「경제」 교과서 -

제1장 연구의 기본방향

제2장 교육과정

제1장 연구의 기본방향

본 보고서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교육과정 설계안을 담고 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고교 1학년(10학년)까지는 공통 사회과목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교 2학년(11학년)과 3학년(12학년)에서는 심화 선택과목으로서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중 심화 선택과정에 해당하는 「경제」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연구,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7차 교육과정의 「경제」 교과목 내용이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경제교육을 충실하게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각계각층의 지적이 있었으며, 마침 2006년은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서 기존의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설계안은 「경제」 교육과정의 개정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였다. 본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까지 아직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고교 선택과정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개정시안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일단은 제 7차 교육과정의 형식과 내용을 기본 틀로 하되 비판적인 검토를 통하여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 축소하고, 미흡하거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은 확대, 추가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설계안의 특징과, 연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던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설계안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대주제와 소주제, 내용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적 상세한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고교 선택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시안은 아직 없다. 하지만, 2006년 초에 개최된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공청회’의 토론 자료에 의하면 공통과정 사회과목에 대한 개정안의 특징은 교육과정의

‘대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선택과정 과목들에도 일정부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의 대강화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저자들에게 자유롭게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하지만, 필수적인 교육요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공유를 하지 못한 채 대강화가 이루어질 경우 자칫 교육내용의 왜곡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집필, 수정 및 검정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설계안에서는 가능한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대강화를 굳이 따르지 않았다.

둘째, 본 설계안은 6개 대주제, 32개 소주제로 구성되었으며 32개 소주제는 각각 1주 내외의 학습기간에 이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처럼 소주제를 1주간 학습 분량에 맞춘 이유는, 각 주제별 내용의 수준과 분량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교과서 집필자의 입장에서도 수준을 맞추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같은 ‘외부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고교 수업의 1주 수업 분량에 맞추어 집필 수준을 결정한다면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 과목의 내용을 균형적으로 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예컨대 본 설계안에서는 소주제 기준으로 볼 때 기초 3주, 미시 15주, 거시 및 국제 경제 14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셋째,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 제7차 교육과정이 경제교육에 있어 경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가치’와 ‘윤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설계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급적 배제하였다. 이는 경제교육의 목표가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 후에 독립적인 주체로서 경제 활동을 펼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가치’와 ‘윤리’ 교육은 윤리교육의 일부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경제교육에 포함될 경우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습득하고 경제 현상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론적인 부분들은 줄이면서도 이로 인해 모호함이 오히려 커지고 꼭 필요한 학습내용까지 제외되는 부작용은 피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경제학의 주요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비교적 골고루 포함시키되, 이들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깊게 접근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의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직접 분석함으로써 체득하는 학습방법을 염두에 두고 교과과정을 구성하였다. 특히, 금융시장, 시장구조, 사회안전망, 시장 실패, 재정·통화정책, 국제무역이론 및 국가간 경제 협력 등의 내용은 기존 교과과정에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이지만 실생활의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추가하였다. 다만, 늘어난 교육내용으로 인한 부담은 기존 과정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설계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연구진들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은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여러 관계자들, 한국경제학회 및 한국경제교육학회 소속의 많은 학자들은 물론, 직접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많은 논평을 해 준 초·중·고 교사들로부터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수시로 연구에 대한 자극과 생산적 논평을 아끼지 않은 KDI 경제정보센터 여러분들의 도움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 설계안 역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을 것임은 분명하며, 충분히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편은 경제교육 전반의 개선과 수반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본 설계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논평자들은, 새로운 설계안이 비록 진일보한 것이라 하더라도 척박한 고등학교 경제교육 여건 때문에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걱정하기도 하였다.

아무쪼록 본 설계안이 향후 많은 교육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추가적 노력과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2장 교육과정

1. 교육의 목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현대 한국사회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고교 경제교육은 졸업 이후 독립적 주체로서 경제 활동을 펼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실 경제의 각종 제도와 원리의 기본 골격을 이해시키는 것을 과정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기축으로 하여 움직인다. 세계경제도 시장경제의 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 개인이든 나라든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번영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쇠락할 것이다. 학교 교육은 세계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번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시장경제가 완벽한 제도가 아닌 만큼 효능과 폐단을 공유하므로 효능과 폐단 모두를 교육 내용에 담아야 한다. 그러나 기본 시각은 졸업 후 생활하는 데 유익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제대로 터득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이 현실 세계경제 질서를 충분히 이해시키기 이전에 비판적 안목부터 배양한다면 배워야 할 대상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하기 쉽다. 이러한 교육은 세계적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과 국가의 이익을 도모할 줄 아는 경제 일꾼을 육성하기 어렵다. 시장경제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비판은 대학수준의 교육으로 미루고 고교과정에서는 시장경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가르친다.

시장의 역할은 단순히 교환을 매개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 각자 자기가 잘 하는 일에만 종사하여 돈을 벌고, 이 돈으로 스스로 만들 때보다 더 많은 물자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즉, 사람마다 특정 업무에 전문화하고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여 소비하는 사회적 분업이 가능한 것이다. 잘 발달한 시장은 이처럼 분업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더욱 높인다.

시장교환이 사회적 분업을 선도하고 조정하려면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교환활동을 한껏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완전무결한 것이 아닌 만큼 결함이 나타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를 넘어선 정부 개입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개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시장을 폐기하고 그 대신 정부 결정으로 경제 생활을 이끄는 경우보다 반대로 시장이 더 잘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은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효능과 폐단 가운데 어느 것을 부풀리고 축소하거나 또는 달리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II. 단원별 내용체계

대주제	소주제	내용요소
경제 문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문제와 기회비용 ◦분업, 특화와 조정 ◦시장과 경제 문제 해결 (경제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문제의 중요성 - 희소성의 의미, 선택과 기회비용 - 분업 및 특화의 이익과 자원배분 문제 - 시장을 통한 경제 문제 해결 - 시장과 다른 경제 체제의 비교
시장과 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 공급, 가격 ◦시장 균형과 균형의 변화 ◦시장 균형과 효율성 ◦시장의 구조와 경쟁 ◦우리 주변의 시장들 ◦시장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공급, 가격,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 균형과 균형의 변동 - 균형과 효율성 - 시장의 구조(경쟁과 독과점) - 노동시장과 다양한 형태의 금융시장 - 시장의 발전과 새로 등장한 시장들

대주제	소주제	내용요소
시장 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법치 확립 ◦불공정 경쟁 행위의 근절과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과 금융규제 ◦노동시장과 노동3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의 역할과 이윤추구 보호의 필요성 - 정경유착, 탈세, 불공정 경쟁 행위의 방지 - 무상보증, 제조물책임법, 품질인증제도 - 금융시장의 기능과 금융규제의 필요성 - 노동3권의 배경과 시장 경쟁과의 조화
시장의 한계와 정부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성과 자원배분 왜곡의 시정 ◦공공재와 무임승차의 방지 ◦공기업과 경제적 규제 ◦정부의 실패 ◦사회안전망, 정부의 세입과 재정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의 괴리와 대처 - 공공재, 자연독점 등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성, 방법 및 한계 - 공기업의 특징, 필요성 및 문제점 -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제도 - 정부 세입세출의 구성 및 내용
국민 경제의 활동과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경제의 소득과 지출 ◦국가 경제의 주요 경제 지표 ◦국가 간 장기적 경제 성장의 비교 ◦경제 성장의 주요 결정요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정책의 역할 ◦단기적 경기 변동의 특성과 원인 ◦재정수지와 통화제도 ◦안정화정책 :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경제의 소득과 지출의 순환 - 국내총생산(GDP)과 거시경제지표 - 장기적 경제 성장의 특성 및 국가 간 경제 성장 비교 - 경제 성장의 주요 결정요인 -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특징 -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제도 및 정책의 역할 - 단기적 경기 변동의 주요 특성과 원인 - 재정수지의 변동, 재정건전성, 통화제도와 중앙은행 - 경기 안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의 역할

대주제	소주제	내용요소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거래와 상호의존성 ◦무역자유화 추세와 한국 경제 ◦환율과 외환시장 ◦국제수지와 자본 이동 ◦세계 속의 한국 경제 I ◦세계 속의 한국 경제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 거래와 상호의존성의 중요성 - 보호무역의 논리, 방법과 문제점 - 자유무역의 추세와 한국 경제의 비교우위 - 환율과 외환시장 이해의 필요성 - 세계화와 국가간 자본 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 국제기구, 다자간 협상, 남북 교류 및 지역 협력 등

※ 위의 32개 소주제는 각각 약 1주의 수업분량에 해당하도록 설정되었음.

1. 경제 문제의 이해

(1) 단원의 취지

경제 문제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경제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학습한다.

경제 문제의 본질이 희소성과 이에 따른 기회비용하의 선택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분업, 특화 및 효율적 자원배분이 필수적임을 살펴본다. 아울러, '시장'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임을 이해한다.

(2) 단원의 목표

- ① 우리 생활에서 경제 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기회비용을 감안한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 문제의 본질임을 이해한다.
- ② 분업과 특화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에는 조정기능이 필요함을 배운다.
- ③ 이기심에 기초한 상호협력체계라는 시장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시장이 다른 경제 체제에 비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학습한다.

(3) 단원의 내용요소와 교수방법

(가) 경제 생활과 합리적 선택

-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경제 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식한다.
- 경제에 대해 배워야 하는 이유를 개인과 사회, 국가 및 세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 ※ 이 부분을 학습하는 데는 30분-1시간 정도의 수업시간이면 충분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의 작동원리를 배우는 것이 돈을 버는 것과 같은 매우 개인적인 동기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FTA 체결과 같이 국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하는 지식들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토론 혹은 문답을 통해 각자가 왜 경제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교수방법이 될 수 있다.
- ‘자원의 희소성’ 문제가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임을 살펴본다. 특히, 경제적 자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희소성은 단순히 절대적인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한다.

○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기회비용을 감안한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 문제의 핵심임을 이해한다.

※ 경제문제 해결에 있어 기회비용의 문제가 간과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충분히 설명한다. 기존 교과과정에서는 기회비용의 고려를 마치 학습을 통해 터득해야 하는 행동양식인 것처럼 간주하고 교육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 행동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러한 원칙은 모든 경제 문제에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수업을 빼먹고 놀러가서 벌을 받게 된 학생이 이러한 결과를 이미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러가기를 선택했다면 이미 그 학생은 수업에 빠질 경우의 기회비용과 놀러갔을 때의 즐거움을 비교하여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적 선택에서 기회비용은 이미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FTA 체결 여부를 선택하거나 천성산 터널을 뚫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흔히 이러한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한 쪽의 이익이나 손해만 일방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공동체의 편익과 기회비용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나) 분업, 특화와 조정

○ 분업(division of labor)과 특화(specialization)를 통해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 이 부분은 산업화의 역사와 실제 사례 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담 스미스의 바늘 공장의 사례 역시 여전히 유효한 예가 될 수 있다.

○ 분업과 특화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생산하고, 생산물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조정(coordination)’의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 기업과 같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분업의 경우 조정의 역할은 주로 경영진이 수행하지만 특화, 즉 사회적 분업의 경우에는 누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응답을 이끌어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경제 문제의 해결과 시장

- 시장에서는 남이 사주는 물건을 내가 만들고, 내가 쓸 물건은 남이 만든 것을 사온다. 시장을 통한 교환체제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분업과 특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 사람들은 더 많이 원하는 물건에 대해 비싼 값을 낼 용의가 있고, 남이 비싸게 사주는 물건을 생산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누린다는 점을 이해한다. 즉, 시장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하는 생산 활동을 하도록 유도되며, 따라서 시장은 이기심에 기초한 상호협력 체제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 시장이 봉건제나 공산주의와 같은 다른 경제 체제에 비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구성원들의 유인(incentives)을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 이 부분에서는 경제 체제의 문제를 일부 다루게 된다. 하지만, 여러 체제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시장이 경제 체제로서 기능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봉건제나 사회주의와 같은 다른 경제 체제들이 시장과는 다른 분업 및 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후에 간단히 비교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

(4) 7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본 단원은 7차 교육과정의 제1단원 “경제 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 해결”과 대응된다.

먼저 7차 과정에서는 ‘경제’와 정치, 법 등 다른 영역과의 관계설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여기에서는 경제 활동의 광범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학생 스스로가 정립하는 것을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경제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는 사회 현상의 이해, 개인과 국가의 발전 등과 같은 이상적 목표뿐 아니라 돈을 더 잘 벌거나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는 등 매우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희소성과 기회비용의 개념은 7차 과정의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 단원에서 다뤄진 바 있다. 하지만, 7차 과정은 기회비용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의 습득’이라는 관점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 학습의 기본 전제가 되는 ‘합리적 인간’의 개념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도 기회비용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즉 ‘집단 합리성’의 부재에서 많이 나타난다. 또한 경제 학습에 있어 ‘자원’, ‘희소성’, ‘기회비용’ 등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본 절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어 다루도록 한다.

7차 과정에서 ‘분업’의 문제는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업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고안해낸 최선의 방책인 동시에 ‘어떻게’ 분업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아울러, 분업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생산물을 어디로 배분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조정’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학습은 다음 절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시장의 의미를 배우는 사전단계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7차 과정에서 경제 체제의 문제는 독립적인 하나의 절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이 시장경제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경제 체제들을 평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시장

경제 작동원리의 학습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I장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시장’은 자생적인 교환 시스템으로서 인류 공동체의 역사에서 오래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분업과 조정의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임을 먼저 설명한다. 그런 후에 다른 경제 체제들에 대해 간단히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시장과 경제 활동

(1) 단원의 취지

경제 활동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의 자원 배분기능에 있어 가격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이해한다. 시장을 ‘수요-공급-가격-균형’이라는 핵심적인 요소로 요약하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선 인식한 다음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 공급, 균형 가격 및 수량이 변하게 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주변에서 직접 접하거나 들어 본 다양한 시장들에 대해 알아보며 중요한 시장의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2) 단원의 목표

- ①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과 가격의 중요성과 균형을 이해한다.
- ② 가격 이외의 시장 여건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하며 이에 따라 균형이 변함을 학습한다.
- ③ 시장에서 균형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 ④ 완전경쟁 이외에도 경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장들도 존재함을 이해한다.
- ⑤ 우리 주변의 많은 시장들을 찾아보고 이들 중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의미와 작동원리를 이해한다.
- ⑥ 새로이 생겨나는 시장의 종류와 작동 방식에 대해 조사, 탐구한다.

(3) 단원의 내용요소와 교수방법

(가) 수요, 공급, 가격

- 시장의 참여자를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상충되는 이해가 시장을 통해 조정됨을 이해한다.
-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이 구체적으로 가격이라는 신호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 균형 가격의 개념을 이해한다.
- ※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한 분석의 기초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리고 균형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단순히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이 균형점이라는 식의 기계적인 암기를 지양하고, 시장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작용하는 곳으로 상충되는 이해가 조정되는 곳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수요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특정 재화를 예로 들어 학급의 수요곡선을 도출하는 방식도 유익할 것이다.

(나) 시장 균형과 균형의 변화

-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와 가격 이외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 차이를 이해한다. 가격 이외에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해 본다.
-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차이를 이해하고 가격 이외에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해 본다.
-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균형 가격과 수량이 변할 수 있음을 알아보고 예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수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 ※ 학생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가격 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제시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가격 이외에도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균형은 변한다는 사실은 가능한 한 많은 예를 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테면 컴퓨터와 같은 재화는 기술의 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어떤 변화를 보였으며,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균형 가격과 수량이 어떤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풍작과 흉작, 광우병과 돼지고기 등 친숙한 예를 많이 동원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다) 시장 균형과 효율성

- 시장은 교환(trade)의 이익이 실현되는 곳이며 교환의 이익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모두 구현됨을 이해하며, 또한 교환이 가능한 시장의 존재로 인해 특화가 가능함을 이해한다.
- 수요의 의미(willingness to pay)와 공급의 의미(cost)를 새롭게 접근하고 시장의 균형이 사회적 효율을 달성함을 이해한다.

※ 첫 장에서 배운 바 있는 교환의 이익이 시장에서 구현되는 원리를 구체적인 시장 균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가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반영한다는 것과 공급은 비용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친숙하게 보거나 가지고 싶어 하는 재화(예를 들면, 인기 연예인 사진)의 예를 든다면 수요가 지불의사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이 비용을 반영한다는 사실도 예를 통해 설명한다면 고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불의사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면서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음을, 즉 교환이 어느 한 당사자에게라도 이익이 없다면 교환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균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와 같은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환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시장 균형이 사회적 효율을 달성

함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시장 균형과 균형이 아닌 곳을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라) 시장의 구조와 경쟁

-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경쟁의 수준에 따라 시장의 형태가 완전경쟁과 독점 및 과점 시장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 완전경쟁 시장과는 달리 독과점 시장에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한다.

※ 시장 구조와 경쟁을 1주일 2시간 분량으로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 경제원론 교과서와 같이 ‘완전경쟁-독점-과점-독점적 경쟁’ 등 모든 형태의 시장을 소개하고 균형의 특징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시장의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판매자 수와 제품의 차별화 정도가 있다는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주를 잘 설명한 다음에는 주변에서 경쟁적인 시장과 독과점 형태의 시장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거나 재화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시장의 경쟁 정도를 생각하고 발표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예 : 농산물, 가전제품, CD, 미장원 등).

(마) 우리 주변의 시장들

- 재화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중요한 시장의 예를 통해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예를 통해 이자율과 임금도 가격의 한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 유희자금을 모아 생산현장의 투자자금으로 제공하는 금융시장의 기능과 중요성을 이해한 후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의 여러 예들을 살펴본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의 주요 금융시장들을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개한다.

※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여겨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제반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이며 핵심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많은 시장의 예를 교과서에서 소개하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많이 접한 단어들이 임금, 실업, 저축, 투자, 주식, 채권 등이 기본적으로는 시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임금, 이자율 등이 가격이며 수요와 공급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이 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하는 곳으로, 가격은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초과 공급을 실업이라고 한다는 사실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금융시장은 저축과 투자가 상호작용하는 곳이며 저축은 유희자금의 공급이며 투자는 자금의 수요라는 점, 그리고 이자율이 가격이 되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므로 교과서에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식의 개념을 설명하고 개별종목의 주가 변동 등을 경제신문 주식 난에서 인용하여 해당 종목 주가의 상승은 수요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하락은 수요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고, 이런 수요의 증감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될 것이다.

(바) 시장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들

-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금융과 보험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며, 이들이 오늘날 시장경제의 작동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한다. 최근 우리 주변에 등장하게 된 금융상품들을 찾아본다.
- 사회 현상이 점차 복잡성을 띠에 따라 다양한 시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실례를 찾아본다(인터넷 시장의 성장, 증권거래소, 주파수 경매, 오염배출권 시장 등의 발생과 소개).

○ 종합적으로, 많은 사회 현상이 시장이라는 분석 틀로 분석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 “시장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 단원에서는 교과서에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여러 사회 현상을 ‘수요-공급-시장’ 이라는 분석 틀을 통해 설명해 보며, 새롭게 등장한 시장의 예와 그 작동 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테면 금융시장은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므로 어떤 상품까지 교과서에서 언급해야 하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일일이 언급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저축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금융상품들을 찾아보고 그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시장의 경우도 학생이 직접 찾아보고 발표하는 수업 방식을 뒷받침하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역사나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미국과 영국의 주파수 경매 관련 자료 등은 인터넷 자료를 통해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탐색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과 그 역할 및 결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4) 7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7차 교육과정에서 “시장과 경제 활동” 영역은 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곧바로 시장 실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시장의 기능과 시장의 실패에 대한 논의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1) 현실적으로 경제 생활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이 학생들의 구체적인 활동 무대라는 인식을 형성하지 못한 채, 시장의 기능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 수준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를 추상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2) 시장 실패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장과 경제 활동” 영역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시장의 예를 통해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의 초점을 맞춘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에 다양한 시장이 있으며 시장이 발전하고 있고, 학생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시장이라는 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한편,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관심과 최근의 경제현실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시장에 관한 내용 및 금융상품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우리 주변의 여러 시장을 소개하는 중에 특히, 금융시장을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다른 영역에서 나오는 금융시장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시장과 경제 활동” 영역에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장 균형의 효율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세히 다룸.
- 완전경쟁, 독과점 시장 등 시장 구조에 대한 내용을 추가
- 금융시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라 도입돼 온 금융상품들을 소개하거나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주변에 있는 시장의 예를 가능한 한 많이 다룸으로써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유도

아울러, 이 영역에서는 시장의 역기능을 지나치게 확대, 강조하는 서술 방식을 지양하면서 시장 기능의 한계와 보완대책 부분은 자연스럽게 독립된 영역에서 다루도록 한다.

3. 시장 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1) 단원의 취지

시장 경쟁은 남의 이익을 취하여 나의 것으로 만드는 제로섬 방식의 수탈적 경쟁이 아니라 희소한 자원을 사람들이 원하는 용도에 더욱더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쟁이다. 시장 경쟁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교환 대상인 상품에 대한 사적소유권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시장경제는 특정한 몇 가지 경우에 이러한 이상적 경쟁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며 단순한 사적소유권 보호를 넘어서는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시장 스스로, 다른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규칙을 만들어 감으로써 시장을 개선 강화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주역은 기업이며 정부는 보조역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역할을 바로 이해해야만 시장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시장 강화적 기능도 수행하지만 동시에 재량적 간섭도 한다. 본 단원에서는 정부의 시장 강화적 기능과 기업의 본질을 살피고, 정부의 재량적 간섭과 그 한계를 교육하도록 한다.

(2) 단원의 목표

- 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활동이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임을 이해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는 엄단하되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윤은 철저히 보호하는 법치체제가 중요함을 이해한다.
- ② 기업이 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소비자들을 속이면서까지 부당한 이윤을 노리는 행동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거래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 ③ 금융시장의 기본구조와 주식, 채권과 같은 기본적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정부가 정보 악용의 농간에 취약한 금융시장을 특별히 감독하는 이유와 금융규제의 기본내용을 이해한다.
- ④ 노동시장의 특징과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합법적 파업에 대하여 인정되는 노조의 면책 특권이 왜 불법파업에는 적용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이해한다.

(3) 단원의 내용요소와 교수방법

(가)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법치 확립

- 시장경제에서 기업가가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기업가가 어떻게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알아본다.
 - ※ 시장경제에서는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는 일은 기업가의 소관이다. 기업가의 결정이 제대로 되면 그 기업은 큰 이윤을 벌고 잘 돌아가지만 기업가가 팔리지 않는 엉뚱한 물건만 만들면 그 기업의 근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기업은 망한다. 기업가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
- 기업가의 혁신은 성공할 경우 큰 이윤을 얻지만 실패할 경우 파산에 이르기도 한다는 점, 성공하는 기업은 근로자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파산한 기업은 대량해고 사태를 빚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 기업가의 이윤 추구는 시장경제의 추진 원동력이므로 사회적으로 장려되고 법치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성공한 기업의 이윤을 보호하지 못하면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결국 투자 감소와 경제의 쇠락으로 이어짐을 인식한다.
 - ※ 사업은 위험한 투자인 만큼 10개를 시작하면 1개 정도 성공한다. 1억원 투자사업 10개 가운데 1개만 성공하였다고 하자. 이 성공한 1개의 투자 수익이 10억원이라고 하자. 성공기업에서 보면 1억원 들여 10억원 벌었으니 대성공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1억원 들여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파산한 9명의 기업가는 잊고 성공한 1명의 기업가가 폭리를 누린다고 생각한다. 2억원 정도 벌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10의 성공확률로 2억원을 벌기 위해 9/10의 파산 확률을 무릅쓸 기업가는 없다.
- 기업의 정경유착이나 탈세와 같은 불법행위를 시장경제의 속성과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한다. 법치의 확립을 통해 정경유착이 없고 탈

세가 없는 시장경제가 가능하며, 이것이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나) 불공정 경쟁 행위의 근절과 소비자 보호

-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인수/합병, 판매자들 간의 담합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임을 인식한다.
- 정당한 경쟁과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불공정 경쟁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을 교육한다.
- 상품들 중에는 아파트나 고급 내구재처럼 구입 당시 상품의 성능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제조업자들에게 속을 것을 꺼려서 상품 구입을 주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스스로를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무상보수·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제조물책임법 등의 제도를 시행하여 제조업체들의 사기행위를 차단한다.
- 의약품처럼 소비자가 끝까지 그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사하고 그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킴을 이해시킨다.

(다) 금융시장과 금융규제

- 유희자금을 모아 생산현장의 투자자금으로 제공하는 금융시장의 기능과 중요성, 현실경제의 대표적인 금융방식에 대해서 개관한다. 주식과 채권 등 기본 금융상품의 종류와 금융기관의 유형을 알아본다.
- ※ 앞 단원 “시장과 경제 활동”에서 여러 시장들을 소개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본 바 있으나, 본 단원에서는 금융규제의 필요성과 연결지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앞 단원에서 금융시장도 하나의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 여기에서는 금융시장의 특수한 역할에 중점을 두어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다.

- 투자한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소득이 그때그때 달리 결정되는 금융상품의 본질은 불확실성과 위험임을 인식한다. 금융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사기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쉽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는 곧 금융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투자부진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금융거래 법규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교육한다.

(라) 노동시장과 노동3권 보장

-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업을 좌우하므로 이를 미끼로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러도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는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단결권, 노조를 통하여 교섭을 벌일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파업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게 되었음을 이해한다.
- 각종 노동관계법은 노동력이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 없이 노동력을 유연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노동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든다. 노동3권은 일반적인 시장경쟁 질서와 사유재산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권이기 때문에 행사의 요건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식한다.
- 현재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이해한다.

(4) 7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이 단원은 7차 교육과정의 각 단원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내용들과 새로운 내용을 합하여 신설한 단원이다.

7차 과정의 서술형식은 시장 기능과 시장 실패를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시장의 실패와 불법·부당 행위의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는 시장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경제 곳곳에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다.

본 단원은 현실경제는 어디까지나 시장 경쟁을 통하여 작동하며, 정부 개입은 많은 경우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7차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기업가정신, 금융시장, 노동3권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4. 시장의 한계와 정부 개입

(1) 단원의 취지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성과 공공재, 자연독점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시장경제는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한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산과 자원배분 결정에 대해 좀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그 자체로 더 큰 실패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장과 달리 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감시와 정치적 참여가 필요하다.

(2) 단원의 목표

- ① 각종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등 시장 실패는 시장경제의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교육한다.
- ② 공공재의 개념을 이해하고 무임승차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과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③ 자연독점 산업을 시장 경쟁에 맡길 수 없는 까닭을 이해하고 정부규제와 공기업이 등장한 배경을 이해한다.
- ④ 정부의 재량적 개입이 불러올 수 있는 폐해를 탐구하고 정부 실패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 ⑤ 시장경제가 돌보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이해한다. 그리고 나라살림의 기본인 세입과 세출의 큰 항목별 구성을 알아둔다.

(3) 단원의 내용요소와 교수방법

(가) 외부성과 자원배분 왜곡의 시정

- 현실에서는 사적비용 및 편익이 사회적 비용 및 편익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이해한다. 흔히 관찰되는 환경 문제나 재산권 분쟁 등은 이러한 외부성의 대표적 사례임을 인식한다.
- 외부성이 있는 곳에서는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 경우 정부의 개입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한다. 세금과 벌과금, 오염배출권 거래 등 정부개입의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나) 공공재와 무임승차의 방지

- 공공재와 사적재화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공원, 도로, 군대, 국방, 연구개발 등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는 재화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토론한다.

- 소비하는 사람이 그 값을 모두 지불하는 사적재화와 달리 공공재는 서로 적게 부담하고 남들에게 기대려고 하는 무임승차 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시장을 통한 공공재 공급에 큰 장애가 됨을 이해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을 인식한다.

(다) 공기업과 경제적 규제

- 전력, 가스, 철도 등 자연독점 산업의 경우 단일 기업체제가 경쟁체제보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시장 경쟁을 허용할 경우 여러 기업이 진입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이러한 경우 정부는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특정사업자를 선발하여 독점사업권을 부여하고, 그 대신 독점사업자가 생산하는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감독하는 규제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아본다.
- 정부는 자연독점 산업을 민간기업의 규제독점체제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공기업을 설립하여 직접 경영하기도 한다. 공기업 운영의 장단점과 민영화 및 규제완화 논의의 배경을 이해한다.
 - ※ 자연독점 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공기업들이 어떠한 목적에서 설립되었으며, 이들이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사하고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라) 정부의 실패

-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인식한다.
- 외부성과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으며, 시장을 통한 자율규제를 받지 않는 정부가 직접 생산에 개입할 경우 자칫 방만한 경영으

로 인한 비효율이 더 커질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

- 현실의 정부는 자연독점 산업이 아닌 경우에도 규제의 명목으로 대중적 재량 개입을 빈번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량 개입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하여 시장 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부 실패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마)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세입과 재정지출

- 우리나라 국가예산 규모와 조세부담률의 크기, 그리고 국가 부채 등의 현황과 시계열적 추세를 교육한다.
- 조세수입이 어떤 세급에 얼마만큼 의존하는지, 그리고 재정지출은 어떤 용도에 얼마만큼 돈을 사용하는지 현황과 추세를 교육한다. 그리고 재정적자의 의미를 교육한다.
- 경쟁의 낙오자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필요성을 교육한다. 각종 사회보험 등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현황을 보여준다.
- 과도한 사회보장이 불러오는 복지병의 문제와 적정수준의 사회보장이 어떤 것일지에 대하여 토론한다.

(4) 7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이 단원은 7차 과정에서 “시장과 경제 활동”의 일부분으로 제시된 시장 실패 관련내용과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단원 중 정부관련 부분을 통합하여 신설한 단원이다.

7차 과정의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중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경영에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다른 부분에서 일부만 다루었다. 그 이유는 소비자 선택의 합리성은 모든 소비자들이 희소한 자원을 활용하는 원리인데 7차는 마치 학습해야 할 규범인 듯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원이 희소하면 각자 근검하여 덜 쓰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금욕적 시각을 전수하고 있다. 본 안은 소비자와 기업의 윤리적 행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재량적 정부 개입은 정부 실패를 불러올 수 있음을 교육내용에 강조하였다.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가능한 부작용을 함께 탐구하도록 하였다.

5. 국가 경제의 활동과 변동

(1) 단원의 취지

국가경제 전체의 총소득과 총지출의 흐름을 파악하고 총소득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 그리고 물가지수·통화량·금리·고용 및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의 주요 특성과 이들 지표 간의 관계를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거시경제지표들의 두 가지 대표적 특성, 즉 장기적 경제 성장과 단기적 경기 변동의 주요 특성과 원인을 살펴보고,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제도 및 정책의 역할과 물가 안정 및 고용 증대를 위한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역할을 알아본다.

(2) 단원의 목표

- ① 국가 경제의 총소득과 총지출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과 주요 경제지표들의 단기적·장기적 변화 추이 및 지표들 간의 관계를 실제 데이터에 기초하여 알아본다.
- ② 국가간 경제 성장의 비교와 경제 성장의 주요 결정요인,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 제도 및 정책의 역할을 이해한다.
- ③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물가 및 고용 등 경제지표들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기 변동의 주요 특성과 그 원인을 알아본다.
- ④ 우리나라의 재정수지와 통화량의 규모를 알아보고 고용감소와 물가상승에 대응하는 안정화정책으로서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의 역할을 이해한다.

(3) 단원의 내용요소와 교수방법

(가) 국가 경제의 소득과 지출

-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대표적 경제 주체, 즉 가계와 기업의 총소득·총생산 및 총지출의 관계를 국가 경제의 순환모형도를 통해서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경제가 개방경제임을 고려하여 국가경제 간 총소득·총생산 및 총지출의 흐름도 살펴본다.
- 국가 경제의 총생산 및 총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내총생산(GDP)의 정의, 지출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을 간단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아울러, 총소득의 다른 지표인 국민총소득(GNI)을 소개한다.

(나) 국가 경제의 주요 경제지표

- 국내총생산(GDP) 혹은 국민총소득(GNI) 이외에 국가 경제의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 통화량과 금리, 고용 및 실업률, 수출과 수입 등을 소개한다.
- 국가 경제의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은 매월, 매분기 또는 매년 변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를 수집하여 그림을 그려보고 장기적 경제 성장과 단기적 경기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경제지표들의 변화 추이 및 지표들 간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다) 국가 간 장기적 경제 성장의 비교

-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국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총인구를 수집하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해본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1인당 실질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평균적인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한다.

- 국가 경제의 장기적 경제성장률을 지난 100여 년간 1인당 실질소득의 연평균 증가율로 정의하고, 국가간 장기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표와 차트로 비교·정리한다.

(라) 경제 성장의 주요 결정요인

- 국가 경제의 총생산과 이에 투입된 생산요소(노동, 물적자본, 인적자본, 자연자원 등) 및 기술수준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기적 경제 성장의 주요 결정요인들을 살펴본다.
- 국가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생산투입요소(노동·자본) 및 기술수준의 상대적 기여도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국가간 경제 성장의 차이를 가져온 주요 요인들을 비교·분석한다.

(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정책의 역할

-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1960~1990년대 중반에 걸쳐 이룬 고속성장의 특징과 함께 1997년 말 경제위기의 원인과 실상을 살펴본다.
-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국가들의 경제 성장 및 경제 위기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과 경제 제도 및 정책의 역할을 논의한다.

(바) 단기적 경기 변동의 특성과 원인

- 대부분의 국가가 장기적으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양(+)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온 반면, 단기적으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등 경제지표들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이러한 단기적 경기 변동의 주요 특성과 그 원인을 살펴본다.

(사) 재정수지와 통화제도

- 재정수지를 정부의 세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값으로 정의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흑자 또는 적자 규모와 국가채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정부 살림의 건전성(즉, 재정건전성)을 살펴본다.
- 국가 경제에서 화폐를 공급하는 중앙은행과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통화제도 하에서 통화량의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수단으로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함께 통화량의 변화가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아) 안정화정책 :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

-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감소와 경기과열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으로서 재정지출과 조세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알아본다.
- 중앙은행이 은행 간 시장(우리나라의 경우 콜시장)에서 공개시장조작에 의한 기준금리(예를 들어, 콜금리)의 조정을 통해 시장이자율,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실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화폐금융정책을 살펴본다.
- 이러한 안정화정책은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정책당국의 재량적 안정화정책보다 일정한 준칙에 의한 안정화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4) 7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우선 본 설계안에서는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실제 데이터에 나타난 주요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의 모습을 살펴보는 내용을 크게 세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 중 가)와 나)가 국가 경제의 주요 경제지표에 대

한 기초를, 다)~마)는 장기적 경제 성장을, 바)와 사)는 단기적 경기 변동과 정책을 다루고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7차 과정의 ‘국민경제의 흐름’에서 총소득의 지표로서 국내총생산(GDP)뿐만 아니라 국민총소득(GNI)을 추가하였다. 또한 GDP와 GNI 이외의 주요 경제지표를 실제 데이터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이해는 다음절에서 논의될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의 이해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부분에서는 7차 과정의 “경제 성장과 안정화정책”에서 함께 논의되었던 장기적 경제 성장과 단기적 경기 변동을 분리한 뒤, 우선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의 “국민 경제의 흐름과 경제지표”에서 배운 1인당 실질GDP의 과거 100여 년간 성장률에 기초하여 국가간 경제 성장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분에서는 7차 과정의 “경제 성장과 안정화정책”에서 단기적 경기 변동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앞의 장기적 경제 성장을 다룬 부분에서 실질GDP 등 주요 경제지표의 장기적 특성을 논의한 반면, 이 부분에서는 이들 지표의 단기적 특성인 경기 변동을 논의한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앞부분과 보완적인 관계가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략하게나마 정부(정책당국)가 정부지출, 조세 및 금리의 조절을 통해 경기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6.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1) 단원의 취지

세계화를 통한 국가간 시장 통합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역의 경제적 이득, 자유무역과 자본이동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및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가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심화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학습한다.

환율과 여러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국제수지에 관한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고 국가간 자본이동의 원인과 추세를 공부한다. 변화하는 세계시장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당면 과제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경제 환경 및 남북한 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 단원의 목표

- ① 국제 거래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자유무역의 이익을 알아본다.
- ②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추세를 이해하고 한국 경제의 비교우위 산업을 살펴본다.
- ③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무역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 ④ 국가간 자본이동의 추이를 살펴보고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 ⑤ 한국 경제의 거시적 현황과 현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들을 살펴본다(2주간).

(3) 단원의 내용요소와 교수방법

(가) 국제 거래와 상호 의존성

-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국가간 장벽이 점차 사라지고 시장이 점차 통합되어 가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추세를 세계총생산 규모에 비해 크게 증가해 온 국가간 무역 및 자본이동 규모의 추이를 통해 소개하고, 국가간 상호의존적 관계의 심화과정을 설명한다.

- 한 국가 내의 분업과 특화로부터 오는 이익이 국가간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은 국가간 분업과 특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높여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 각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할 때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더 많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게 되고 이는 각 국가의 소비자, 즉 국민들의 후생증진을 가져온다는 점을 설명한다.
- 과거 자국산업의 보호 또는 중상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관세, 비관세 장벽을 두는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이 수행된 바가 있음을 소개한다. 보호무역은 장기적으로 보호받은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낮추고 중상주의는 상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자유무역의 추세 안에서 잠재적 후생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나) 무역자유화 추세와 한국 경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간·지역간 자유무역의 추세를 세계 무역 규모의 추이, 지역간 무역규모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고 자유무역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임을 설명한다.
- 최근 아시아 국가들 간에 급증하는 무역규모를 보여 준다. 한국 경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어느 국가이고 주요 수출입 품목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한국 경제의 수출입 총량지수, 수출입 품목별 구성, 수출입 국가별 구성 등의 지표를 통해 알아본다.
-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한국 경제의 비교우위 산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세계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 환율과 외환시장

- 환율은 한 국가의 다른 국가 통화에 대한 상대가격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통화가 교환되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기본적인 수요-공급 모형을 제시한다.

- 한 국가 통화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공급 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요인들의 변화가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통화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환율의 변화가 수출, 수입,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소개한다.
- 경상수지와 외환보유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한국 경제의 상품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규모의 추이를 살펴본다. 아울러, 국제 거래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환율의 안정성이 중요함을 설명한다.

(라) 국제수지와 자본 이동

- 국제수지표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형태의 장단기 국가간 자본흐름을 설명한다. 국가간 환율의 변화와 각 국가 이자율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가간 단기 자본 이동을 설명한다.
- 세계화 시대 속에서 기업과 투자환경의 매력도에 따라 자본이 이동을 설명하고, 국가간 자본 이동의 증가 추세가 세계적인 현상임을 수치를 통해 설명한다.
-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해당 국가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여러 경제적 이익을 설명하고, 자본유치를 위한 각 국가들의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소개한다.

(마) 세계 속의 한국 경제(2주간)

-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다른 주요 국가들(선진국 및 아시아 국가)의 지표와 함께 제시하여 한국 경제가 이룬 높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여 준다. 변화하는 현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여러 주요 과제들을 살펴본다.

- 중국을 비롯하여 아세안, BRICs의 부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변모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잠재적 시장일 뿐 아니라 장래 주요 경쟁국가가 될 수 있어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이 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와 연결지어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하는 한국 경제에 주어진 과제를 설명한다.
- WTO 출범, DDA 협상, 쌍무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세계적인 추세를 설명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후생 제고적인 측면과 경쟁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등의 경제적 이익을 설명한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없는 계층 및 부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손실 때문에 계층간·부문간 마찰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점검한다. 이러한 계층을 위해서 부문간 인력이동 제고를 위한 기술 재교육 등 정부가 제시해야 할 장기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본다.
- 남북한 경제력 차이를 설명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부 및 민간 경제교류를 소개한다. 경제통합을 통한 장기 경제적 이익을 설명하고, 또 한편 북한의 불안한 정치 환경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그리고 남북한 간 현격한 경제 체제 차이 등 단기적으로 통합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한다. 중국과 같은 개방을 통한 경제 개혁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가 배울 점을 생각해 본다.
- 경제 협력과 관련된 국제경제기구들(IMF, World Bank, IBRD, ADB, OECD 등)을 소개하고, 이들을 통한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경제위기시 지원 등 국가간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OECD 가입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그 역할을 생각해 본다.

(4) 7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라는 대단원 내에 “국제 거래와 경쟁력”이라는 국제 경제에 관련된 중단원이 하나 있지만, 이 부분은 해당되는 내용에 비해서 너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이 세계화 시대 속에서 변화하는 한국 경제를 이해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본 대단원 중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다섯 개의 중단원 중 네 개의 중단원을 할애하여 보다 자세하고 세분화된 설명을 토대로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상호의존성, 보호무역의 문제점, 자유무역의 추세, 환율과 수출입 간의 관계, 국가간 자본 이동의 추세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여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라는 대단원 내 세 개의 중단원 중 한 개의 중단원을 할애하여 미래 통일 시대의 한국 경제에 관한 부분을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본 교육과정 설계안에서는 통일경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예상을 전제로 “통일시대를 위한 경제적 준비”라든지 “통일 한국의 경제 선진화 방안”을 다루기보다는 이들과 관련된 내용을 “세계 속의 한국 경제”라는 중단원 속에 하나의 소주제로 포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위해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를 배우고 통일의 장단기 경제적인 효과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고등학생으로서 다루기 힘들고 막연한 주제인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에 관한 부분도 “세계 속의 한국 경제” 부분에 하나의 소주제로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섯 개의 중단원 중 한 단원을 “세계 속의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하여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과 그 성과를 점검하고, 현재 세계화 시대에 우리 경제에 주어진 문제들을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1) 지속적인 한국경제 성장 2) 중국, 아세안, BRICs의 부상 3) WTO 출범, 쌍무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었던 “통일 시대와 우리 경제”와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에 관한 부분을 이 곳의 소주제로 포함시켰다.

제4편 교육과정 연구 추진현황

- I. 협정 체결
- II. 연구진 워크숍
- III. 중간세미나
- IV. 중간세미나 결과 연구진 워크숍
- V. 학회공동세미나

I. 협정 체결

(1) 협정서 주요 내용

- 7차 교육과정 경제영역 지침서상의 문제점들을 보완
 - － 향후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별로 다루어야 할 교과서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 총사업규모 및 기관별 분담금
- 간사기관 지정 및 역할
 - － KDI 경제정보센터는 원활한 연구가 진행되도록 교육과정 연구에 필요한 연구진의 구성과 기관별 분담금 등을 관리하는 간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2) 참여기관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KDI 경제정보센터

(3) 협정체결 : 2005년 12월 7일

II. 연구진 워크숍

(1) 연구진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7명
 - 손정식(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형준(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교수), 한진수(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윤호(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한경동(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주만수(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덕수(공주대 일반사회학과 교수)

□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 5명

-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식(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진영(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2) 워크숍 개최

□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05년 12월 22일(목), 14:00~18:00
- 개최장소 : KDI 중회의실 및 소회의실

□ 논의 내용

- 표준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방향 설정 및 연구 방법 등

(3) 워크숍 주요 토론내용

□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진행상황을 소개(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공청회, 12/16) : 박형준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논의

-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 기본과정 개정 시안
- 개정시안을 기초로 2월말 보고서를 발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
 - KDI의 연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을 고려해야 할 것

※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교육과정은 관련학회 등과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

○ 교과별 시간(시수)배분 문제가 확정되지 않음.

○ 7차 교육과정의 특징

- 7차 교육과정부터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바뀌면서 교과서

검정시 교육과정 준수가 절대적 원칙

○ 교육과정의 집필 원칙

- 교육과정 집필의 두 가지 원칙은 ‘상세화’와 ‘대강화’임.
- 상세화의 경우 교과서 집필 작업이 수월해지기는 하지만 교과서 간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한계 때문에 사회과 교육과정은 ‘대강화’ 원칙을 따름.
- 즉, 대단원만 정해 주고 중단원부터는 집필자의 자율에 맡김.

○ 교육과정 개편과정의 주요 이슈

-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었던 ‘거시’ 파트를 중학교 3학년 과정에 포함시키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통합주제로 묶어 경제 영역이 대폭 줄어든 느낌임.

□ 공통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 손정식(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 기본과정은 현실 경제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룰 필요
- 기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해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 한진수(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 초등학교 과정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가 중요하므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에서 경제 개념을 찾아야
- 이러한 경제 개념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임을 주지
- 예를 들면, 분업의 개념을 알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업으로 인한 이득을 인식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 또한 생산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은 생산성 제고와 인적자원 개발, 자본은 화폐 변천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등으로 접근해야

- 한경동(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 가르쳐야 할 내용에 있어 그간 경제학과와 경제교육학과 간에 합의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합의점 도출이 필요
 -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실험경제학에 토대를 둔 체험 중심의 교수방법이 제시될 필요
- 박형준(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교수)
 - 교육과정의 큰 흐름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기초 소양과정이고 고등학교 2·3학년은 인문 교양(학문적 소양)과정
 - 현재 과목별로 년 8단위, 6단위(학기당 4단위, 3단위. 여기서 1단위란 1주에 1시간 수업을 의미)로 배분되어 있으나, 주5일제 수업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현 8단위 과목도 6단위로 축소 조정하는 추세
 - 6단위일 경우 수업시간은 총 102시간(1년 34주×3시간)
 - 개정시안은 ‘대강화’에 따름
 - 그렇지만 KDI 연구는 좀더 자세한 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중요한 점은 시수 확보 문제이고, 8차부터는 수시 개정체제이므로 이를 잘 이용해야
- 주만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올바른 경제인식을 심어주고, 균형 잡힌 시각을 담을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제공할 필요
 - ‘경제’라는 큰 흐름을 보여 주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
 - 서로 다를 수도 있다고 인식하게 하는 교육 내용 포함
 - 예를 들면, 개개인에 따라 기회비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가르치면 됨.

- 신용·금융은 개인의 선택 문제에 가깝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공통 기본과정으로서 사회 영역이 추구하는 목표와 조화를 이룰 것인지 고민해야
- 더 이상 경제 과목이 암기 과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과학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학문으로 분류되도록 경제학계의 많은 노력 필요

□ 선택교육과정

○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농부와 기업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점’임.
- ‘금융’은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데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시켰으면 함.
-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얘기하면서 기업의 범법 행위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확실히 구별되어야 함.
- 지나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것은 반시장적임.
 - 언론 보도에서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식의 보도가 많은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임.
- 따라서 경제교육은 근본부터 짚어줘야 할 것임.

○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부 등에서 후속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제로 교과서를 바꾸는 등 시스템 전반에 영향력의 발휘가 필요
- 이번 연구에서 최소한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 첫째, 윤리·책임의식 등은 경제교육의 목표에서 삭제
 - 둘째, 고등학교 과정에 통일·체제 등 거대담론 축소
 - 셋째, 돈의 흐름 등 금융·통화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포함
- 회소성·기회비용 등의 개념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여야 함.

○ 박정수(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현안을 소재로 하여 교과과정이나 교과서에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 개방화 시대의 경제의식과는 맞지 않는 폐쇄경제의식은 바로 잡아야 함.

○ 김영식(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나열식, 백과사전식 교과서는 지양하고, 기본개념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기술하고 연습문제도 담겼으면 함.
- GDP, 국민경제 등 거시경제 개념에 대해 추상성을 갖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미시적 기초, 미시와의 연관성을 짚어주는 것이 필요
- 미국 NCEE 교육과정에도 “불확실성하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다루지 않고 있음.
 - 예를 들면, 경기 변동 등은 빠져 있음.
- 개인보다 많은 정보와 예측력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 기타 논의 내용

○ 손정식(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무엇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수에 맞추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쉬울 것임.
- 문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
 - 좋은 사례나 모델을 제시하면 집필자에게 도움이 되고, 교사용 지도서에 담는다면 우리가 의도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임.

○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한 점이 있음.
-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나 빠져야 할 부분을 짚어주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쓰면 어떨까?
- 박형준(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교수)
 - 내용체계를 하나의 표로 만들고, 이론적 배경이나 가르쳐야 할 내용, 수준, 사례 등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이후 부록형식으로 교육부에 제출하는 방식이 될 것임.
- 손정식(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결국 2월 보고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What)에 중점을 두고, 6월 보고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How)까지를 작성
- 교육과정 연구 추진일정(천규승 KDI 경제교육실장)
 -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부처 대 부처(교육부 대 재정부) 입장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특히 개인금융, 재무 등은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
 - 결국 시수 배분 결과가 중요한 이슈인데, 보고서는 2시간일 경우와 3시간일 경우로 시나리오를 만들면 어떨까?
 - 2월 말까지는 교육부에 보고서(대강의 스토리)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월 18일 이전에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시길 바람.
 - 그리고 이 중간보고서에 기반해 3월부터는 연구진 간의 보완, 내부 검토, 학회 등과의 세미나 등을 통해 6월 말 최종 보고서를 발간(교육과정 해설서 수준)하는 일정으로 추진
 - 연구 책임을 맡으실 손정식, 이승훈 교수님께서서는 공통과정과 심화과정 간 성격이나 목표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할 것임.

□ 교육단계별 연구진 구성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초등학교 부분 : 한진수(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한경동(한국의대 경제학과 교수)
- 중학교 부분 : 이윤희(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덕수(공주대 일반사회학과 교수)
- 고등학교 부분 : 박형준(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교수), 주만수(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경제)

- 거시부분 : 김영식(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국제부분 : 박정수(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미시·기초부분 :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영(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III. 중간세미나

(1)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06년 2월 21일(화), 10:00~19:00
- 개최장소 : KDI 중회의실

(2) 주요 논의내용

- 1차 설계된 내용을 토대로 교육과정 설계자와 교육전문가, 현장교사, 참여기관 등이 참여하여 의견 수렴

(3) 주요 참석자

- 연구자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7명) : 손정식(한양대), 박형준(성신여대),

한진수(경인교대), 이운호(순천대), 한경동(한국외대),
주만수(한양대), 김덕수(공주대)

-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5명) : 이승훈(서울대), 권남훈(건국대),
김영식(서울대), 김진영(건국대), 박정수(서강대)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토론자(현직교사)

- 초등부문 : 한춘희(천동초교), 김유선(매봉초교)
- 중등부문 : 신무선(가락중), 김상희(수유중)
- 고등부문 : 정창욱(단성고), 유지후(대성고)

○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토론자(현직교사)

- 권영섭(대진공고), 전대원(남한고), 이해정(경북여고)

○ 교육전문가

- 김종호(서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안병근(공주교대 사회과교
육과 교수), 김진영(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관련기관

- 박영석(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연구원), 양원택(교육인적자원부
연구사), 박재진(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차장), 진승호(재정경제
부 교육홍보팀장)

(4) 주요 토론내용

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육과정 분석의 전제조건은, 우선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기
본틀을 인정하고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이 틀을 무시하고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로 집약할 수 있음. 이번 분석에서는 기본 틀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모색하였음.

□ 초등학교 교육과정

○ 연구자 : 한진수(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 무엇보다 경제는 어렵지 않은 것임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
-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습득하도록 해야 하며, 초등학교의 입장에서 친숙한 소재를 소개하고 자신과 관련된 것부터 출발해야
- 초등 과정은 이후 경제 교육의 기초가 돼야 하며, 미시와 거시의 내용 비율은 8:2 정도가 자연스러움.

○ 연구자 : 이윤호(순천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 중학 과정은 초등과정과 고등과정의 징검다리 역할
- 이론적인 접근은 지양하고 경험을 중심으로, 탐구활동을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할 필요
- 개인의 자산관리, 신용관리 부분은 7차 과정에는 없었지만 현실적 유용성의 측면에서 내용요소에 포함.
- 기업가는 이윤을 추구하며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내용 기술이 필요

○ 토론자 : 한춘희(천동초등학교 교사)

- 초등 경제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경제교육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검토 필요
-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 오류 및 미비의 책임을 교과서 집필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경제 전공자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
- 여러 기관에서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접근할 때에는 내용 면에서 혼선이 있어 보임.
- 교과서가 서로 다르게 출판되는 현실도 교사에게는 혼선을 주는 요인임.
 - 교과서 제작과정에 현장교사를 참여시키는 등의 검정 교과서 체

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

- KDI는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초등과정에도 연구와 교사들의 경제연수가 필요

○ 토론자 : 김유선(매봉초등학교 교사)

- 미국의 경우 경제교육의 목표를,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제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적인 측면에 경제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진 듯한 인상
- 초등학생들에게 개념을 이해시킬 때 삽화나 예시, 활동중심 교육은 효과가 큼.
 -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개발하고, 블루마블 게임 등을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체험적 활동 중심의 교육이 필요
- 학습과정에서 정리단계를 거치는 것은 중요
 - 7차에서 주입식 교육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새로운 개념이나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
- 8차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노인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내용요소가 필요

□ 중학교 교육과정

○ 연구자 : 주만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고등과정에서 경제를 심화과정으로 선택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중등 경제과정이 체계적인 경제교육의 마지막 과정
 - 따라서 현실이나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경제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
- 세계화 개념을 포함시키되 고등학교 '사회'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배치할 필요
 - GDP, GNI 등의 개념을 가르침으로써 경제신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

- 경제의 순환, 경상수지, 환율,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 경기 변동 등의 내용요소를 포함하여 경제 문제의 이해를 도모

○ 토론자 : 신무선(가락중학교 교사)

- 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개념의 이해와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는 현실적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개념
 - 산술적인 금융계산 기능을 습득시키기보다는 상품의 다양성, 수익률, 위험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
- 외부효과, 기회비용, 비교우위, 외환의 수급에 따른 환율변화, 소득재분배 등은 학생의 이해도가 낮은 부분이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 필요
- 실제로 중학생들이 경제통계 자료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학생의 탐구활동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표를 만들고 빈칸을 메워나가는 방식이 유용
-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통합교과
 - 따라서 역사, 지리 교사들이 경제 분야를 지도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 이론 교육보다는 금융 교육, 투자 교육, 소비자 교육 등 실제 경제생활에 필요한 교육

○ 토론자 : 김상희(수유중학교 교사)

- 사회과는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
 - 이번 체계에는 민주적 경제 생활 부분이 빠져 있고 대신 거시경제학이 새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 경제 교육은 경제학 교육이 아님.
- 합리적 소비활동에 있어 진정한 욕구에 대한 설명이 미비
 - 욕구와 필요를 구분하고 광고 등에 의해 조장되는 욕구와 진정한 욕구를 분리하려는 자세가 부족

- 올바른 소비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새로 제시된 경제교육과정에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관한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
- 학습자들 대부분이 향후 노동자로 경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들도 강조되어야

□ 고등학교 교육과정

○ 연구자 : 박형준(성신여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 고등학교 공통교육과정은 주제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세계화와 지역화’ 주제에서 경제 내용을 기술
- 경제통합, 자유무역, 자유무역협정, 해외직접투자, 국가간 노동이동, 국가간 양극화현상 등이 내용요소

○ 토론자 : 정창욱(단성고등학교 교사)

- 중학교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려워
 - 교육과정에서 수요, 공급곡선의 이동을 그래프가 아닌 언어적 설명으로 이해시키도록 한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에 대한 평가 문항을 제작할 수 있는지가 의문
 - 통계표나 도표 등을 이해하는 능력도 교육목표에 포함시킬 필요
- 주제중심의 구성이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심화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7차 교육과정보다 경제교육이 더 취약
- ‘자유무역의 이해득실’ 등의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구적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등의 표현은 어색

○ 토론자 : 유지후(대성고등학교 교사)

- 실제 고교생의 경우 중학수준에서 배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
 - 따라서 복습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 현행 10학년 교과서는 사회과목의 형식적 통합에 그치고 있으며 학생들이 어렵게 느낌.

- 주제중심의 접근법으로 학생들이 사회현상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경제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
- 10학년에서 경제교육으로 ‘세계화와 지역화’만을 학습하는 것으로는 부족
- 기본적 경제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이 반복될 필요가 있음.

나.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 연구자

○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7차 교육과정에서는 경제를 정치, 법 등 다른 영역과의 관계설정에서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교육과정 설계안의 특징은 경제활동의 광범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학생 스스로가 정립하는 데 초점
- 7차 과정에서는 분업의 문제가 명시적으로 다뤄지지 않음.
 - 분업에 대한 학습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시장의 의미를 배우는 사전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시장은 자생적인 교환시스템으로서 인류 공동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분업과 조정의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임을 먼저 설명할 필요
 - 왜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기본원리, 현실제도, 현실문제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시장의 역기능을 지나치게 확대, 강조하는 서술 방식을 지양하면서 시장 기능의 한계와 보완대책 부분은 자연스럽게 독립된 영역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시장균형의 효율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자세히 다루고, 완전경쟁, 독과점시장 등 시장 구조에 대한 내용을 추가
- 시장의 예를 가능한 한 많이 다룸으로써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유도

○ 김영식(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기업가정신, 금융시장, 노동3권, 사회안전망 등의 내용을 추가
 - 기존 교과서에서 소개하지 않은 새롭고 다양한 시장을 제시
- 7차 과정의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중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경영에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다른 부분에서 일부만 다룸.
- 재량적 정부 개입은 정부 실패를 불러올 수 있음을 교육내용에 강조

○ 김진영(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국내총생산(GDP)뿐만 아니라 국민총소득(GNI)을 추가하고, GDP와 GNI 이외의 주요 경제지표를 실제 데이터에 기초하여 설명
- 장기적 경제 성장과 단기적 경제 변동을 분리한 뒤, 우선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설명
 - 학생들 스스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
- 간략하게나마 정부(정책당국)가 정부지출, 조세 및 금리의 조정을 통해 경기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그 한계에 대해 설명

○ 박정수(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위해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를 배우고 통일의 장·단기 경제적인 효과와 문제점들을 제시
- 고등학생으로서 체감하기 힘들고 막연한 주제인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에 관한 부분도 “세계 속의 한국 경제” 부분에 하나의 소주제로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부
- ‘국제 거래’와 ‘외환시장’이라는 두 주제로 나누어 보다 자세한

- 설명을 토대로 세계화 시대의 추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제고
- “세계 속의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과 그 성과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현재 세계화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보다 상세히 점검

□ 토론자

- 권영섭(대진공업고등학교 교사)
 - 교과서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다뤄야 함.
 - 교과서가 편향됐을 때는 잘못된 시각이 학생들에게 전해질 우려가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할 필요
 -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제 교육을 성찰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
 - 실업계 「경제」 교과서에 대한 논의도 고려할 필요
- 전대원(남한고등학교 교사)
 -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나 분석을 위한 내용 추가
 - 시장 실패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능동적 태도 함양
 - 사회과 체계 내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배제하거나 축소하기 보다는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이해정(경북여고 교사)
 - 「경제」 교과를 선택교과에서 필수교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
 - 관련 경제용어 및 문제를 제시하는 교과서를 구성
 - 교사용 지도서의 충실한 집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
 - 경제전공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어려운 학교실정에 맞게 교사용 지도서의 개편이 필요
 - 「경제」 교과를 지도하는 현장 교사의 커뮤니티 장 마련과 각종 학습자료를 종합적으로 모아주는 사이트가 필요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마련
- 예화 및 플래쉬 등의 교과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지속적·집중적인 교사연수 기회를 신설하고 확충

다. 교육전문가의 의견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김종호(서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 초등 교육과정의 경우 사회과는 통합의 성격
 - 따라서 연구에서 보여준 초등 경제교육 내용(안)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임.
 - 금융에 대한 소개는 초등 교육과정에 필히 반영되어야 할 요소
-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는 생활 속의 소재를 중심으로 하되 동시에 체계적인 이론적 접근 필요
- 현재의 연구안은 국제경제 영역을 학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론적 체계화는 보이지 않음.
- ‘생활중심’의 소재를 기반으로 한 통합 사회과를 지향하는 현실에서 이론에 충실한 내용의 체계화는 많은 논의가 필요

□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 안병근(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 본 개정안과 같이 고교 경제교육의 목적을 ‘기본적인 경제 지식의 습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
 - 고교 경제교육은 ‘경제교육’이어야지 ‘경제학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음.
- 7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경제교육’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나 경제적 사고력 및 합리적 의사결정력 함양, 시장경제원리의 터득 등은 미흡

- 본 설계안은 '경제학교육'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시장경제 원리 터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학생들의 경제적 사고력 내지 합리적 의사결정력 함양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7차에 비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 선택 기피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7차에 비해 내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 시수를 감안하면 교과내용이 가르치기에는 너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단원의 통합 또는 축소가 필요
- 김진영(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 새로 만든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은 친기업적이란 느낌
 - 심화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음.
 - 심화과정 연구진에서 경제 주체는 합리적이므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환경을 가르쳐 주면 된다고 보지만 교육적 기능을 간과할 수 없음.
 - 따라서 합리적 행동을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
 - 심화과정의 5장의 구성이 체계적·균형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음.

라. 관련기관의 의견

- 박영석(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연구원)
 - 이번 교과과정은 8차가 아니라 7차의 부분개정
 - 공통과정은 시안이 나와 있으나 심화과정은 시안이 개발 중이며 내년에 고시될 예정
 - 설계안은 평가원에서 개발한 체계와 다름. '대강화'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과정 해설서가 상세화될 것임.
 -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개정안의 심화과정은 아직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음.
 - 따라서 지식, 가치, 태도 등에 대한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감안

하여 개발될 필요

- 내용면에서 구체적으로 소비의 역할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정 부역할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음.

○ 양원택(교육인적자원부 연구사)

- 경제교과서 발전협의회 신설 예정
- 큐티스(www.cutis.moe.go.kr) 사이트를 3월 개설, 다양한 의견 수렴
 - 교육과정 개정시안 자료를 게재하고 사이버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 교육과정 심의회 및 공청회 실시 및 최종안 마련
 -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해 심의할 예정
 - 사회과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최소 3번 이상 개최할 예정
 - 종합적인 공청회 실시
 - 내년 2월 최종고시(교육부 판단 후)
- 교과서 검증시스템 검토 중
 - 개발자에 의한 다양한 교과서 출판에 따른 검증시스템을 개발하여 심의 기준을 마련

○ 박재진(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차장)

- 심화과정은 통합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통합적인 내용이 많음.
- 시장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상품시장, 외환시장은 각각의 특징이 있으므로 개별 설명이 필요
- 학생의 입장에서 설명의 순서가 바뀌어야

마. 기타 의견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교육과 경제학 교육은 연속선상에 있음.
- 경제학은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범은 그 후에 고려하는 학문적 경향이 있음.
-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나 상태가 윤리적으로 비판받는 경우도 있어 규범의 판단은 조심스러움.

○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기업의 행위에 어떤 제약이 가해져 있는지 여부, 즉 제도의 측면에서 본 기업과 시장경제의 측면에서 본 기업을 구분해서 가르쳐야
- 경제교육의 기본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장경제를 가르치는 것이며 전인교육이 목표는 아님.
- 복지의 문제는 현실에서 논의가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굳이 결론을 쓸 필요는 없으며 학생들이 판단하도록 기술해야

○ 김영식(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거시경제 연구는 아직도 학문적으로 현재 진행형
- 설계안의 내용이 학문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은 아니며 학생에게 꼭 필요한 내용

○ 김진영(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2장에서 시장의 구조 부분을 넣었으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게 되면 삭제할 수도 있음.

○ 박정수(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경제」 교과서는 쉽게 기술돼야 하고 북한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손정식(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심화과정의 3단원은 “시장 기능의 제도적 뒷받침”이 아니라 “시

장경제의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 심화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은 모호한 표현이며 환율시장은 2장의 새로 등장하는 시장에 포함시켜야
- 교육과정의 통합화가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지리, 역사, 정치 등 모든 분야의 학자가 모여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음.

○ 박형준(성신여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 교육과정은 교과서의 집필자를 위한 것임.
- 사회과는 전면적으로 개정되며 교육과정은 고유의 체계가 있음.
- 교육과정은 목표만 제시하게 되어 있어 금회의 교육과정은 해설서 수준의 내용요소 첨부가 필요

○ 이윤호(순천대 사회과교육과)

- 경제를 쉽게 쓰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경제는 본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 모든 내용을 내용요소로 다룰 수는 없으며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 경제 윤리, 가치, 태도를 배웠다고 해서 현실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임.
 - 오히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과 현실에 부합

IV. 중간세미나 결과 연구진 워크숍

(1)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06년 3월 4일(토), 14:00~17:00
- 개최장소 : KDI 중회의실 및 소회의실

(2) 중점 논의내용

- 용어의 통일, 교육내용 과다문제, 교과서 집필방식, 주요 내용요소에 대한 기술방식 등

(3) 참석자 및 진행방식

- 참석자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7명) : 손정식(한양대), 박형준(성신여대), 한진수(경인교대), 이윤호(순천대), 한경동(한국외대), 주만수(한양대), 김덕수(공주대)
 -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5명) : 이승훈(서울대), 권남훈(건국대), 김영식(서울대), 김진영(건국대), 박정수(서강대)
- 진행방식 : 전체회의(공통과정과 선택과정) 개최 후 과정별 논의

(4) 주요 토론내용

가. 용어의 통일

- 기본원칙은 교육과정 해설서에 용어를 정의하고, 공통과정과 선택과정을 비교하여 통일
- 분업에 대한 개념
 - ‘division of labor’의 개념에 ‘coordination’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인지
 - ‘division of labor’와 ‘specialization’의 용어 구분하여 표현
- 기업에 대한 표현
 - 중학과정에서 단원명을 “기업가의 생산 활동”이라고 쓸 경우 오히려 친기업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기업가의 생산 활동” 대신 ‘생산자’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

나. 교육내용의 과다문제

- 현행 교육과정에서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수업일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수가 정해지지 않아 내용의 분량을 정할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내용을 정하는 것보다는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요소들을 정한 후,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내용요소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가 필요
 - 많은 내용요소가 있으면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편성될 가능성이 있음.
 - 시수의 시나리오별로 내용요소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음.

다. 교과서 집필방식

- (미국처럼) 많은 내용을 포함시켜 놓고 교사가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모든 교사가 같은 내용을 다루도록 교과서를 집필하는 방법 가운데 선택할 필요
 -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을 스스로 더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
- 현행 교육과정 설계기준은 대강화(大綱化)이므로 집필자들이 임의적인 집필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해설서 수준으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

라. 주요 내용요소에 대한 기술방식

□ 합리적인 선택과 기회비용

- 경제학에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에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은 무리

- 합리적 선택도 정도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음.
 - 합리적 선택에 대한 부분은 해설서를 쓸 때 정의를 설명하고 공통 과정과 심화과정에서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고 조정할 필요
-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교육내용을 설정해야
 - 초등학생에게는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에서는 공동체 레벨에서의 합리적 선택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
 - ‘바람직한 소비’는 자칫 윤리적·훈계적 측면을 포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그 사례).
 - 공동체 선택은 비용·편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교사가 개념을 가르칠 때 윤리적 관점에서 가르치지 않도록 해설서를 쓰는 것이 중요
 - 선택의 여러 모습을 보여 주고 학생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개할 필요
-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학습 방법론적 접근 사례
 - 정보입수를 소홀히 하거나 충동구매를 하게 될 경우 합리적 소비라고 말할 수 없음.
 - 탐구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소비행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
 - 후회스러운 소비와 왜 후회했는지 탐구를 통해 ‘바람직한 소비’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기회비용
 -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마다 다르고, 지나치게 기술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음.

□ 세계화

- 세계화는 controversial한 주제이어서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주제인지를 검토할 필요
- 학생들에게 시사성 있는 이슈를 소개할 필요

-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장단점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

□ 소득재분배

○ 자본주의에 대한 기술 필요

-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의 75%가 자본주의가 싫다고 답해, 현행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
- 소득분배에 대한 내용은 7차 교과서에는 심화과정에 속해 있어 공통과정에는 없음.
- 그러나 노동자로서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등의 내용도 소개해야

○ 소득재분배의 내용을 기술하는 문제

- 절대 빈곤자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
-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교육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여러 관점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술

마. 기타 의견

○ 교육과정 설계의 일관성 유지 필요

-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접근 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
 - 공통과정과 심화과정에서 기술방향이나 내용을 달리하지 않도록 조정
- 교과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개념을 밝혀 주고 공통과정·심화과정의 방향은 일관성을 유지

- 새로 마련한 교육과정의 특징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
 - 7차 교과서의 문제점, 새로운 교육과정, 특징 등에 대한 기술은 최종보고서에 밝혀 주는 것이 필요
- 교육과정 작성자에 대한 요구와 교과서 집필자에 대한 요구가 구별되어야
 - 예를 들면, ‘쉽게 써야 한다’는 것은 교과서 작성자에 대한 요구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통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변경작업이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있음.

V. 학회공동 세미나

(1)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06년 5월 13일(토), 10:00~18:00
- 개최장소 : KDI 중회의실 및 소회의실

(2) 중점 논의내용

- 교육과정 설계안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과 연계성, 단위별 교육목표와 내용, 서술방식과 난이도 등

(3) 주요 참석자

- 연구자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6명) : 손정식(한양대), 박형준(성신여대), 한진수(경인교대), 이윤호(순천대), 한경동(한국외대), 주만수(한양대)
 -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5명) : 이승훈(서울대), 권남훈(건국대),

김영식(서울대), 김진영(건국대), 박정수(서강대)

○ 토론자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박명호(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김홍균(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영섭(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최윤재(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 전택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 문승래(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장경호(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오영수(경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김경모(경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 관련기관

- 박영석(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연구원), 양원택(교육인적자원부 연구사), 박재진(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차장), 이종화(재정경제부 교육홍보팀장), 황희정(재정경제부 교육홍보팀 사무관)

(4) 1부·2부 주요 토론내용

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사회과 영역별 시간 배당에서 경제에 할당된 시수 부족
 - 경제를 가르칠 시간이 너무 적다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경제관련 학회나 학자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
 - 시수가 확대되도록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시수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관련 학회, 경제학자들이 다방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이번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음.
 - 시장경제의 기능과 작동원리를 강조한 점과 가치나 태도를 배제하려고 노력한 점
 - 이러한 방향은 바람직한 전략이라 할 수 있어 총론적으로 찬성

- 다만, 4학년 과정은 7차 과정에 비해 많은 변화가 없으며, 6학년 과정은 많은 변화(차별화가 존재)를 주었음.
 - 4학년 과정이 크게 차별화가 없다면 대신 특성화라는 차원에서 기존 교육과정과 다른 점을 부각할 필요
- 아울러, 학년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목표를 기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이 주변의 상황이라면, 6학년은 이를 공간적으로 확대한 차원임을 강조할 필요
 - 예)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는 것에서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여, 주변의 공장·기업 등을 통해 산업·시장으로 연결시키는 등 연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낼 필요
- 초등과정에서 ‘가격’,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기술 필요
 - 내용의 분량을 줄이는 추세이나, 환경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다루어져야
 - 초등 과정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은 학생들에게 부담만 줄 수도 있음.
 -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소득 앞에 ‘일과 직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연계성을 높일 필요
- 중학교 3학년 과정에 거시경제를 미시경제와 함께 가르치는 문제
 - 기존의 10학년에서 배우던 거시경제를 중3 과정으로 내려 학습하게 하는 것은 시간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대해서도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책 마련 필요
 - 아울러, 중학교 교사의 경우 경제학에 대한 소양이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더욱 미흡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거시부문은 10학년 과정에 존속시키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
- 중학 미시과정에서 그래프를 사용할 경우 경제 현상이 기계적으

로 보일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

-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말로 쉽게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 추가적인 검토 필요
- 중학교 과정에서 그래프의 이동 또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 수학과목에서 과연 다른 변수의 변동에 의한 학습이 선행되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
- 중학 거시과정에서 GNI, GDP를 구분하지 않고 국민소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
 - 선택과정을 배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경제교육이 종료
 - 거시과정에서 GNI, GDP 등은 고등학교 거시 분야와 중복되고 있어 어느 한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
- 고등학교 공통과정은 ‘주제중심’ 교과가 이상적이지만 여건상 개발자들이 통합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
 - 예를 들면, 세계화의 경우 정치·경제·문화·사회적으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임.
 -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회과 교사들이 태반인데 세계화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만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 10학년 과정 가운데 ‘세계화’ 부분만을 경제 분야로 한정하여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위험
 - 타 분야에도 충분히 경제관련 개념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예) 미래변화에 고령화 사회와 우리의 대응, 잠재성장률에 대한 논의, 과학 및 기술혁신에 관한 논의 등
 - 삶의 질 부문에서도 성장의 질,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원용하여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세계화에 대한 설명도 지나치게 경제개념 위주로 기술
 - 오히려 쉽게 설명하고 눈에 떨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계는 가까워진다'로 제목을 달고,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사람, 돈, 물건, 기술, 정보 등)을 설명
 -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 등과 같은 내용을 꾸미는 것이 필요
 - 필요하다면,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할을 포함하는 경제 주체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방식의 전개도 필요

나.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 내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어렵다는 인상
 - 기본적으로 교과서 집필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33개의 소주제가 있는데 1소주제당 2시간 수업을 하도록 설계
 - 수업의 시간에 맞게 분량과 난이도를 정하는 지침을 설계안에 마련할 필요
- 기존의 7차 교과서를 수정, 보완하는 방식이며 교육과정 체계를 완벽히 구성하려는 설계안이라 양이 다소 많아진 듯
 - 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교생의 8.8%만이 경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 내용이 더 어려워질 경우 더 많은 학생들이 경제과목을 기피하려 할 것임.
 - 내용을 최소화하되 핵심적인 것을 쉽고 간결하게 쓰는 것에 대해 연구진들 간에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
- 「경제」 교과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윤리에 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언급해야 할 필요 있음.
 - 경제윤리를 포함시키자고 해서 가치의 문제를 배제시키자는 것은 아님.

- 시장경제에서 경제 주체가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
- 거시영역이 미시영역에 비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균형적이지 못함.
 -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다른 소주제로 포함시키고 거시, 화폐관련 내용을 4시간 비중으로 확대할 필요
- 소단원 3, 4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
 - 7차 과정의 서술형식은 시장 곳곳에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었음.
 - 설계안의 3단원은 정부 개입은 시장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
-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단원의 내용요소를 대폭 개편할 필요
 - 기존 7차 교육과정의 “통일 한국 경제의 미래”와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 주제의 내용을 개선안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 경제” 부분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
- 기존 교과서는 경제 체제를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경향이 있음.
 - 시장경제의 대안이 아니라 시장을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 체제’ 교육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은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어려움만 가중시킬 수도 있음.
- 성장의 비용도 균형 있게 언급할 필요
 - 1인당 실질 GDP는 평균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며 다른 후생지표들과의 상관관계를 소개하고 환경 문제 등을 언급할 필요
- 자금의 최종 공급자로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 금융정책 등을 설명
 - 통화정책 내용에서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화폐·금융 정책의 효과를 사례를 통해 소개할 필요

-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
 - 단기 경기 변동 내용을 ‘실업과 인플레이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이자율이 소비, 투자 등 다른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등의 논의도 다루는 것이 필요
- 환율과 보호무역 논리에 대한 기술 필요
 -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일종의 가격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환율결정모형은 소개하지 않는 것이 나올 수도 있음.
 -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논리와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 하나의 소주제로 편성되어 있는데 tone down이 필요

(5) 1부토론 주요 내용

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박명호(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 기본교육과정 총평
 - 사회과 과목 편제의 적정성 검토 요망
 - 우리나라는 국사, 지리·일반사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 역사·지리, 일반사회로 구분
 - 영역별 시간 배당(역사 및 국사 7, 지리 4.5, 일반사회 4.5)이 논란의 소지가 많음.
 - 경제과목 교육의 연속성 유지 방안
 - 10학년에서는 주제중심 교육이 진행될 예정임. 경제학의 경우 기본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특정 주제에 대한 적용은 무리
 - 우리나라 사회과 교사가 특정 경제 주제를 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10학년에서 거시경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심화과정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 수는 더 줄어들 것임.
 - 경제과목 개정 과정

- 교과목 개정시 교육공급 체계 안에 있는 이해 당사자보다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 교사 공급체계 개선
 - 교사의 경제과목 이수를 보다 강화하여 교사의 경제 이해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임.
- 김홍균(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초등과정
 - 가격에 대한 기술이 필요
 - 4학년 경제 활동과 선택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음. 가격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
 - 환경 문제는 기업이 주범이라는 등,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등의 오류를 시정하고 어떻게 시장을 통해 해결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
 -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는 내용도 추가
 - 교과서가 얇아서 참고서 없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을 것임.
 -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할 장치가 필요
- 이영섭(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중등 미시과정
 - 과거의 교육과정은 경제영역을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원리적으로 가르치려는 경향
 - 개선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 행위를 중심으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진행
 - 개선 및 보완이 필요
 - 기회비용을 사전적인 의미보다 직관적이고 단순한 표현으로 이해시킬 필요
 - 비교우위도 숫자로 설명하기보다 말로 풀어서 설명
 - 가격 결정, 가격 변동 부분에서 그래프를 사용할 경우 경제 현상이 기계적으로 보일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 경제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현상들을 경제적으로 설명할

필요(이타심에 따른 행동, 슬럼가 아이들의 선택 등)

○ 최윤재(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중학 거시과정

- 국민총소득과 국민총생산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장기 성장에 대한 설명 필요
 - 오히려 소득과 생산이 다르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둘을 ‘국민소득’으로 단순화하여 기술
 - 경제 성장 내용은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설명이 가능하므로 미리 소개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
- 국내총생산 순환모형은 어렵기 때문에 단순화가 필요
 - 단순히 소득=지출=생산 또는 기업, 가계 둘의 관계로 축소하고 단순화
- 환율 문제 및 경기 변동
 - ‘경상수지가 환율결정’을 빼고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추가
 -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따로 살피지 말고 같이 설명

○ 최윤재(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고등학교(10학년 주제중심)

- 세계화와 지역화의 단원명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화는 세계화의 한 형태로서의 의미인데 병렬적으로 쓰면 오해할 우려가 있음.
 - 경제적인 측면을 다룰 것이므로 세계화보다는 자유무역, 경제통합 등과 같은 주제가 더 바람직
- 여러 부문의 개방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 재화시장 이외의 노동시장, 서비스시장, 자본시장 등의 개방은 어려워서 경제학원론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아
 - 어려운 내용이 도입되면 경제지식이 풍부한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 기타
 - 국산품과 외제품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주제

- 기업의 국적을 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
- 세계화와 양극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취질 우려

나.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 전택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 : 선택교육과정 총평
 - 한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제교육은 필수적
 -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가르쳐야
 - 한국에서 경제의사결정의 주체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정부의 역할은 축소
 - 시장경제의 강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체제와의 비교가 필수적
 - 단원 3과 4를 보면 정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듯함. 단원을 통합하고 내용을 대폭 축소할 필요 있음.
- 문승래(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시장과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확히 해야
 - 다양한 금융상품을 어느 범위까지 소개할 것인가
 - 노동시장은 간결하게 살피는 것이 좋고, 인터넷시장을 추가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
 - 기타
 -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 문제는 제4단원인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으로 옮겨야
 - 경제 성장의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균형 있게 언급해야 함.
 - 세계화 속에 공적개발원조, 남북경협에 대한 내용을 추가
- 장경호(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 전반적으로 내용이 너무 많음
 - 내용체계를 완벽히 구성하려다 보니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

을 다루고 있음.

-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보다는 주입, 암기식 교육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

– 3단원과 4단원의 내용 구성

- 불공정 행위는 시장 실패를 배우고 나서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4단원은 3단원의 뒤로 배치해야 함.
- 기업가정신은 3단원의 주요 내용인 제도적 장치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2단원(시장과 경제 활동)에서 다루어져야 함.
- 정부의 역할이 너무 강조되었음. 내용을 축소할 필요
- 4단원의 내용인 정부의 세입과 재정지출은 5단원(국민 경제의 활동과 변동)에서 다루어져야

○ 오영수(경북대 사회교육과 교수)

– 내용의 외연이 확대되었고, 내용적으로 더 이론중심의 교재가 된 것 같음.

- 내용을 최소화하되 핵심적인 것을 쉽고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을 듯함.

–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

- 시장구조를 기존의 방식보다 경쟁적/비경쟁적 시장의 2분법이 더 효과적
- 외부성이나 공공재, 자연독점은 자원배분의 왜곡이라는 이론적 측면보다는 정부의 개입이나 조정, 중재가 필요한 부분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

– 교육과정에 추가가 필요한 내용

- 3단원에서 소단원으로 “경제 주체로서 가계의 중요성”을 추가하고 양육, 노인부양 등은 가계에서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포함.
- 4단원에서 “시장경제와 소득 분배” 소단원 추가
- 5단원에서 “화폐, 금융의 역할”, “실업과 인플레이션” 소단원 추가

- 기타
 - 세세하게 내용요소를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집필진이 그 내용에 동의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
 - 고등학교에서 경제의 실제 수업비중이 지리와 역사에 비해 매우 낮게 되어 있어,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이 필요
- 김경모(경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 거시영역이 미시영역에 비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균형적이지 못함.
 - 3단원과 4단원을 통합하여 축소해야
 - 경제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
 - 경제 현상의 과학적 이해와 실천 교육도 필요
 - NCEE 자료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기심과 개인적 가치가 사회적 수준의 경제적 가치 간에 발생하는 상충관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
 - 제안
 - 새로운 교육과정의 모색은 경제학자와 경제교육자, 교사의 참여가 같이 이루어져야
 - 학교 경제교육을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핵심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

다. 관련기관

- 박재진(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차장)
 - 설계안에는 통화, 금융부문의 비중이 미국 교재보다 크게 낮음.
 -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 전체의 균형적 이해를 위해 통화·금융 비중을 확대할 필요
 - 미시 부문이 과도하고 거시 부문의 내용이 미흡하므로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필요
 - 재화시장, 노동시장, 화폐시장, 증권시장 등을 유기적으로 교육

- 박영석(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연구원)
 -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고 자 하는가”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시장 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부분이 어떠한 경제적 내용을 토대로 구성될 수 있을지가 다소 불명확
 - ‘보호무역의 논리와 문제점’ 등에 대한 강조는 그 취지와 관계없이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환율제도를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 학습요소인지 의문
 - 교육과정 개발과정에는 교육과정 총론과의 조화, 다른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과의 균형, 고등학교 수준의 국가 사회적 교육목표와 요구 등이 검토됨을 이해
- 양원택(교육인적자원부 연구사)
 -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정에는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정 편수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본 설계안이 이들의 작성에 큰 도움을 줄 것
 - 경제교과서 발전자문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회의는 모형 교과서를 만들기 위함임. 이번 토론회와 같은 모임과 본 설계안이 큰 도움이 될 것

(6) 2부토론 주요 논점

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논점 1]**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기의 경제교육 시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역사(7시간), 지리(4시간), 일반사회(4시간)의 시수 배정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에서 미시, 거시 단원을 모두 이수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주제중심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현행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중학교 미시, 고등학교 1학년 거시로 단원을 설정하는 것이 그나마 경제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 경제교육의 시수 부족에 대한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경제 교육 내용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시수 확보를 위해서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재경부, KDI 등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이하 ‘개정시안’)의 기본 방침 하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런 차원에서 중학교에서 미시, 거시 단원을 다루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진의 의견도 토론자들의 지적에 동의하며 최종보고서에 그런 방향의 의견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조치하겠다.

○ **[논점 2]**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너무 어려운 주제들이 많은 것 아닌가? 또한 시장경제의 특징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가격, 경제 체제, 정부의 역할,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비용의 활용, 주식시장 등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 제시된 경제 개념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특정 개념이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는 중학교 이상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초등학교에서는 시장경제의 특징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교육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의 파지력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제시하면 학생들은 시장경제의 단점만을 기억할 우려도 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 작성시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주5일제 수업으로 전체적으로 가르칠 내용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논점 3] 이번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기능과 작동원리를 강조한 점과 가치나 태도를 배제하려는 노력은 총론적으로는 바람직하나, 4학년 과정은 7차 과정에 비해 많은 변화가 없고 6학년 과정은 많은 변화를 주었다. 4학년 과정이 크게 차별화가 없다면 대신 특성화라는 차원에서 기존 교육과정과 다른 점을 부각하여 학년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목표를 기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이 주변상황이라면, 6학년은 이를 공간적으로 확대차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는 것에서 시장이라는 개념을 확장하고, 주변의 공장·기업 등을 통해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등의 연계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연구진과 협의하여 보완조치 하겠다.
- [논점 4] 중학교 미시 단원에서 기회비용, 비교우위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그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목표를 이윤 추구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기업의 목표를 부의 사회 환원, 고용 증대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인식들이 기업의 이윤 추구 방식과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면 좋겠다. 시장의 가격 결정과 변동에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한지 검토했으면 한다. 오히려 그래프에 의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외에 이타심에 따른 행동, 정보비대칭에 따른 결과들, 해악이 되는 듯한 행동, 예상(기대)의 역할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한다.
- ⇒ 기회비용, 비교우위의 개념이 추상적이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좀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학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기업의 목표와 관련된 지적에도 동의하며 지적한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하겠다. 시장의 가격 결정과 변동을 설명할 때 굳이 그래프를 사용해야 하는

냐에 대해서 본 연구진 간에도 이견이 있었다. 그래서 그래프 사용을 넣었다 삭제하였다는 반복하다 현재 넣는 것으로 잠정 확정하였다.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교과서 저자들이나 현장 경제 교사들이 과연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그래프 없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연구진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인 만큼 최종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추가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경제학의 흥미를 돋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역시 지면과 시간상의 제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논점 5]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국민소득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또한 국가경제 순환모형이 너무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좀더 단순한 모형을 배우고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환율과 경상수지와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을 다루는 앞뒤 교육과정 문맥으로 볼 때 어색하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경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본 연구진은 학생들이 신문의 경제 기사를 읽을 수 있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경제 개념을 학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과정을 구안하였다. 현재 신문에서 GDP와 GNI는 일상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제는 GNI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여러 토론자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재검토하겠다. 국가경제 순환모형 자체는 교육과정에 담기지 않으며 교육과정 해설서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또한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를 논의한 부분도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한 실업과 인플레이션 역시 토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할 것이다.

- **[논점 6]** 고등학교 1학년 주제중심 접근 자체가 너무 부실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차라리 중학교 거시 단원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지역화(region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는 다른 개념이고 그런 차원에서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는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데, 굳이 “세계화와 지역화”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 없이 “세계화”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경제 통합 추이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통합 추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장 개방이 한쪽에는 이익을 주지만 다른 쪽에는 손해를 끼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계층’, 특히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산품 애용과 같은 문제는 다른 내용에 비해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계화 과정에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비취질 수 있는 진술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다.
-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 주제중심 접근과 거시 단원을 고등학교 1학년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본 연구진의 의견도 토론자들의 의견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의 서론과 고등학교 1학년 서술 부분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제목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에 동의하나, 이 제목은 이미 개정시안에서 제시된 제목이기 때문에 본 연구진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 경제 통합 추이와 관련된 지적은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시장 개방과 관련된 토론자의 지적 내용이 연구자의 의견과 다르지는 않지만, ‘계층’이란 용어를 소득 계층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단’, 또는 ‘경제 주체’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 국산품 애용이 다른 주제

에 비해 비중이 낮다는 점에 동의한다. 지난 교육과정에서 국산품 애용이 너무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었지만 토론자의 지적대로 다른 부분에 통합해 다루도록 하겠다. 세계화와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그 주제의 핵심은 아니며, 토론자의 지적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더 내용을 다듬도록 조치하겠다.

나.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 **[논점 1]** 연구진이 제시한 개편 교과과정안(이하 ‘개편안’)에는 경제 체제에 관한 논의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시장경제의 장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체제와 비교하는 내용을 넣거나 최소한 다른 형태의 자원배분도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7차 과정에서는 경제 체제들을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동등한 수준의 대안인 것처럼 오도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따라서 개편안에서는 시장경제의 대안이 아니라, 시장을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제’ 교육내용을 설계한 것이다. 다른 형태의 자원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은 개편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비교를 통한 시장 체제의 우월성도 내용요소에는 포함되어 있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예정이다.
- **[논점 2]** 전체적으로 7차 과정의 교과과정에 비해서 다루는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어려운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시장과 경제 활동” 단원에서 금융시장을 소개한다는데 복잡한 금융상품들을 어디까지 소개할 것인지? 불완전 경쟁시장도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완전경쟁 등 세분화해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 어렵다. 반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새로 나타난 시장 등은 소개할 필요가 있다.
- ⇒ 개편안이 다양한 주제(33개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대신 내용의 깊이를 소주제 1개당 1주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만큼 난이도의 문제는 크지 않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일일이 소개하거나 학습하는 것은 아니며, 불완전 경쟁시장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 시장의 종류와 예를 들어 주고 학생 스스로 탐구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며, 인터넷시장의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반영이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교과서 자체를 별도의 학습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담기도록 집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난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논점 3] 「경제」 교과서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윤리에 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 경제윤리를 포함시키자고 해서 가치문제를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경제 주체가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설계하였다. 법,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며 이 때문에 3, 4장이 길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 질서를 견고하게 하려는 정부의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논점 4] 3장 “시장경제의 제도적 뒷받침”과 4장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의 경우 소주제를 통합, 축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장 실패’라는 명칭도 시장의 한계를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
- ⇒ 3장 소주제 중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부분은 다른 소주제들과 계위가 맞지 않으므로 타 주제와 통합할 것이며, ‘시장 실패’의 명칭 변경이나 3장과 4장의 통합 여부 등은 연구진 내부에서 좀더 신중히 고려하겠다.

- [논점 5] 통화 및 금융 부분이 여전히 지나치게 적은 측면이 있으며,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미시부분에 포함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전체적으로 미시에 비해 거시 부분이 너무 적다.
- ⇒ 금융시장의 제도적 측면을 다룬 부분은 거시부분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내용상 시장의 제도적 측면과 규제를 다룬 3장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고교 수준에서 통화 및 금융에 관해 너무 깊이 들어갈 경우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있으나 통화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은 거시부분에서 안정정책을 다루는 부분에 좀더 추가 반영하겠다. 저축 및 투자와 관련된 내용도 좀더 보강하겠다.
- [논점 6] 제5장 “국민 경제의 활동과 변동”에서 추가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총수요-총공급 모형의 소개, 성장으로 인한 비용, 준칙과 재량의 문제, 여러 시장 간의 유기적 관계 등이다.
- ⇒ 반영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겠다. 다만, 총수요-총공급 모형이나 시장 간 유기적 관계 등은 고교 수준에서 지나치게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 [논점 7] 제6장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에서 세계화의 본질, 공적개발원조, FTA 및 WTO 추진과정과 마찰, 우리 경제의 위상, 보호무역의 논리와 문제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반면, 환율결정모형은 너무 어렵고 환율제도에 대한 내용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지?
- ⇒ 7차 과정의 “통일 한국 경제의 미래”와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 주제의 내용을 개선안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 경제” 부분으로 포함시키고, 기존 “국제 거래와 경쟁력”의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너무 적어 개선안에서는 이를 보충하고자 하였다. 환율결정모형에 대한 내용은 복잡한 이론적 모형이 아니라 기본적인 외환수급 모형 정도이므로 난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 [논점 8]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의 기술방향을 장·장단기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과 단원의 주제를 크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 ⇒ 장기의 경제 성장 문제를 단기보다는 비중을 크게 둘 것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경기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든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단기 변동 내용을 ‘실업과 인플레이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이자율이 소비, 투자 등 다른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등의 논의도 다룰 것이다. 따라서 소주제를 ‘실업 및 인플레이션’으로 좁게 잡지는 않을 것이다.
- [논점 9] 전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틀을 깨지 못한 느낌이 들며, 선택과정으로서 외면 받고 있는 경제교육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을 반으로 줄이는 등 좀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한 방향의 의견제시이며, 연구진들 간의 논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부록 1. 중간세미나 토론자료

- I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한춘희/김유선
/신무선/김상희/정창욱/유지후/김종호)
- II .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권영섭/전대
원/이혜정/안병근/김진영)
- III . 관련 기관(박영석/양원택)

< 토론 1 > 한춘희(서울 천동초등학교 교사)

1. 초등학교 경제교육의 목표

사회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다. 경제교육은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 복잡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개인에게 경제적 사고방식을 습득시켜 합리적인 경제문제의 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제교육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미룰 수 없는 그리고 미루어서도 안되는 교육의 핵심 영역이다.

Boulding(1969)은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한진수, 2003:9-10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사회 시스템, 특히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하고 활용 가능한 개념은 갈수록 인간 생존을 위한 필수 요인이 되고 있다. 만약 사회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비현실적이거나 부정확하다면,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들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경제교육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과 같은 복잡한 세상에서 무지는 행복이 될 수 없으며, 환상이나 미신에 기초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결국 소멸되고 만다.

학교 경제교육은 경제교육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경제교육이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경제현상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학교 경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개인 또는 사회의 경제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미국 경제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인 NCEE가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36개의 기본개념들을 6개의 개념 군(〈표〉 참조)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에 있어서 기본개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경제구조의 이해에 필요한 지식,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을 개관하고 있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경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표〉 NCEE 기본 경제개념

- I. 기초적인 경제개념들 : 1. 희소성과 선택, 2. 기회비용과 상충관계, 3. 생산성, 4. 경제체제, 5. 경제기관과 유인동기, 6. 교환, 화폐, 상호의존
- II. 미시 경제개념들 : 7. 시장과 가격, 8. 공급과 수요, 9. 경쟁과 시장구조, 10. 소득 분배, 11. 시장실패, 12. 정부의 역할
- III. 거시 경제개념들 : 13. 국내 총생산, 14. 총공급, 15. 총수요, 16. 실업, 17.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18. 통화정책, 19. 재정정책
- IV. 국제 경제개념들 : 20. 절대우위, 비교우위, 무역장벽, 21. 국제수지와 환율, 22. 성장과 안정의 국제적 측면
- V. 측정개념과 방법들 : 표, 도표·그래프, 변화율, 지수, 명목 및 실질값, 평균·분산
- VI. 광범한 사회적 목표들 : 1. 경제적 자유, 2. 경제적 효율성, 3. 경제적 형평성, 4. 경제적 안정성, 5. 완전 고용, 6. 가격 안정, 7. 경제 성장, 8. 그 밖의 목표들

초등학교 경제교육 과정의 목표 및 내용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경제교육은 경제교육의 시작으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경제 현상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이 관심과 흥미 위에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배우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신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려운 경제개념이나 경제현상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들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초등학교 경제교육 과정의 내용체계를 대단원 두 개 즉, ‘경제 활동과 선택(4학년)’, ‘우리나라의 경제모습(6학년)’으로 나누고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 사회과 교과서는 학년마다 대단원 3개(대단원 안에 2~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내용요소를 현행 사회과 교과에 모두 담아낼 수 없다.

셋째, 사회과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즉, 지식면, 기능면, 가치·태도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시된 단원목표들 대부분은 지식면에 치중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 지식목표를 강조하면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능 및 가치·태도 목표도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경제교육 과정의 내용체계가 경제교육으로서만이 아니라 전체 초등 사회과 교육 과정의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단독으로 경제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초등학교 경제교육에 대해 항상적이고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논의된 결과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KDI 경제정보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라고 생각되지만, KDI 연구의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것들이다. 초등학교 경제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일선 현장에 보급하고, 현장 교사들의 연수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

끝으로, 초등학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초등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교육내용 국가표준(안) 정립 필요성
- 교사양성대학의 경제학 강좌 증설 및 현직교사 연수 확대
- (가칭) 학교 경제교육 협의회 설립
- 경제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자. 특히 초등학교부터
- 경제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변화

< 토론 2 > 김유선(대전 매봉초등학교 교사)

I. 초등학교 경제교육의 목표

(1) 지식영역의 목표

경제 생활의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기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경제문제를 파악한다.

(2) 기능 목표

경제현상과 경제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 획득, 조직, 활용하는 능력 배양과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의사결정·사회참여능력을 배양한다.

(3) 가치·태도영역 목표

개인 및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사회의 당면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족문화 및 민주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II. 기존 경제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7차 초등사회교육과정(경제교육)의 내용적 분석

현재 사용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및 탐구 교과서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학년별 기본개념의 분포, 경제교육 내용의 구성, 기본 개념의 학년별 경제교육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학년별 경제내용 구성 상태를 단원, 주제, 제재 단위로 추출하여 학습의 계열성 및 학년별 난이도, 사회과 탐구 교과서의 관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1>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학교 경제교육 비교

	미국NCEE	일본 사회과 경제교육	한국 사회과 경제교육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인 의사결정력과 책임 있는 시민의 육성 ·기본 경제개념과 그 관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적인 사회인식과 경제적 사실의 이해 및 결정 능력 육성 ·경제의 기본개념과 구조 및 제도의 이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의사결정력과 경제적 소양을 지닌 시민육성 ·경제생활의 관심과 건전한 생활태도 형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개념과 생활소재의 조화 ·기초경제 개념의 이해와 분석을 위한 도구 ·내용의 논리적 체계화 배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중·고학년에 따른 경제활동의 의미와 개념강조 ·내용의 논리적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소재 빈약 ·어렵고 추상적인 경제개념과 이론 ·개념의 단편적 소개 ·모든 개념의 광범위한 중복
교수학습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와 유기적 연결 ·과정중심의 학습 ·탐구식 학습의 정착 ·수준별 개념별 학습 ·문제해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적인 학습소재로 전통적인 설명식 교수법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와의 연결 결여 ·결과중심의 학습 ·설명식 교수학습과 탐구식 부분도입 ·지식위주 학습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ex)노작이나 놀이, 시, 물레이션 게임 등 다양한 모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적인 경제문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하고 빈약한 학습자료

초등학교 경제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초등학교의 경제교육과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경제교육은 학자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이 끝날 때까지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경제적 소양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교육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교육의 대상인 초등학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기보다는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가. 학년별 경제개념

교과서 및 사회과 탐구에 나타난 경제교육의 기본 및 하위 개념을 학년별로 분석해 보면 <표 2>, <표 3>과 같다.

<표 2> 학년별 경제교육 개념 : 교과서

기본개념/하위개념/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경제문제	조사방법			
	희소성과 선택	·물건선택	·물건선택	
소비	기본생활수단		·기본생활 수단	·기본생활 수단
	절약 및 소비지출	·절약 및 소비지출	·절약 및 소비지출	·절약 및 소비지출
	저축	·저축		
직업 및 근로	직업 및 근로의식		·직업 및 근로의식	·직업 및 근로의식
	직업의 종류 선택	·직업의 종류	·직업의 종류	
생산	자연의 이용	·자연의 이용	·자연의 이용	·자연의 이용(땅과 물)
	제조업			·제조업
	기술개발 및 경쟁			·기술개발 및 경쟁
	노사협력			
	생산 및 경제활동의 정의	·생산	·생산 및 경제활동	·생산 및 경제활동
시장	가게 및 시장	·가게 및 시장	·가게 및 시장	·가게 및 시장
	물자의 이동	·물자의 이동	·물자의 이동	·물자의 이동
	상인의 역할과 상도덕	·상인의 역할	·상인의 역할과 상도덕	·상인의 역할과 상도덕
경제체제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기본개념/하위개념/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화폐와 금융	화폐의 발달과 역할			
	금융기관의 종류와 기능 저축과 산업			
재정	예산의 뜻 조세			
국제경제	무역			
경제성장	공업발달 과정과 경제개발			
	생활향상과 복지사회 국력신장			
경제문제	조사방법 희소성과 선택	·조사방법 ·선택방법	·현명한 선택	
소비	기본생활 수단			
	절약 및 소비지출 저축	·절약 및 소비지출 ·저축	·절약 및 소비지출	
직업 및 근로	직업 및 근로의식	·직업	·직업 및 근로의식	
	직업의 종류와 선택		·직업의 종류와 선택	
생산	자연의 이용	·자연환경과 산업		
	제조업			
	기술개발 및 경쟁 노사협력	·기술개발 및 경쟁	·기술개발 및 경쟁 ·노사협력	
	생산 및 경제활동의 정의	·생산	·생산과 소비 ·경제활동의 정의	
경제성장	공업발달 과정과 경제개발			
	생활향상과 복지사회 국력신장			
시장	가계 및 시장	·가계 및 시장		
	물자의 이동	·물자의 이동	·물자의 이동	
	상인의 역할과 상도덕	·상인의 역할	·상인의 역할과 상도덕	

기본개념/하위개념/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경제체제	시장경제		·생산자와 소비자 ·수요와 공급	·경제교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화폐와 금융	화폐의 발달과 역할		·화폐의 발달과 역할	
	금융기관의 종류와 기능		·금융기관의 종류와 기능	
	저축과 산업		·저축과 산업	
재정	예산의 뜻			·예산의 뜻
	조세			·조세
국제경제	무역	·물자의 국가간 이동 ·수출입 상품	·무역	
경제성장	공업발달 과정과 경제개발		·공업발달과정과 경제개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생활향상과 복지사회	·생활 향상과 복지사회		·생활향상과 복지사회
	국력신장	·국력신장		·국력신장(제24회 서울올림픽)

10개의 기본 개념 중 ‘시장’의 개념과 그 밖의 하위개념 2~3개 정도만이 개념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용이하도록 전 학년에 걸쳐 고르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 그 외의 개념들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축’의 개념은 1학년에서 학습한 후 4학년에서 언급되었으며, ‘제조업’은 전 학년에 걸쳐 3학년 과정에서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또한 4학년과 5학년 과정은 전체 개념이 고르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 6학년 과정에는 3개의 개념만이 제시되어 있다.

<표 3> 학년별 경제 교육 개념 : 사회과 탐구

기본개념/하위개념/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경제문제	·조사방법 ·회소성과 선택	·조사방법 ·회소성과 선택 ·현명한 선택	
소 비	·기본생활 수단 ·절약 및 소비 지출 ·저 축	·절약 및 소비지출 ·저 축	·절약 및 소비지출 ·예금의 종류
직업 및 근로	·직업 및 근로의식 ·직업의 종류, 선택	·직업	·직업 및 근로의식 ·직업의 종류와 선택
생 산	·자연의 이용 ·제조업 ·기술개발 및 경쟁 ·노사협력 ·생산 및 경제활동의 정의	·자연의 이용 ·기술개발 및 경쟁 ·생산	·자연의 이용 ·제조업 ·기술개발 및 경쟁 ·생산 및 경제활동
시 장	·가게 및 시장 ·물자의 이동 ·상인의 역할과 상도덕	·시장의 구실 ·물자의 이동	·가게와 시장 ·물자의 이동 ·상인의 역할과 상도덕
경제체제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시장경제
화폐와 금융	·화폐의 발달과 역할 ·금융기관의 종류와 기능 ·저축과 산업		·화폐의 발달과 역할 ·금융기관의 종류와 기능 ·저축과 산업
재 정	·예산의 뜻 ·조 세		·예산의 뜻 ·조 세
국제경제	·무 역	·수출과 수입 ·무 역	·무 역
경제성장	·공업발달 과정과 경제개발 ·생활향상과 복지사회 ·국력신장	·공업 발달 과정과 경제개발 ·생활 향상과 복지사회	·공업발달과정과 경제개발 ·경제개발 ·새마을 운동 ·생활향상과 복지사회 ·복지제도 ·제24회 서울올림픽 ·국력신장

사회과 탐구에 나타나 있는 기본 개념을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 4학년 교과서에는 13개의 하위개념이 제시되었으나 사회과 탐구에서는 11개 개념만이 제시되고, 5학년에서는 반대로 교과서보다 2개의 개념이 더 제시되어 교과서와의 연계 학습에 어려움이 있으며, 같은 개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제시된 내용의 수준도 교과서와 비교하여 발전된 것이 없어 보충심화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2. 경제교육의 내용 구성

1학년과 2학년 교과서는 단원을 주제 수준까지 분류해서 경제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4학년 교과서는 경제 영역과 다른 영역, 특히 지리 영역을 구별하기 어려우며, 주제나 제재만을 보아서 어느 영역이 경제 문제를 다루는 부분인지 애매모호하다. 특히 5학년에서는 단원, 주제, 제재가 모두 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로 가장 중점적인 경제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 구성은 5학년 1학기에 그치고 5학년 2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은 경제교육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경제교육의 단절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과 탐구의 내용 구성을 보면 4학년에서는 지역화 교재이므로 지리 영역의 교재 속에 경제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5학년 과정에서는 교과서에는 3단원 8주제 16제재에서 경제교육 내용이 제시된 반면 사회과 탐구에서는 3단원 7주제 30제재로 무려 14개의 제재가 더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심화, 발전되지 못하고 내용의 나열만으로 그치고 있다. 6학년 과정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제24회 서울 올림픽’과 같은 제재에서, 또한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예산의 개념이 간단히 언급되는 등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과 탐구에 제시된 경제교육 내용이 교과서의 내용보다 수준이 떨어지거나 관련성이 부족하여 교과서의 보충·심화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3. 기본 경제 개념(26개)의 학년별 내용 분석

사회과 교과서 및 탐구 교과서를 경제교육 기본 개념에 따른 26개의 하위 개념별로 학년별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나타난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방법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단 2차시의 학습 활동을 통하여 개념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개념에 비하여 매우 소홀히 취급되어 있다.

산업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토의를 거쳐 견학을 통한 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견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이 결과로서의 지식보다는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별 종사자와 생산액, 공업단지와 전자상가단지 견학 보고서, 견학 계획을 세우기 위한 토의 내용은 4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렵다.

(2) 희소성과 선택

희소성과 선택의 개념은 1, 2, 4, 5학년에서 다루고 있는데 1학년에서는 때에 따라 어울리는 물건과 필요한 물건을 바르게 고르는 방법, 2학년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과 좋은 물건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선택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또한 선택의 개념이 수업의 중심 내용이 되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4학년의 ‘영수의 선택’ 단원에서는 가족들이 바라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까닭에서 희소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암시적으로 끝나며 선택의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학년에서는 ‘내 일은 내 손으로’의 3가지 예화 중 한 예화로서 ‘물건을 살 때 고려할 사항’에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내용의 수준

이 4학년에 비해서 발전된 것이 없고 오히려 낮아졌다는 느낌을 준다.

한편 사회과 탐구의 경우 4학년 2학기에서는 성호네 가족이 사고 싶은 것을 한꺼번에 사지 못하는 까닭과 어느 것부터 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나 희소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5학년 1학기 ‘폐품을 팔아 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까?’라는 제재에서 물건을 살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는 과정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5학년 2학기에서는 ‘어떤 종류의 자원이든지 우리의 욕심이나 필요성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다’를 학습함으로써 희소성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여 사회과 교과서의 심화·보충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개념 정립 면에서 살펴보면 교과서에서는 4학년에서 희소성의 개념이 언급되었으나 사회과 탐구에서는 4학년에서 언급 없이 5학년에서만 언급하고 있어 계열성 및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미국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의 경우 희소성과 선택의 개념을 설명하는 진술이 K-1과정에 4개, 2-3과정에 7개, 4-5과정에 4개로 초등학교 과정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었으며 각 학년별로 고르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 6학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으며 다른 학년에서도 각 학년 2학기에 1차시의 학습 내용 또는 그 이하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희소성과 선택이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경제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겠다.

(3) 기본생활 수단

2학년 2학기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기본 생활 도구로서의 의·식·주가 아니라 ‘그러한 물건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며 어디에서 구하나?’가 더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4학년 2학기 ‘로빈슨 크루소의 생활’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의·식·주가 필수품임을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제시하였지만 이 예화는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따르

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는바 보다 더 적절한 예화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절약 및 소비 지출

절약 및 소비 지출은 1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 7개의 제재로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며 내용별로 보면 물건 아끼기에서부터 용돈 아끼기, 가게부를 통한 가정 경제, 용돈 기입장을 통한 현명한 소비 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1, 2학년에서는 물건 아껴 쓰기와 재활용, 용돈 사용법을 통한 절약과 소비 지출을 다루고 있으며 3, 4학년에서는 ‘우리 집 가게부’란 학습 제재를 가지고 가정 경제 및 절약의 개념을 다루고 있으나 학년별 내용의 차가 거의 없으며 학습 주제와는 거리감이 있는 용돈 기입장에 대한 학습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과 탐구에서는 4학년 2학기 ‘가정의 살림살이’에서 4개의 학습 제재로 절약 및 소비 지출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할머니의 절약생활’은 5학년 교과서의 학습제재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5학년에서는 진호의 생일잔치 방법 결정과정을 통하여 교과서의 현명한 소비 학습 내용을 보충하려고 했으나 보충·심화 학습의 내용으로서는 불충분하다.

(5) 단원의 내용 요소와 설명 범위

저축의 개념은 1학년에서는 용돈의 사용방법 중 한가지로서 저축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절약, 저축하는 태도를 형성하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나 학습의 제재로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용돈 사용 학습에 대한 3가지의 학습 목표 중의 한 가지로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 및 저축하는 태도의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4학년에서는 영수와 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저축이 필요한 까닭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대화의 내용이 4학년의 수준으로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 탐구에서는 좀 더 현실감 있는 예화로 저축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5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에서는 예금의 종류에 대하여 나와 있으나 저축의 필요성 및 태도 형성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며, 용돈 지출과 저축 실태의 현황 조사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4년의 통계로서 별 의미가 없으므로 좀 더 최근의 통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직업 및 근로의식

직업 및 근로의식에 관한 내용은 2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 제시되고 있으나 2학년에서는 ‘자기의 소질과 꿈을 살려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직업 및 근로의식보다는 어려운 일을 노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학년에서는 ‘일의 중요성과 보람에 대하여 알아보자’라는 학습목표 아래 고장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 알아보는 학습내용은 연관성이 적다고 생각된다.

4학년에서는 건전한 취미생활이 장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학습함으로써 취미생활을 통하여 소질을 계발하고 나아가 장래의 직업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과 탐구 ‘거리의 악사’에서는 취미생활 및 직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예화를 선정하여 학습내용에 혼동을 주고 있다.

5학년에서는 직업인의 바람직한 자세와 직장인으로서의 보람에 관한 학습내용을 제시하였지만 어린이들에게는 현실감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하고 막연한 상상과 추측에 불과한 학습 내용이며 사회과 탐구 역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직업 및 근로의식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직업의 종류 및 선택

1학년에서는 동네의 여러 가게에서 하는 일을 통하여, 2학년에서는 우리 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 마을과 이웃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의 종류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5학년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을 분류하고 산업별 취업자 수를 비교하였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직업을 고찰하고, 자기의 희망 직업,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점, 적성 및 직업 선택시 고려사항을 학습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차시의 학습 분량으로서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내용의 나열식 수업이 되기 쉽다. 사회과 탐구 또한 직업의 분류와 미래의 직업 제재에서 직업의 종류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교과서 내용의 심화보다는 별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느낌이다.

5학년 2학기 ‘직업을 찾아라’의 제재에서는 직업의 종류 및 선택의 문제를 학습 내용으로 하였으나 교과서에서는 희소성과 선택에 대한 개념 문제를 다루고 있다.

(8) 자연의 이용

1·2학년에서는 계절의 바뀔에 따라 산촌과 농촌에서는 어떤 일을 하며 또한 어떤 과일과 채소가 나는지를 학습함으로써 농사를 짓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3학년에서는 고장 사람들이 산과 들, 물을 이용하는 모습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목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화와 삽화를 섞어 학습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4학년에서는 ‘여러 환경과 산업’, ‘여러 가지 산업의 발달’에서 자연 환경과 지역의 특색에 따라 발달한 산업을 학습 내용으로 제시하면서 자연의 이용 모습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였다. 4학년 사회과 탐구에서는 지역화 교재로서 강원도의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하여 학습하며 그 지역의 자연 환경에 알맞는 산업이 발달하였음을 알고 자연의 이용 방법을

학습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5학년에서는 ‘숲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제재하에 산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으나 숲이 우리 생활에 주는 도움에 대한 학습 내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개념의 학습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 탐구에서는 ‘바다의 자원 개발과 이용 방법’, ‘미래의 에너지들’에 관련된 학습 내용으로 교과서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으나 교과서 및 사회과 탐구 모두 다른 개념들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 제조업

3학년에서 제과 공장을 견학하고 빵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제조업의 개념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으나 3학년 한 학년에서만 제조업의 개념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다른 학년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학습이 단편적으로 끝남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삽화에서는 각 공장의 모습을 제시하였는데 너무 단순하여 개념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

5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에서는 교과서와는 별개의 문제로 제조업의 개념을 다루고 있어서 탐구 교과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0) 기술개발 및 경쟁

3학년 ‘유리온실’의 제재에서 ‘더 좋은 물자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더 좋은 물자의 개념이 아동 각자 주관적이고 또한 상대적인 입장에서의 개념 정리밖에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4학년에서는 ‘잘 살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에서 3학년과 같은 제재인 ‘유리온실’이 언급됨으로서 내용 수준의 차이가 없으며 사회과 탐구 4-2

‘바다목장’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발전된 모습에서 기술개발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동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5학년은 3개의 소단원에서 기술 개발 및 경쟁에 관한 개념을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였으나 ‘바다목장’은 4학년 2학기의 학습 주제로 선정된 것으로 내용면에서 눈에 띄게 발전된 사항은 없다.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보면 주로 농업과 어업의 발달을 통하여 기술 개발을 설명하려 했으므로 그 밖의 다른 산업과의 비중이 맞지 않고 아동들로 하여금 부분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할 우려가 있다.

(11) 노사협력

전 학년을 통하여 5학년 1학기 ‘좋은 물건의 생산’이라는 한 제재를 통하여 기업가와 근로자의 노력할 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노사 협력이 라는 개념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지만 분업의 개념은 노사 협력과는 거리감이 있으며 사회과 탐구 또한 노사협력의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좋은 품질의 물건을 보다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로서 양복 만들기와 카드 만들기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막연한 노사 협력에 관한 예화의 제시보다는 각종 경제 자료와 일화,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다양한 자료를 발췌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좀 더 강한 문제의식을 심어주어야 하겠다.

(12) 생산 및 경제활동

1학년에서는 ‘여름에 나는 과일과 채소’, ‘바다에서의 양식업’, 2학년에서는 ‘농촌에서 여름에 하는 일’,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생산 및 경제 활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학년에서는 ‘김 양식장’과 ‘제과공장’의 제재 속에서 생산 및 경제 활동의 명확한 제시 없이 자연의 이용 및 제조업의 개념과 함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정확한 개념의 의미를 학습하기 어렵다.

4학년 교과서에서는 ‘물자의 이동’ 제재 속에 식품이 생산되는 곳에 대하여 조사해 보자는 간단한 언급만이 나타나 있고, 사회과 탐구 역시 물자의 이동을 학습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물자에 대한 간단한 언급으로 생산의 개념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고 3학년에서의 학습 내용보다 발전된 것이 없어 위계적인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5학년에서는 ‘우리들의 경제활동’이라는 제재 속에 경제 개념이 명시되고 경제 활동을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 나누었으며 경제의 정의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학습 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신문을 돌리는 일도 생산 활동이라고 한 것은 아동들에게 생산 활동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사회과 탐구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는 학습내용으로 교과서의 학습 내용보다 간단히 구성되어 사회과 탐구로서의 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3) 가게 및 시장

1학년에서는 동네의 여러 가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는 과정과 심부름 놀이를 통하여, 2학년에서는 가게에서 파는 물건의 종류, 백화점과 슈퍼마켓의 차이점을 학습함으로써 가게 및 시장의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가게 놀이를 통하여 가게에서 파는 물건, 주인과 손님으로서의 갖춰야 할 태도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3학년에서는 시장과 가게의 종류, 그 곳에서 파는 물건, 시장과 가게가 우리 생활에 주는 도움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4학년에서는 1학기 ‘물자의 이동’ 제재 속에 시장에 있는 여러 종류의 가게와 시장의 모습에 대하여 간단한 언급이 있고 2학기에서는 남대문 시장의 모습에서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이 되어 있으나 2학년과 3학년의 내용은 학년별 수준 구별이나 발전된 내용이 없이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으며 4학년에서까지

배워야 할 만큼 중요한 개념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한편 4학년 사회과 탐구에서는 ‘서울의 시장들’이라는 제재 하에 옛날 서울의 시장 모습에 대한 설명만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제재와는 거리가 있으며 교과서와의 내용 연관이 미흡하다.

(14) 물자의 이동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비교적 체계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개념 중 한 가지로 1학년에서는 ‘가을의 열매’ 단원에서 과일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학습함으로써 물자의 이동에 관한 개념을 기초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2학년에서는 음식물, 사과, 공책 등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3학년에서는 포도와 학습장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과 삽화로 제시하였는데 2학년의 과정과 비교하여 수준이 향상되거나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학습장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내용은 중복되어 제시되고 있다.

4학년에서는 ‘물자의 이동’이 제재명으로 제시되고 개념 학습이 좀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초보적인 물자의 이동 수준에서 타 시도와의 교류 또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과정을 학습하도록 발전되었으나 수박의 유통과정은 2, 3학년 사과, 포도, 학습장의 유통과 같은 내용이 중복되었으며 또한 농촌, 어촌,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종류별 생산지를 구분하는 학습은 4학년의 수준으로서는 너무 미흡하다. 사회과 탐구에서는 지역화 교재의 성격으로 강원도의 교통을 학습하면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물자와 다른 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물자의 이용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내용 구성이 되어있다.

5학년에서는 유통업의 구실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하고 유통을 빨리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4학년까지의 단순한 물자의 이동 학습보다는 심화 발전되었다.

그러나 사회과 탐구에서는 오징어의 여행 및 빠르고 안전한 물자 운반이라는 단편적인 내용제시로 교과서의 수준을 심화·보충시키지 못했다.

(15) 상인의 역할과 상도덕

1·2학년에서는 심부름 놀이와 가게 놀이를 통하여 물건을 사고 팔 때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하여 체험함으로써 상인의 역할과 상도덕에 대하여 생각하여 볼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3학년에서는 과일가게 아저씨가 하시는 일을 알아봄으로써 상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2차시로 편성되어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단편적이고 단순한 활동을 제시하여 3학년의 수준으로서는 미흡하며, ‘컴퓨터 상가’의 학습 재료를 통하여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일을 알아보도록 하여 상인의 역할과 상도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학년에서는 ‘시장의 구실’을 학습하는 과정에 시장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간단한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5학년에서는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서로 바꾸거나 사고 팔 때 지켜야 할 규칙’을 학습함으로써 상인의 역할과 상도덕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회과 탐구에서는 상인의 역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의 학습 내용이 제시되어 보충·심화 학습의 자료로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5학년 1학기 ‘생산과 소비’단원의 학습재대로 상인의 역할 및 상도덕이 제시되어 교과서와 사회과 탐구의 상호 연관성에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16) 시장경제

5학년에서 유통업의 필요성과 구실을 학습하는 과정의 한 학습 과제로 시장 경제의 개념을 암시하고 있으며, 사회과 탐구에서는 외국과의 무역을 학습하는 가운데 무역의 자유화와 외국 제품의 경쟁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시장 경제의 내용을 느끼도록 구성되어 있다.

6학년에서는 ‘우리과 관계 깊은 나라’의 중국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했다는 설명만으로 시장 경제의 개념 학습을 마치고 있다.

시장 경제의 개념은 5학년과 6학년의 두 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으며 중심 주제로 자리잡지 못하고 다른 주제를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경제 제도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념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과서 및 사회과 탐구에서는 너무 소홀히 취급되어 있다.

효과적인 경제교육을 위하여 통계자료, 일화, 기록 등 가능한 한 많은 자료와 함께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발췌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어려운 경제 이론은 배제하고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내용으로 바뀌어야 하겠다.

(17)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 및 공산주의 경제 제도에 대한 언급은 6학년 2학기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까닭’과 ‘통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동·서독의 통일 후 혼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자본주의 경제 제도와 공산주의 경제 제도의 명확한 언급 없이 차이점만을 막연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과 탐구에서도 개념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사회과 경제교육의 개념 중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이론을 배제하고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내용으로 바뀌어야 하겠다.

(18) 화폐의 발달과 역할

5학년 1학기 ‘금융기관’의 단원에서 돈이 어떻게 발달하여 왔으며 어떤 구실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가운데 화폐의 발달과 역할의 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사회과 탐구에서도 돈의 역사와 구실에 대하여 심화·보충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화폐의 개념 학습이 5학년에서 그치지 말고 6학년으로의 연속 학습으로 이루어 졌으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19) 금융기관의 종류와 기능

5학년 1학기 ‘은행을 찾아서’란 학습 제재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종류와 하는 일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사회과 탐구에서는 은행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는 내용의 언급이 없이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의 종류에 대하여 너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20) 저축과 산업

5학년 1학기 ‘예금통장’이라는 학습 제재를 통하여 우리가 저축한 돈의 쓰임과 그것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은행의 자금이 산업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 예화 또는 설명이 부족하다. 사회과 탐구 또한 교과서와 관련하여 5개의 제재가 선택되어 있으나 저축과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재는 ‘영아의 예금통장’하나이다.

(21) 예산

6학년 2학기 ‘국회의 구성 및 하는 일’에 대하여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의 뜻과 쓰이는 곳에 관한 짚막한 설명으로 그치고 있으며 사회과 탐구 또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예산 심의 및 결산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예산의 기능을 국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학습 내용으로는 미흡하다.

(22) 세금

6학년 2학기 ‘대통령과 행정부의 조직 및 하는 일’에 대하여 학습하는 과정에서 교육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밖의 어느 곳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 아동들이 조세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

(23) 무역

4학년 1학기 ‘물자의 이동’ 학습에서 국내에서 나는 음식물과 외국에서 들여 온 음식물을 구별하는 학습 내용에서 무역의 개념을 깨닫도록 하고, 5학년 1학기 ‘자동차 수출’의 학습 제재에서 무역과 경제생활과의 관계, 우리나라 무역의 모습과 현황, 무역 상대국 등 6페이지에 걸쳐 비교적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무역의 발생을 나타내는 사과와 바나나의 이야기는 5학년의 내용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경제의 내용을 통하여 무역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 블록화와 개방화에 대비하는 내용 제시와 함께 경제 윤리 측면의 문제도 다룰 수 있어야 하겠다.

사회과 탐구에서는 1-2 ‘광공업’ 단원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오는 지하 자원을, 1-3 ‘유통 관광업’에서 무역의 필요성 및 무역 상대국과 무역의 발달 모습, 주요 수출품의 변화와 아울러 세계 무역의 현황까지 알아보는 내용으로 총 8페이지로 구성되어 교과서의 심화·보충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6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에서는 ‘세계로 팔려 나가는 우리 상품’의 학습 제재에서 수출 대상국의 증가, 무역의 규모, 지역별 수출입 비교 등을 학습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24) 공업 발달과정과 경제 개발

5학년 1학기 ‘부채에서 에어컨까지’의 학습에서 우리 나라의 공업 발달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 공업 지역대까지 발전하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6학년에서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의 학습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과 그에 따른 경제 문제 및 해결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업의 발달 과정과 경제 개발의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제시되어 있지 않고 5학년과 6학년에서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어 두 개념을 연관지어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회과 탐구에서는 4학년 서울 주변의 도시를 학습하는 과정에 수도권
의 공업 발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공업 발달 과정과 경제 개발
의 개념을 학습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5학년에서는 교
과서의 공업 발달 과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도자기 공장 견학을 통한
전통 공예품의 전승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었으며, 6학년의 관련 단원
에서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대별로 경제 발전 모습과 국민 생
활의 모습을 삽화와 함께 알기 쉽게 기술하였으나 새마을 운동을 한 제
재로 구성하여 너무 많은 비중을 두었다.

(25) 생활 향상과 복지사회

4학년 1학기 ‘잘 살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에서 주민들의 노력 사례
를 들어 생활 향상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다루고 있는 소학습
제재가 ‘새마을 운동’, ‘유리온실’, ‘토종을 살리자’ 등 국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사회과 탐구의 학습 내용 또한 도시와 촌락 생활의 문제
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학습을 통하여 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어 본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는 부족함이 있다.

6학년에서는 복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일과 복지 사
회란 어떤 것인가를 학습하도록 내용 구성이 되어 있으나 복지 사회의
정의를 나타낸 7개 항목은 현실성에 비추어 너무나 희망적인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과 탐구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복지 제도의
개념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탐구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
였다.

(26) 국력 신장

4학년 1학기에서 영종도 국제공항의 위상을 통하여 우리의 국력 신
장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으며, 6학년에서는 ‘제 24회 서울 올림픽’, ‘세
계로 뻗는 한국’, ‘세계 은행과 우리 나라’, ‘땡큐 코리아’의 4개의 학습
제재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국력 신장의 모습을 학습하도록 되어있고

사회과 탐구에서도 서울 올림픽과 국력 신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서울 올림픽을 국력신장의 모든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포들의 해외 활약상을 개인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의 발전만을 강조하여 단편적인 개념의 학습이 될 우려가 있다.

2. 경제교육 내용적 구성에 따른 문제점

첫째, 경제의 기본 개념들이 단절되거나 불완전한 연계로 나타나고 있다.

10개의 기본 개념 중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각 학년에 고르게 제시되어 있는 개념은 ‘시장’의 개념뿐이며 하위개념 중에서도 ‘절약 및 소비지출’, ‘자연의 이용’, ‘직업 및 근로의식’ 등 3~4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저축’의 개념은 1학년에서 학습한 후 4학년에서 언급되었으며, ‘제조업’의 개념은 전학년을 거쳐 3학년 과정에서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고, ‘화폐의 발달과 역할’, ‘금융기관의 종류와 기능’, ‘저축과 산업’은 5학년 과정에 ‘예산’ 및 ‘조세’의 개념은 6학년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식능력 및 내용의 난이도가 심화·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내용 구성의 계열성 및 위계성이 적절하지 못하다.

교과서의 경제내용을 주제와 제재별로 추출하여 구성의 논리성과 계열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주제와 제재의 논리성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5, 6학년으로 갈수록 내용 구성의 부적절성을 찾아볼 수 있어 계열성에 있어서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의 단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학년의 ‘희소성과 선택’의 개념 학습에서는 물건을 살 때 고려할 사항에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4학년에 비해 내용의 수준이 발전된 것이 없으며 ‘물자의 이동’ 개념은 1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 비교적

체계적으로 내용 구성이 되어있지만 2학년에서 음식물, 사과, 공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과 3학년의 포도와 학습장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내용, 4학년 수박의 유통과정은 수준이 향상되거나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이 중복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기술 개발 및 경쟁’의 개념은 3학년과 4학년에서 ‘유리온실’이라는 같은 제재가 언급됨으로서 내용 수준의 차이가 없으며 5학년의 ‘바다목장’은 4학년 2학기의 학습 주제로 선정된 것으로 내용면에서 발전된 사항이 없다

셋째, 경제교육 내용이 구체적인 주제를 통하여 제시됨으로써 기초적 경제 개념이 산업 및 직업 등의 내용과 함께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학년의 경우 「바른생활」, 3~6학년에서는 「사회」 과목에 포함된다.

1.2학년 「바른생활」에서는 ‘우리들이 쓰는 물건’, ‘가게에서 하는 일’, ‘궁리하는 생활’, ‘가게놀이’, ‘물건의 여행’ 등의 주제 단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자연의 이용, 생산과 소비, 가게와 시장, 물자의 이동 등과 같은 경제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3~6학년의 경우에는 ‘고장 사람들의 생산활동’, ‘우리고장의 시장’(3학년), ‘우리 시·도의 생활’, ‘가정 생활과 여가 생활’(4학년),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산업’, ‘경제생활과 직업’(5학년) 등의 구체적 주제를 통하여 생산 및 경제활동, 절약 및 소비지출, 직업 및 근로의식, 화폐 및 금융의 역할과 기능 등의 기초적인 경제 개념이 산업 및 직업 등의 내용과 통합하여 구성되어 있다.

넷째, 「사회과 탐구」 교과서가 「사회과」 교과서의 보충·심화 자료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과 탐구」 교과서는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심화·발전시켜 본 교과서에서 제시된 학습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현행 「사회과 탐구」에 제시된 경제교육 내용은 본 교과서와는 관계없는 내용이 제시되거나 내용의 난이도 및 수준이 교과서와 다름이 없고 오히려 낮아진 곳이 있어 보충·심화의 자료로서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기본 개념을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 4학년에서는 교과서보다 2개의 개념이 적게, 5학년에서는 2개의 개념이 더 많이 제시되었으며, 경제교육 내용의 구성 비율면에서는 4학년 1학기과 6학년 2학기에 교과서에서는 각각 18%와 27.1%가 제시되어 있으나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는 9.1%와 10.4%로 1/2정도의 수준으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전체 구성 비율면에서도 4.5.6학년 교과서의 17.8%에 비하여 6%정도 낮은 11.4%를 차지하고 있다.

개념별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4학년 ‘가게 및 시장’의 학습에서는 옛날 서울의 시장 모습에 대한 설명만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교과서와의 내용 연관이 미흡하고, 5학년 ‘물자의 이동’학습에서는 오징어의 여행 및 빠르고 안전한 물자 운반이라는 단편적인 내용 제시로 교과서의 수준을 심화·보충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경제교육 내용이 특정 학년에 편중되어 있다.

경제교육 내용은 「바른생활」 과 「사회」 교과서의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서는 11.4%를 차지하고 있다. 학년별 분포상황을 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 학년 다루어지고 있으나 3학년 2학기과 6학년 2학기는 국사 영역의 교육과정 구성으로 구체적인 경제교육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2학년 1학기는 7.8%, 5학년 2학기는 3.8%인 반면 3학년 1학기는 42.7%, 5학년 1학기는 42.4%가 제시되어 다른 학년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편중성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간의 실질적 통합을 중시함으로써 일반사회 영역의 한 하위영역으로서의 경제교육에 대한 배려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3. 경제교육 내용적 구성에 따른 제언

앞으로의 초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 내용 구성과 경제의 기본 개념은 각 개념별로 내용이

미약하거나 불완전한 연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배열과 구성에 있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추어 저학년에서 고학년이 될수록 그 내용이 심화, 확대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의 내용 진술 방법이 내용 요소 나열식에서 사고력 향상 및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교과서의 내용 진술을 교사가 가르쳐야 할 주제 항목을 나열해 놓은 형식을 취하고 지나치게 많은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나열된 주제에 대한 피상적 암기 학습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과서는 구체적인 내용 제시를 최소화하고 경제내용을 학생의 사고력 향상 및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진술하여 내용과 활동을 통합할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사회과 탐구 교과서는 본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돕는 자료 단원으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용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며, 교사는 본 교과서와 사회과 탐구 교과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사회과 탐구 교과서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경제교육 내용이 학년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학년별 또는 학기간의 경제내용을 다시 편성하여 내용 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교과서 내용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교과서의 개편 때마다 어려운 경제이론을 배제하고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내용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으나, 어렵게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경제의 내용과 함께 경제 블록화와 개방화에 대비하는 내용, 경제 윤리 측면의 내용 등을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하겠다.

여섯째, 효과적인 경제교육을 위하여 통계자료, 일화, 기록 등 가능한 많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경제교육에 각종 경제 자료와 일화,

방송이나 신문 등 다양한 자료를 발췌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문제의식을 강하게 심어주어야 하겠다.

4. NCEE에 따른 교육과정에 제시된 경제개념 분석

관련개념	학년	단원	주제	제재	분석 내용
최소성과 선택	4-2	3. 가정의 경제생활	1) 다양한 생산 활동과 가정의 소득	(1) 가지고 싶은 것은 많지만	▷ 재화 개념의 사용 범위 : 재화에는 물질적 재화와 용역이 있지만 용역은 제외되어 있음 ▷ 용어사용의 일관성 : 96쪽-현명한 선택 101쪽-합리적 선택
기회비용과 상충관계	4-2	3. 가정의 경제생활	1) 다양한 생산 활동과 가정의 소득	(1) 가지고 싶은 것은 많지만	▷ 선택하는데 있어 기회비용이 지도되고 있지 않음
특화 (생산성)	4-1	2. 우리 시·도의 발전하는 경제	1) 우리 시·도의 자원과 생산활동	(1) 자원을 이용하는 생산활동	▷ 시·도의 특산물이 자연자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서술할 뿐 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장점을 나타내지 않음
직업 (생산성)	4-1	2. 우리 시·도의 발전하는 경제	2) 서로 돕는 경제생활	(1) 나누어 말하는 생산	▷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에게 직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안내가 필요 ▷ 오늘날 시대는 우수한 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기업이 정신이나 창업정신을 조기에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기술개발 (생산성)	4-2	3. 가정의 경제생활	1) 다양한 생산 활동과 가정의 소득	(2) 가정의 소득을 얻기까지 (▷ 기술개발은 제품의 질뿐만 아니라 양의 증가와도 관계있음(질 향상만 다루고 있음)

관련개념	학년	단원	주제	제재	분석 내용
기술개발 (생산성)		1.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2)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경제	(2) 세계 속의 우리 기업	▷ 기술개발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했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 지나친 기술 만능주의는 인간소외와 인간성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인식시켜 기술 개발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어야 함을 알려야 함
	5-2	2. 정보화 시대의 생활과 산업	2) 첨단기술과 산업의 발달	(1) 첨단기술과 산업의 발달 (2)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3) 우리가 만드는 미래 산업	
경제기관	4-2	3. 가정의 경제 생활	2) 알뜰한 살림살이	(2) 우리집 예금 통장	▷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 않음(아이들은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함)
교환	4-1	2. 우리시·도의 발전하는 경제	2) 서로 돕는 경제 생활	(2) 경제활동의 중심지	▷ 교환 규칙만 제시되었을 뿐 교환의 필요성, 교환의 상호 이점이 제시되지 않음
화폐	4-1	2. 우리시·도의 발전하는 경제	2) 서로 돕는 경제 생활	(2) 경제활동의 중심지	▷ 화폐의 필요성만 제시되었지 화폐의 다른 기능은 나오지 않아 화폐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시키기 어려움
상호의존	4-1	2. 우리시·도의 발전 ~	2) 서로 돕는 경제 생활	(3) 서로 도움을 주는 경제 활동	▷ 원활한 교환과 수출, 수입을 위해선 우수한 품질을 개발해야 함을 같이 제시해 주어야 함(경쟁)
시장 (시장과 가격)	4-1	2. 우리시·도의 ~	2) 서로 돕는 경제 생활	(3) 서로 도움을 주는 경제 활동(p80)	▷ 물리적 시장(남대문 시장) 외에 외환시장, 금융시장 등 시장의 개념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가격 (시장과 가격)	4-1	2. 우리시·도의 ~	2) 서로 돕는 경제 생활	(3) 서로 도움을 주는 경제 활동	▷ 가격의 개념 정의나 가격의 기능을 설명하지 않음

관련개념	학년	단원	주제	제재	분석 내용
소득분배	4-2	3. 가정의 경제 생활	1) 다양한 생산 활동과 가정의 소득	(2) 가정의 소득을 얻기까지	▷ 생산요소의 양과 질의 차이가 소득의 격차를 가져옴을 알게 해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역할	4-1	2. 우리 시·도의 ~	1) 우리 시·도의 자원과 생산활동	(3) 공공 시설을 내 것처럼 (p64)	▷ 공공재는 공공시설물 외에 용역(서비스) 측면도 포함됨을 제시해야 함
절대 우위, 비교 우위, 무역장벽 (국제경제)	4-1	2. 우리 시·도의 발전 ~	2) 서로 돕는 경제 생활	(3) 서로 도움을 주는 경제 활동	▷ 무역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나친 자국의 이익 추구는 국제간 경쟁 및 세계 경쟁을 어렵게 만든다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이해시켜야 함
	5-2	1.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2)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경제	(1) 세계를 향한 우리 경제	
경제적 형평	3-2	3. 살기 좋은 우리 고장	1) 고장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이 부분에서만 생활보호 대상자 돕기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을 뿐 교과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배려하는 장면을 찾기 어려움 ▷ 기업의 사회적 환원이나 사람들의 기부하는 모습, 국가 차원의 도움 등이 곳곳에 나올 필요가 있음
경제적 자유	5-2	1.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1) 우리나라 경제 생활의 특징	(1) 자유와 경쟁	▷ 단순히 자유와 경쟁의 의미, 이점, 유형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유와 경쟁이 개인의 창의성을 개발시키고 생산능력의 증대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됨을 이해시킴 ▷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함을 입증

관련개념	학년	단원	주제	제재	분석 내용
경제성장	5-2	1.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1)우리나라 경제 생활의 특징	(2)우리 경제의 발자취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개념 정의가 필요함. 교과서에서는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음
	6-1	3. 대한민국의 발전	2)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3)한강의 기적에서 통일로	

5. 현장의 목소리 :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7차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은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구체적 조작기는 7~11세까지로 보았으며, 구체적 경험에 의한 사고와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구체물이 없는 추상적 상황에는 논리 조작이 어렵다고 하였다. 반면 형식적 조작기는 11세~15세로 보고, 구체적 자료가 없어도 추상적으로 추론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형식적 사고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단계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 인지가 발달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 조작기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있고, 새로운 개념을 구체적인 예나 구체물로 설명하였을 때 쉽게 이해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 7차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삽화와 예시가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3.가정의 경제생활 부분의 경우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을 현수에게 토요일 오후에 할 여러 가지 일 중 선택하는 일 즉, 효율적 측면만 부각되어 제대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수가 선택해야하는 상황 그림으로만 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기회비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어린이 경제원론 책에 있는 삽화와 같은 삽화를 넣었을 때, 그 삽화만으로 어떠한 상황과 경제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더 효과적으로 수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 개념을 이해시키고자 할 때 제시되는 삽화나 예시가 좀 더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제시되어야 하겠다.

둘째,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제의 용어와 경제 활동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 자료가 부족하다. 사회 과목은 특히 학생들의 선호하지 않는 과목 중 하나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경험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사회과 단원이 끝날 때마다 제시되는 선택 학습의 경우 대부분이 조사학습 또는 토론학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 활동으로 제시하였으면 한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부루마블 게임을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문화상품권이나 대형마트 상품권 같은 예시 자료를 주고 학생들에게 그 쓰임새를 알아보도록 하는 등 활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자신에게 맞는 혹은 학급 특성에 맞는 경제 활동을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선택 학습에 다양한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리단계에 필요한 자료제시가 미약하다. 모든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단계이다. 수업시간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고, 알고 있었다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바로 정리인 것이다. 하지만 사회 과목에서 가장 미약한 부분이 바로 정리단계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의 창의적이고 통합적 사고에만 초점을 둔 결과 주입식의 교육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새로운 개념이나 알게 된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개념 정리라든지 단원에서 알게 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리 부분을 한 페이지 정도 할애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8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내용 요소

(1) 지적재산권(사유재산)

현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서 정보가 곧 돈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서로 공유하며 사용하던 정보를 지금은 재산으로 규정하여 지적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지적 재산은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해 주어야 하며 사람들 스스로가 보호하고 존중해 주어야만이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정보와 지식이 창출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슈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정보 유출이 만약 실행되었었다면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을 것은 물론 국가의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복제와 복사물에 대한 범죄의식이 미흡한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정보유출 및 불법 복제는 정보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어릴 때부터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지적 재산은 무형의 재산이지만 특허 등을 통해 유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도 알게 함으로써 아동의 창의력 증진 및 발명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2) 긍정적인 부(사유재산, 영리추구, 상호의존, 기업가의 혁신)

우리나라는 반부자,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다. 이는 오로지 자신들만 잘 먹고 잘사는 식의 이기적인 이익 중심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 및 이익창출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부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며 당위성을 획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기부 및 사회 환원에 대한 당위적 교육을 시켜 부에 대한 오개념을 탈피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유 재산에 대한 올바르고도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돈 개념의 확대(돈, 신용)

돈은 화폐에서 수표, 상품권, 신용카드 등 그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사이버머니’로서의 돈이다. 현 초등학생들은 사이버머니를 돈과 동일시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하루에도 몇 십만 건의 사이버머니가 오고 간다. 어른들보다 아동들에게는 사이버머니가 훨씬 유용하게 느껴진다. 아바타의 옷을 바꾸어 주는 사소한 것부터 인터넷 또는 전화로 결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돈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결제를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받아도 온라인으로 캐쉬로 전환하여 게임에 사용하는 등 사이버머니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사이버머니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사이버머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동반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부모님 몰래 이루어지는 결제 등을 어린이들 게임이나 장난 보듯 대수롭지 않게 바라본다면 이제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크나큰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사회면 기사로 가끔 나오듯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자살로도 이어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 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 속에 넣어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4) 노인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직업) : 노동 인구의 확대

일하는 남성에 대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많이 듣고 보고 느끼며 자랐다. 그런 교육과정 중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잠재 노동력인 노인과 여성에 대한 교육이 부각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현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선 노령 인구를 노동 인구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는 일하는 사람으로 노인을 그리고 있지 않다. 노령이 되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도

록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 수명에 맞추어 지금처럼 연금이나 받고 안주하는 소극적 노후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차세대 아동들에게는 적극적으로 70~80살이 되어도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여성은 우선적으로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 집에서 일하는 전업주부 역시 연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종의 토탈 서비스직임을 인식시켜 노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해야 여성들이 보다 진취적인 경제인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는 정서상 가장 민감한 시기이므로 우선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의 주부로서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김으로써 자신의 자아존중감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을 설계할 동기도 갖게 될 것이다. 현 사회는 신체적 노동이 아닌 지적 노동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대졸 여성이 급격히 증가한 이 시점에서 대졸 여성 인력의 활용은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동보육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와 인력을 충원하여 직업여성의 특성상 결혼 시기가 늦고 많은 자녀를 출생할 수 없다는 여건에 맞게 탄력근무제와 자녀 양육에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어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겠다.

< 토론 3 > 신무선(서울 가락중학교 교사)

1. 중학교 미시경제 교육과정

(1) 경제 활동과 경제 문제

가. 경제 생활과 합리적 선택

- 1) 경제 활동은 다양한 욕구뿐만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2) 경제생활을 생산, 분배, 소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제 활동이 경제학적인 용어가 아닌 일상생활의 일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나 시각 자료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경제 활동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경제교과 영역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경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경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3) 경제 문제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반해 이를 만족시킬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부족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경제학 이론에서 빠짐없이 나타나는 ‘희소성’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 개념이 무의미해진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경제학의 기본전제인 ‘희소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원이 무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아무런 자원 없이 무한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문화, 인터넷 문화 세대인 중학생들에게 희소성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 4) 선택에는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소비에 사용되는 비용과 그 비용으로 얻게 되는 편리성과 만족감 등이 고려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5) 비교우위에 대한 내용은 7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고등학교 학생들도 비교우위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들면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중학교 학생들에게 비교우위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개인의 소비와 저축

1) 저축, 신용관리, 신용 불량 등의 개념이 다루어진다면 금융기관과 관련된 개념들이다, 저축을 하면서 소득의 일부를 장롱 속에 두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 폰뱅킹, 자동 이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금융기관을 실제로 드나들면서 거래를 경험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의미, 종류 등),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신용카드 발급 방법, 사용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은행예금과 주식투자의 사례 학습에서 연초의 투자액 대비 연말의 투자 회수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간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능을 습득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투자수익률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계산하기가 어렵고 해당 상품의 수익률은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바로 계산 비교가 된다.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상품마다 수익률, 위험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생산자의 생산 활동

1) 단순 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되어 매출이 늘고 이윤이 커진다는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가장 좋은 제품은 우수한 품질, 값싼 제품이다. 그런데 값싼 제품을 생산했을 때 기업의 이윤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요즘 기업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들은 고가품이 아닌가?

2)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 이윤추구의 성격,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종류 등이 주로 소개되어 있다. 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이 부족한 학생들이 자칫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반기업, 반재벌적인 정서가 팽배해 있는데 이윤추구과정에서 일자리 제공, 세금 납부, 다양한 사회적 공헌 등이 있다는 것도 부연할 필요가 있다.

(2)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

가. 시장과 가격 결정

나. 시장 가격의 변동

1)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해 가격이 변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균형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불균형이 초래되고 그로부터 가격의 조정 과정이 진행되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는 언어적 설명만으로 과연 가격 변동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어차피 이에 대한 언어적 설명이 주어진다면 수요곡선의 이동, 공급곡선의 이동을 이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언어적 설명만 있게 된다면 학생들이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주어진 내용만을 암기하는 공부가 될 소지가 있다.

2)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이용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고등학교에서도 외화의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 시장과 정부

- 1) 우리나라 소득 분배 구조 변화 추이 조사,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종류와 실태에 대해 외국과 비교하여 조사하고 탐구하도록 한다. 요즈음 학생들이 자료 수집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인데 웹 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이 통계청이나 각종 경제 연구소 등에서 생산한 자료들이고, 그 자료들은 전문가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 자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자료들을 접한 중학생들이 교과서가 요구하는 자료들로 가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외국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를 제시하고 서로 비교하게 하는 것이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

(3) 국가 경제의 이해

가. 국내 총생산과 경제 성장

- 1) 경제 성장의 의미와 경제 성장의 요인을 파악한다.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자료를 이용하여 (중략) 1960년대와 2000년대의 한국, 필리핀, 브라질 등의 일인당 GNI를 비교한다’. 이 내용은 경제성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지만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다. 고등학교 심화선택과정에서 다루면 좋지 않을까?

나. 실업과 인플레이션

- 1) 경기 안정, 시장 기능의 정상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실시 등 정부의 역할을 소개한다면 구체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경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심화선택 “경제”에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예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의미 정도는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I. 결 론

1. 각종 경제현상들을 추상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주변의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2. 외부효과, 기회비용, 비교우위, 외화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환율의 변화, 소득 재분배 등은 학생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개념들이다. 중학교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시장경제체제의 특징, 작동원리,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체제인 수정자본주의(혼합경제제도)의 특징, 문제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중학교 3학년 경제 관련 수업과 고등학교 1학년 공통사회 경제 관련 단원, 심화과정 경제 과목 수업과 연계성이 있도록 교육과정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5.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를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②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관련된 사례를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 직접 조사해 볼 수 있도록 ③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조사해 볼 수 있도록 ④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고 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종류와 실태에 대해서 외국과 비교하여 조사하고 등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실제로 중학생들이 경제 통계 자료를 찾기에 어려움이 많다. 학생들에게 직접 조사하여 탐구하게 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빈칸을 메워나가는 형식을 도입하는 것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6.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이 통합교과이다. 따라서 전공과 상관없이 한국지리, 세계지리, 국사,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지도하고 있다. 경제 영역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고, 역사·지리 전공 교사들이 경제 분야를 지도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예를 든다면 교사용 지도서를 편성할 때 비전공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7. 앞으로 국정교과서는 모두 사라지고 검인정 교과서만 존재한다고 한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지겠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명시적으로 지침이 만들어 질 경우 출판사(교과서)마다 교재 구성과 수록되는 내용이 달라서 무엇을 어디까지 지도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제 관련 단원과 내용에 관한 표준안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8.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지나치게 경제원론적인 이론 교육보다는 경제교육과 관련 있는 금융교육, 투자교육, 소비자 교육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9. 교육과정 설계 시 몇몇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논의만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 현장 교사들의 참여, 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시 중학교 학생들은 물론 중학교 과정을 거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조사를 시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 토론 4 > 김상희(서울 수유중학교 교사)

□ 경제 교육은 경제학 교육인가?

새로이 제시된 중학교 경제교육과정을 보면 주류경제학의 내용체계를 비슷하게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미시에서 거시로 나아가는 형태나 그 내용 요소를 살펴봐도 그러하다. 7차 교육과정의 「Ⅱ.민주 시민과 경제생활」 단원에서, 시민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바로 잡고, 기업가가 건전한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 납세자로서, 여론 형성자로서, 선거권자로서 경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시민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민주적인’ 경제 생활에 대해 다루려 노력한 부분이 상당히 약화된 대신 거시경제학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경제 교육은 경제학 교육인가?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사회과의 성격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이다. 사회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민주 시민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새로이 제시된 중학교 경제교육과정은 사회과가 가르치고자 하는 민주 시민의 함양 즉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학생에게 가르쳐야 하는 경제

교육이란 대학교육에서 행해지는 경제학 강의의 축소판은 아니다.

※ 이론적 접근을 지양하고 실생활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관점은 긍정적 시도로 평가될 수 있겠다.

□ 1. 경제활동과 경제문제 - 1) 경제생활과 합리적 선택

① 다양한 욕구의 해결을 위해 생산, 분배,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 생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욕구의 충족(소비)에 있으며...

욕구와 함께 필요에 대해 언급하여 욕구와 필요를 구분하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찾아 올바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새로이 제시된 교육과정 「1-2) 개인의 소비와 저축」 단원에서 “합리적인 소비란 진정 자신이 원하는 소비에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 대한 파악과 구매의사결정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에 ‘진정한 욕구’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욕구와 필요를 구분하고 광고 등에 의해 조장되는 욕구를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서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적극적인 의미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욕구가 언급되는 부분에서 이 욕구가 부풀려지는 면이 있으며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이를 구분해내고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멀쩡한 핸드폰을 두고도 화소수가 높은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으로 교체한다거나 같은 기능의 학용품이 있음에도 브랜드가 있는 고가의 학용품을 찾게 되는 것 등 요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학습자들의 실생활과도 맞닿아 있는 예를 찾아 제시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② 합리적인 선택을 통한 경제문제의 해결 과정을 이해한다. 기회비용을 확인하며,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결론을 얻어낸다.

기회비용은 다분히 주관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때문에 논쟁적으로 서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 1-2) 개인의 소비와 저축

③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행동 원리를 탐구한다.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설명할 때 한계효용과 같은 경제이론적인 설명을 피하고, 후회하지 않는 소비를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소비행동 지침의 탐구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한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바람직한 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④ 재산의 다양한 보유 형태, 재산의 투자에 따르는 수익과 위험에 대해 알아본다.
저축을 통해 재산이 형성되며, 재산은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의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운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재산을 운용하면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 줄어드는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를 은행예금과 주식투자의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일정한 원금을 은행에 저축할 때의 안정적이지만 낮은 수익, 주식에 투자할 때의 높은 기대 수익과 동시에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는 위험을 실제적인 (혹은 가상적인) 투자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연초의 투자액 대비 연말의 투자회수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간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능을 습득한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 불필요하게 자세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고할 필요가 있다.

□ 1-3) 생산자의 생산활동

교육과정은 한정된 지면과 시간 내에 어떤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제시할 것인지를 취사선택하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시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적절한 것인가?

새로이 제시된 경제교육과정에서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관한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 대부분이 기업가가 아닌 근로자(노동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동자를 생각할 때, 과연 본 경제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적절한 비율로 구성된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근로자(노동자)로서 사회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이나 통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반면 기업가가 생산요소를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과정을 파악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친숙한 감정이 형성되도록 한다고 언급한 부분이나 이윤을 기업가의 생산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및 생산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로서의 가르치도록 한 부분은 다분히 친기업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 분량을 비교하여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근로계약의 준수, 그리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근무태도와 같은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의무와 함께 언급한 한 문장밖에 없는 반면, 기업가에 대한 내용은 2페이지를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그 내용 속에는 “많은 이윤을 얻은 기업일수록 소비자와 사회를 위해 기업가로서 더 바람직한 생산활동을 한 결과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다소 위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경영윤리는 삭제된 대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만이 모호하게 남아 있다.

더 많은 학습자들이 근로자(노동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두 가지 입장에 대해 공정하게 실어줄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닌가.

□ 2.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1) 시장과 가격 결정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원이기는 하지만 ‘균형가격’이 ‘공정가격’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과부족이 해결된다는 것은, 실지로 구매력이 없어 좌절된 수요는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수입이 가격에 미치지 못해 사지 못할 뿐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균형가격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좌절된 수요는 그대로 무시해도 되는가.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었음에도 소유율은 30%를 못 미치는 곳도 많다. 서술 자체를 달리지 못하더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 짧게나마 언급해주면 더욱 현실적인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 2-2) 시장 가격의 변동

①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해 가격이 변하는 과정을 파악한다.

... 환율, 임금, 이자율 등도 가격의 일종으로서 외환, 노동력, 자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이용하여 결정됨을 단순히 언급한다. 이 가운데 환율에 대해서는, 달러는 하나의 상품이며 환율은 달러라는 상품의 가격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이용해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이 있게 되면 그로 인해 달러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어떤 변동을 겪게 되며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환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로서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해외여행 비용이나 유학 비용 등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 탐구한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해 가격이 변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환율, 임금, 이자율 등까지 언급하는 것은 중학교 수준에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 제 4장 중학교 교육과정 거시 영역

이론의 전개를 지양하고,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폭넓게 제시하여 경제성장, 실업, 인플레이션 등 기본적인 거시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경제학원론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보인다. 또한 중학교 경제 영역에서 다루기에는 시수 확보도 힘들고, 내용도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 토론 5 > 정창욱(경남 탄성고등학교 교사)

사회과 교사에게 교육과정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사회과 교육을 비로소 실행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 사회과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주제와 관련지어 말하자면, 경제를 “왜 가르쳐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가르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일곱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만 강조하는 이벤트성의 느낌을 제공하는 듯하다. 특히 사회과는 사회 분위기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세 영역(일반사회, 국사, 지리)간의 이해득실의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더불어 교실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의 선언적 수준에 맞춰 수업을 진행한다 보니, 사회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향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혼란에 빠져들기도 했다.

현행 경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문제점은 2005년 10월 경 ‘초중고 사회교과서 경제단원 내용 검토’라는 주제로 경제전문가의 문제 지적과 그에 따른 수정 보완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경제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듯하다. 분명히,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여 내용 배치와 계열성을 확보한 흔적이 있으며, 실생활과 이론의 조화,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는 고무적인 방향 설정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발달단계를 고려한 내용 선정의 원칙을 고려하면서, 흥미성, 학습가능성, 현실성 등에서 너무 간략하게 소개되어 전체적인 내용 수준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초·중등학교는 너무 어려워지고, 고등학교는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흐름이므로 반드시 해

야 하며, 더불어 발생하는 양극화에 대해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대처하자는 정도로만 이해된다.

우선, 초등학교 경제교육과정을 보면 기존에 비해 개인과 가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이 보다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시와 거시 경제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다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은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초등학교 교사 중에서 경제 전공 교사는 드물 뿐만 아니라 경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가르치기란 더욱 그러하다. 그러다 보니 경제 영역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어려워하고, 그 결과 단지 지식 전달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계속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③ 생산의 의미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표현은 상당히 난해하며, 특히나 교육과정 상에서 이런 식의 언급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결국 혼화식 혹은 방법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해도 생산과 소비를 학습하는 영역에서는 다소 어색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6학년 단원의 경우 ④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확인한다는 부분에서 그 취지는 기능적으로 필요한 요소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의 추이, 총수출 추이, 국가별 수출 추이 등을 제시할 때의 사례에서 방안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즉, 이 부분은 경제에서 초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로 그래프를 보고 읽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됐는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등에 궁금증을 갖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준 다음 그래프나 통계 분석 등의 작업을 해야 의미 있는 경제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경제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기존 교육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충분히 재

미있고 참신하게 구성하며 흥미 있게 경제 개념을 생활에 접목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실제 생활 속에 드러난 내용 소재를 수업 방법과 연계하여 경제적인 의사결정과 창의적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것이 초등경제교육과정의 목표로 이해된다.

이런 점을 볼 때, 지금 설계한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반복되고, 배치가 잘못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 외에 금융 부분에서 신용, 경쟁, 혁신 등의 내용을 추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 설계교육과정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준별 학습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폐지가 된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경험 수준, 지적 수준, 학습 흥미의 차이가 심하므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중학교 경제부분은 전체적인 구성에서 6차 교육과정으로 되돌아 간 듯 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6차 교육과정 내용보다 ‘더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다. 학생 기준으로 볼 때, 간신히 중학교 3학년 사회를 재미있고 할만한 과목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잘못된 길을 다시 돌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경제교육과정의 시안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3학년 경제부분은 구성의 골격이 각 경제 주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것이 특징이고, 우리나라 경제 교육과정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며, 소비자, 생산자,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구실과 역할을 주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학문 중심이 아니라 현실 경제 문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본 주제의 경제교육과정 시안에도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2)개인의 소비와 저축, 3)생산자의 생산활동].

물론 제7차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즉, 각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합리성’보다 ‘윤리성’에 초점을 둔 점, 고등학교 1학년 경제 및 심화과정 경제 과목 수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등등이 있었다. 그렇다고 현행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내

용을 중학교에 갖다 놓으면, 연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다. 지금 시수를 줄이고 내용 분량을 줄이자는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5-3-4 학제안이 제시되는 시점에서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는 느낌도 있다.

이번 중학교 경제교육과정의 개정 취지 내용을 다음과 같다고 언급하였다.

중학교 경제교육과정 기초설계 안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경제 내용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개념화하여 학습하며 중학교 거시 단원에서 국민 경제에 대한 학습의 기초 부분 중 관련되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나선형 반복 심화 학습의 원활한 징검다리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한다(p.13).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옛날식으로 암기시키고 억지로 하게 함으로써 사회(특히, 일반사회)는 따분하고, 재미없고, 어렵고, 하기 싫은 과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경제에 대한 의미와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한 차례 언급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단계에서는 서술을 피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학생들의 인지 발달상 과거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학습이 가능하겠는가? 문제이다. 또한 경제교육과정 상에서 문장의 애매모호함과 오류를 갖게 하는 요소도 있었다.

-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임을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지 않는 선택의 경우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한다. (p.15)에서 기회비용의 최소화라는 의미가 어색함.
- 소득의 증대, 대체재 가격의 변화, 기호의 변화, 기대의 변화 등으로 수요가 확대(축소)되면 시장 균형가격 수준에서 초과수요(초과공급)가 발생한다. (p.26)에서 초과수요라는 표현보다는 수요증가라고 고쳐야 함.

- 수요곡선의 이동이나 공급곡선의 이동을 이용한 설명은 중학생 수준에서 어려우므로 피하도록 하고 …(중략)… 언어적 설명을 통해 가격의 변동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한다. 에서 수요·공급곡선의 이동을 과연 그래프 외의 방법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평가 문항을 제작할 경우, 곡선의 이동과 관련된 그래프 문항이 쉽게 출제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 GDP를 언급하면서 일인당 GNI라는 용어를 이용하는 문제 (P.33, 36)
- 실물과 화폐 흐름을 나타낸 그림의 오류(P.35)
-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국내에 외국 화폐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환율이 하락함을 이해한다. (P.36)는 문장은 달러의 공급 증가로 환율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러한가?

초·중등 경제교육과정을 붙여보면, 경제교육 차원에서 언급되기보다는 경제학 지식을 학습시키려는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학교급별로 거쳐서 할 것이 아니라 인지 수준이 가장 발달한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내용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며 이론에서 출발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보다도 학생 수준과 부담을 먼저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의 내용은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주제 중심의 구성이다.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11학년 심화선택과목인 ‘경제’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인 경우에, 고등학교 경제교육은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보다 더 취약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차라리, 경제 문제 중 중시해야 할 이슈를 5~6개정도 선택하여 미시 영역과 거시 영역으로 나누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학습 단원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

을 듯하다.

그리고 초중 부분은 본 토론자가 사실상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기에 포괄적으로 언급을 하였지만 고등학교 부분은 적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문장 서술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화와 지역화를 구성하면서 의도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익-비용의 관점에서 자유무역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 시안의 주제 진술 내용은 오히려 자유무역이 시대의 대세이니까 하지 않으면 안되고, 여기에서 낙오되면 패배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화가 전 세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경제적 관점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II.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내용 요소 중, 자유무역의 이해득실이라는 용어는 자유무역의 장단점 혹은 손익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적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중략)… 보여진다’에서 지구적 경향이라는 용어와 보인다. 보여진다라는 말이 상당히 어색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략)…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하략)’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법 등을 언급하였는데, 반복 서술되고 있으므로 간단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시에 세계화하기는 어려운 현실(p.42), (2) 단원 목표에서 ① 세계화의 진행 상황, ② 득실, ④ 이뤄짐, ⑤ 기여를 이해한다. ⑥ 외국 노동자, ⑦ 부자나라, 가난한 나라, 도덕적 의무 등은 표현의 문제, 용어의 통일성, 적절성에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가령, 단원 목표에서 ① 세계화의 진행상황은 무역장벽 제거 정도에서, ② 무역자유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⑤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 정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환율과 국제 수지, 남북 문제, 무역 분쟁, 환경 문제, 자원문제, 문화의 상품화 등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 단원의 내용 요소와 설명 범위에서 추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어 있고 그 중 국내 진출 외국인 노동자 규모 추이라는 표현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② 세계화시대에 자유무역의 득실을 파악한다는 내용 서술에서 다른 경제계층(?), 초래한(→일으킨), 영상(→대중문화)이라는 문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언급된 사례도 중요하겠지만,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자유무역에 동참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③ 지역화의 구체적인 형태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유무역협정은 경제블럭화 현상으로 보며 세계화의 기초적인 형태라고 여겨지는데, 지역화의 형태로 단절시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나라’, ‘이해득실과 이해득실 계층(?)을 파악한다’도 어색하게 여겨진다.

④의 단원 목표는 분리하여 ①의 목표 앞에서 세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⑤에서 국내 진출 외국 기업들의 우리나라 경제 기여를 이해한다고 표현한 점도 어색하지만, 왜 기업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이 세계화 시대에 전체 국민의 복지 증진에 주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외국자본의 문제 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파악도 중요하지만, 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⑦에서 일인당 소득은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라리, 빈곤국을 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의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추가적으로 국가 내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서 시장경제, 경쟁, 세계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강조해야 함에도 그러한 측면을 엿보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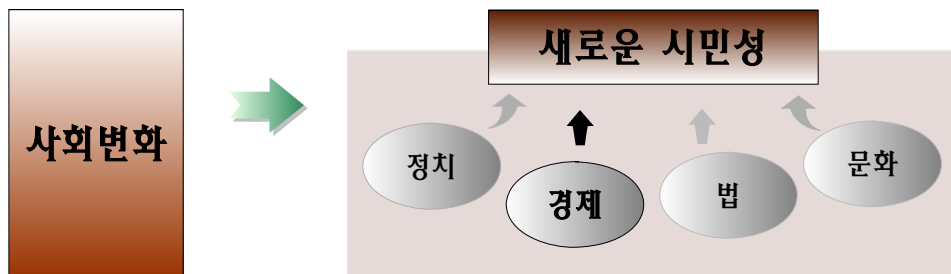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해, 구체적인 내용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교육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이 토론자로서 갖출 자세는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문장 서술과 구체적인 교육과정 내용 요소마다 담겨질 내용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 전문가들과 현장 교사간의 협의를 많이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 토론 6 > 유지후(대전 대성고등학교 교사)

현행 10학년(고교 1학년)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11, 12학년의 심화학습 단계로 진행하기 이전에 기본교양으로서 10학년까지의 교과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합리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적 능력을 마무리한다. 인문계를 선택하고 또 경제를 선택한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에게는 경제를 접하는 마지막 단계가 된다. 학생들이 현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문계 학생의 경우 ‘경제’를 선택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때문에 10학년의 ‘사회’ 교육과정은 첫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효용성이 있고, 둘째, 학습자들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셋째, 사회적 경제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고 넷째, 사회현상의 변동을 반영하며, 다섯째,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를 갖고 탐구하고 싶도록 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수의 일반적 수준의 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경제 교육과정의 역할



1. 운영모형 : 주제중심

효과적인 사회수업이 되기 위해 ‘주제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더하여 정치, 문화 등 다른 분야가 함께 통합된 주제 중심 학습으로 구성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과 내에서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교과 통합에 따른 여러 현실적 어려움으로 현행 10학년 교과서는 정치, 경제, 문화, 지리의 형식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능력을 높이고,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 중심의 접근법을 경제 단원 내에 한정하지 않고, 단원 간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 단원 간 총체적 연결성이 고려되지 않아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를 주제로 할 경우, 경제단원에서 스크린 쿼터에 대한 시각과 문화단원에서의 스크린 쿼터에 대한 시각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내용이 분산되어 있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는 혼란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경제를 포함하여 정치, 문화를 함께 살펴보는 주제중심 접근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사회현상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경제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설계되었으면 한다.

2. 교과내용 : 세계화와 지역화

경제의 기본문제에 대한 기초 내용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10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선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서 기초교양에 대한 최종 정리가 이루어진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경제의 기본개념에 대

한 내용이 중학교에 배정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축소하여 일부라도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것과 전혀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일반적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기억하고 이해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경우는 많지 않다. 경제적 판단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본적 경제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이 반복될 필요가 있다. 선행학습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분량과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여, 고교과정에서도 경제 기본개념이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주제선정 : 지나치게 논쟁적 내용

‘사회’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주제로 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상황주도력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화와 지역화는 우리를 둘러싼 피할 수 없는 변화양상이다. 모두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에 교과내용으로 채택되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단원의 내용은 현실 경제에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토론과 고민의 과정을 넘어 현실적으로 공교육 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이 되면 이것이 평가와 연결되어 특정 방향의 정답으로 편향되어 지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이 같은 논쟁성이 강한 주제의 경우 개별 교사의성향에 따라 학습의 내용에 편차가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난이도 문제

경제는 어렵고 피상적인 과목이라는 생각이 굳어질 수 있다.

현행 교과내용 중 중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환율이다. 단원의 특성상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들이 평소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어렵고,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화와 지역화’ 단원의 경우 주제 자체가 실생활과 거리가 있어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

고, 이것은 경제 분야 자체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중학교에서는 종전과 동일한 제한된 교과시간에 많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여유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고등학교에서는 단원의 난이도에 따른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중학교에서는 내용이 많은 여유 없는 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

5. 단원의 중복

단원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단원과 차별화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

단원명은 단원 학습의 최종적인 지향점이며, 학습목표의 압축으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와 지역화’는 전 사회과 영역에서 나름의 접근을 하고 있으며, 현행 교과서 속에서도 지리부분에 동일한 명칭의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단원이 있다. 또한 문화 부분에도 거의 같은 문구가 단원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덕교과도 그러하다. 본 해당 단원은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시대 현상에 대한 경제적 고찰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단원명에 압축되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6. 교과내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

본 교육과정과 같이 주제중심으로 현안을 다룬 수업의 경우 교사의 수준과 준비도, 의식에 따라 수업의 내용과 질에 많은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 수업의 질을 높이고, 현장감 있는 수업이 모든 학습자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 자료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 토론 7 > 김종호(서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1.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 체계화의 문제점

초·중·고 학교교육에서 경제교육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 되어 왔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KDI 주관으로 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 경제교육의 이론적 내용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총론적으로는 모두 동의하나 막상 어떻게 구성하고 체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각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치곤 하였다. 그 첫째 이유가 경제과목이 초중고에서 독립과목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현재 경제내용은 3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사회과 속에 지리, 역사 등의 과목들과 함께 통합되어 지도되고 있다. 중 고등학교는 경제 내용이 사회과 교과서에 별도의 단원을 설정하여 그나마 어느 정도의 체계화가 가능하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통합화의 성격이 강하여 경제영역만을 따로 떼어내 체계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는 형편이다.

둘째로는 학교 경제교육 방향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제이다. 학교 경제교육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크게 두 방향이 있다. ‘경제 생활 교육’과 ‘경제 이론 교육’이 그것이다. 경제는 학습자 생활 주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학습자 생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학습내용을 선정하면 경제 내용의 이론적 체계화와는 자연히 어렵게 되게 마련이다. 반면 경제 이론 교육에 충실하다 보면 학습내용의 체계화는 용이하나 대신 통합화의 지향이라는 현대 교육 사조에서 벗어나는 문제점을 맞게 된다.

이로 인하여 경제교육의 체계화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공론화된 일은 없었다.

II. 각 학급별 경제교육 과정의 내용체계 안(案)에 대한 견해

(1) 초등학교

경제교육의 내용 체계화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 초등학교는 미분화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과의 모든 영역이 가정과 고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 중심으로 통합화 되어 있다. 따라서 한 단원에서 고장 생활이나 국가 생활의 공간적 상황에 지리, 경제, 문화 등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묶어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과의 최근 경향인 생활 중심의 통합화의 사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영역만을 따로 분리하여 내용요소를 체계화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1> 초등학교 경제 교육 내용(안)

대단원명	내용 요소
경제 활동과 선택	경제 활동, 욕구, 희소성, 기회비용, 상충관계, 합리적 선택, 생산과 생산자, 생산요소, 분업, 특화, 생산성, 상호 의존, 소득, 소비와 소비자, 수요와 공급, 저축, 돈, 금융기관, 이자, 신용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	시장 경제, 경쟁, 사유재산, 영리 추구, 인센티브, 가게, 기업, 정부, 경제 순환, 세금, 경제 성장, 수출, 수입, 실업, 국제 거래, 상호 의존, 기업가의 혁신, 기술 개발, 창의적 사고

통합적 사회과 교육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또한 각 단원 목표로 제시된 것들은 철저하게 경제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런 식의 단원 설정은 구현되기도 어렵다.

본 연구에서 특기할 점은 금융을 소개했다는 점이다. 그간 이 분야는

중요하면서도 학교 경제교육에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이런 영역은 앞으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필히 반영되어야 할 요소라고 본다.

(2) 중등학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도 이론 체계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다. 중학교 과정을 미시와 거시로 나누고 각 내용을 <표 2>로 정리하였다. 아래 <표 3>는 경제 관련 현행(7차)의 내용 체계이다.

<표 2> 학교 미시 및 거시 경제 내용 체계(안)

대단원명	중단원명	내용 요소
경제활동과 경제문제	1. 경제생활과 합리적 선택	경제활동, 희소성,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분업, 특화, 상호의존성, 비교우위
	2. 개인의 소비와 저축	소득, 소비, 저축, 신용 관리, 재산 관리, 수익, 위험
	3. 기업가의 생산활동	기업, 기업가, 생산, 생산요소, 이윤, 혁신, 기업가정신, 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1. 시장과 가격 결정	시장, 수요, 공급, 수요량, 공급량,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시장균형
	2. 시장가격의 변동	수요의 변동, 공급의 변동, 가격의 변동, 가격의 기능
	3. 시장과 정부	공공재, 조세, 정부 규제, 소득 재분배
국가경제의 이해	1. 국내총생산과 경제 성장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의 순환, 경상수지, 경제성장, 생산성, 경제성장률, 경기변동
	2. 실업과 인플레이션	실업, 인플레이션,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경제 안정

<표 3> 현행 중학교 경제 내용

학년	대단원명	중단원명
7	우리나라 각 지방 생활	1. 우리나라 중부, 북부, 남부 지방의 생활
	세계 각 나라의 생활	1. 세계 각 지방의 생활
9	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	1.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2. 경제 체제의 변천 3. 민주 시민의 경제적 구실
	시장 경제의 이해	1. 시장경제의 특성 2. 가격의 결정과 변동 3.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자원개발과 공업발달	1. 자원 분포의 이동 2. 자원의 이용과 자원 문제 3. 공업발달과 공업지역의 형성

<표 2>과 <표 3>를 비교해 보면 <표 2>는 경제학 이론에 미시와 거시 내용이 고루 다루면서 체계화시킨 데 반해 현행 교육과정 속에서는 경제내용의 소재가 사회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 2>가 이론적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본다면 <표 3>은 기능적 측면에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는 영역별 분과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경제 내용을 생활 속의 소재를 중심으로 하되 체계적인 이론적 접근이 동시에 고려되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3)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연구 안은 10학년에서 <표 4>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 5>는 현행 10학년 내용 중 경제와 직접 관련되는 단원만 발췌한 것이다.

<표 4>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안)

대단원명	내용 요소
세계화와 지역화	무역규모, 해외직접투자, 외국노동자, 자유 무역협정, 자유무역의 이해득실, 경쟁과 상호 의존성, 우리나라기업과 외국기업, 생산요소, 양극화, 해외원조

<표 5> 현행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경제 내용

영역	단원
인간과 공간	-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
인간과 시간	<국사>에서 - 경제구조와 경제 활동
인간과 사회	-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표 4>와 <표 5>를 비교해 보면 연구안인 <표 4>는 국제경제 영역을 학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제경제이론과 현실적인 외국과의 관련성을 많이 넣고 있다. 이론을 이해하면서 실재를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의 경제 내용은 여기에서도 역시 이론적 체계화는 보이지 않고 사회과의 한 부분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III.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학교 경제교육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내에서는 사회과 속에서 사회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경제 내용들은 경제학적 관점이 아닌 사회과 목표의 부분적 소재로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이번 연구안은 경제 이론에 따른 독자적 연계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이론적 체계화의 장점은 경제를 나선형적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으로 접근함으로써 효과적인 경제교육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교육의 목표를 ‘생활경제 중심’과 ‘학문 중심’ 중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달라진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속에서는 이론 체계화가 가능하나 생활 중심에 무게를 두면 이론 체계화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또한 이 연구안이 가능하려면 각 학년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경제 영역을 독립 단원으로 편성할 수 있든지, 아니면 경제가 독립적인 교과서를 가질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통합화 지향적 사회과 교육 상황에서는 경제 이론에 충실한 내용의 체계화는 보다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토론 8 > 권영섭(서울 대진고등학교 교사)

I. 내용체계

교과서는 현장에서 성서와 같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재미있게 이해시킬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즉, 대부분의 교사들은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비판보다는 교과서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경제 현상이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교과서는 기업과 노동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

벤처 대부였던 미래산업 전 사장 정문술씨의 경영 교과서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라고 한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정직해야 한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 남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자신의 회사를 도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교과서였다고 한다. 경제 교과서는 합리적인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 윤리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였지만 다른 부분의 내용 축소가 불가피 할 것이다. 현실 경제에서 주식, 부동산, 자영업 등의 사례를 관심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

II. 영역별 내용

(1) 경제문제의 이해

□ 학업의 목적은 자아실현에 있다. 경제 이론을 배워 장래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어 만족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문제를 개인의 자아실현과 연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

다. 많은 학생들이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핸드폰이나 용돈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경제이론보다 아르바이트 대가를 제대로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노동 기본권의 문제이다. 그리고 졸업 후 노동자나 자영업자로 창업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교육과정상에 창업이론도 일정 부분 언급하거나 탐구 과제를 통해서 수행평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장의 환경 분석, 아이템 선정, 마케팅을 통한 제품의 차별화 등은 사업계획서를 써 봄으로써 완벽하게 실물 경제를 이해할 수 있고 흥미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시장과 경제 활동

- 7차 교육과정에서 가격의 기능에 관한 내용은 많지만, 수요와 공급, 균형가격의 형성 등은 시간이 부족하였다.
-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의 예와 인재의 필요성을 다루었으면 한다. 새로운 직업의 등장, 핸드폰 벨소리 제작, 진로지도 컨설팅, 입시 지도 컨설팅 등(통계청 자료 제시).
- 경쟁에 따른 시장 형태를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3) 시장 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 기업가의 이윤추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식과 공헌을 같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기업가의 사회적 역할과 공헌은 양지라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지나친 이윤추구와 근로자와의 정당한 대화를 무시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책임은 음지이다. 따라서 기업가의 역할과 책임, 노동자의 역할과 책임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 제조물 책임법의 강화는 우리 제품의 수출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으로 자세히 언급하였다.

- 제조업자의 책임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주권도 같은 분량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개인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요구하는 권리에 대한 언급, 노사간 책임 있는 대화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예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예시로 다루면 좋겠다.
- 노동 시장의 유연화 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양면성을 동시에 언급해 토론의 방향을 제시
-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에서는 사회적 낙오자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4)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 시장 경제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시장 실패의 문제를 따로 분류한 것은 잘 되었다.
-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에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나타나는 아파트 값 급등이다.
-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규제의 어려움과 개인의 이익 충돌 시 바람직한 해소 방법에 토론이 필요하다.
- 집값 상승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노동의욕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 경제 주체들의 책임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외국 단기자본의 국내 기업인수 합병에 대한 국부 유출의 문제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법률의 제정 필요성도 언급이 되면 좋겠다.

(5) 국민 경제의 활동과 변동

(6)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 세계 시장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 무역 자유화에 대한 대응은?
- 환율을 통한 국가 간 자본이동의 사례를 제시
- 세계속의 한국 경제

세계화, 불확화의 추세에서 남북협력의 장·단점을 개성공단 사례를 제시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토지를 이용한 세계시장 개척의 새로운 대안이다. 즉, 통일의 필요성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토론하도록 제시한다.

< 토론 9 > 전대원(경기 남한고등학교 교사)

1. 개정안의 성격 및 목표

경제 교육 = 시장경제 교육

- 한국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이며, 따라서 이를 중점적으로 보는 시각을 견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 설정으로 보여진다.
- ‘시장’을 중심에 놓고 교과서를 구성함으로써, 내용 체계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각종 제도와 정부의 개입, 여러 사회적 상황들을 구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다만 당위적 측면의 강조는 그 자체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불필요한 거부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기본 골격을 이해시키는 것을 과정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 중점적으로 가르치도록 한다.
 - “제대로 터득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분명히 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2. 내용 구성

-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나 분석을 위한 내용 추가 필요
 - 대부분의 내용이 ‘인식한다’ ‘설명한다’ ‘이해한다’로 학생들이 경제를 대상화시키고 자신과 떨어져 있는 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
 -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체계적 학습과 시장 기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에 대한 경제 이론적 설명은 필수적이나, 여기에

서도 학생들의 능동적 태도를 강조할 필요

- 가령 기업가 정신의 고취는 시장경제에서 중요하므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동시장과 노동3권을 제도적 차원과 사회적 의제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대부분 노동자가 될 학생들이 경제를 대상화시킬 수 있음.
- 노동자가 되었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경우에 학생들에게 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이자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한 교육 내용도 필요

□ 시장 실패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능동적 태도 함양이 필요

- 시장 실패를 경제사적으로 조망하는 내용을 추가 필요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변천은 윤리와 세계사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법과 사회 등 기타 사회교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조망하지 못하고 있음.
-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빠져 있는데, NGO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고찰할 필요
 - 가령 시민단체의 활동을 반기업정서의 확산 차원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보의 유통이 시장 경제 질서에 긍정적임을 설명하고 시민단체의 활동의 방향성이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어떤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학생들 스스로 설정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사회과 체계 내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배제하거나 축소하기 보다는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통일 문제에서 남북한 경제력 차이의 설명과 장단기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제시와 함께, 통일 자체를 선택함에 있어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의 문제, 정치·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통

일이 추진된다면 경제적 차원에서 대비책, 블록화 경향 속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등 다양한 경제적 시각을 키우도록 하는 것도 필요

3. 보완점 정리

- 1) 교육 주체로서 현장 교사들의 정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2) 시장 경제에 대한 이론적 교육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화시키지 않으면서 능동적 태도 변화를 기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3) 사회과 전체 체계 속에 경제 교과가 있으니, 이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면 능동적으로 경제적 관점을 심어주려는 시도가 필요

< 토론 10 > 이혜정(대구 경북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는 말

한국경제(2005.10.14)는 정부·사회 무관심이 초·중·고 경제 관련 교과서 왜곡과 내용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고 경제교과서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경제·경영 전공 대학교수들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경제 교과서가 반(反)기업적, 반(反)시장적 입장에서 기술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6.9%가 동의('매우 그렇다' 15.8%, '그렇다' 41.1%)했다. 또 '현 경제 교과서가 반(反)기업 정서와 반(反)시장 정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62.0%('매우 그렇다' 15.8%, '그렇다' 46.2%)가 공감을 나타냈다.

토론자는 현장 교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난감한 경험을 종종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경제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이다. 기업의 이익 추구 행위는 부당한 것이며, 가난은 제도 탓이고 FTA체결은 농민들에게 고통만 가져다 줄 뿐이라고 학생들이 인식할 때, 그동안 편향된 시각에 치우쳐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

최근에는 현행 교과서가 시장 기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학생들의 반시장경제적 가치관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왜곡된 경제교과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원고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제대로 터득시키고자 “경제” 교과서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설계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II. 주제발표에 대한 소고

먼저 한국 경제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를 기축으로 하여 움직이며, 학교 교육은 세계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번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발표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경제 교과가 고등학교 심화·선택교과가 되면서, 경제는 무조건 어렵다는 생각이 팽배하여 학생들의 선택이 적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사회교과에서 경제에 관한 일부 내용만을 학습하게 되고, 그것만으로는 경제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현행 대부분의 경제 교과서가 기업과 자유시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낳지 못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교정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에 다다르고 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정부에 의해 방해받지 않은 기업과 자유시장의 작동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따라서 시장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어렵도록 인도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경제교과 내용체계를 I.경제 문제의 이해, II.시장과 경제 활동, III.시장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IV.시장실패와 정부 개입, V.국민경제의 활동과 변동, VI.세계시장과 한국경제의 6개 단원으로 구성하여 7차 교육과정과 달리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한 단원을 신설하여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돈을 더 잘 벌거나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는 등, 매우 현실적인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경제교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점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경제를 알고자 하는 관심은 높으나 책을 들춰 보는 순간 공부를 포기하고 만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온통 난해한 개념, 수식 투성이고 실생활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

이는 복잡한 이론들만 딱딱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에 중점을 둔 접근방식은 그 효과성이 높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7차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분업’의 문제와 국민경제 총소득의 지표로서 국내총생산(GDP)뿐만 아니라 국민총소득(GNI)을 추가한 점도 실제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이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중국, 아세안, BRICs의 부상, 쌍무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부분을 추가하여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많은 부분이 실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과거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생들의 눈높이 수준에서 즐겁고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경제교육에서 사업가 및 창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경제교육을 좀더 적극적으로 실행되었으면 한다.

III.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교육 현장에서 경제교육을 하다 보면 교과서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과서 외적 개선책을 제시해 학교 현장에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교과를 선택교과에서 필수교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교과서의 내용 왜곡은 7차 교육과정에서 경제교과가 선택교과가 되면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택을 많

이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교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교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 도달해야 할 경제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경제 마인드(economic mind)를 심어 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교과를 필수교과로 전환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관련 경제용어 및 문제를 제시하는 교과서 구성이 필요하다.

교과서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책의 내용을 디자인하는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에 관해 그다지 지식이 없거나, 잘 알려진 경제용어 이기는 해도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내용 중간에 경제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 이론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문제를 교과서에 첨가하면 경제 교육의 수월성이 확보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백번의 설명보다 문제 하나가 기본 이론의 이해를 돕는데 있어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셋째, 교사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완벽한 이해 없이 올바른 경제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경제 비전공자들이 경제교과영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용 지도서를 지금보다 더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교과서 내용이 경제학의 어느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를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수리적 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할 내용은 예시 문제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제시된 문제도 자세히 풀어 실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업 사례를 자세히 실어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제 교과를 지도하는 현장 교사의 커뮤니티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경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 재경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방대하다. 여러 곳에 분산

된 자료를 하나의 사이트에 모아 두고 교사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가공하여 바로바로 제공하며,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교사 커뮤니티의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계자료는 교과서의 특성상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존 자료의 틀에 맞추어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교과 학습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와 기업 환경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가령, 이 단원에는 이러한 체험활동이 적합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 준비(한국은행을 견학한다면, 견학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절차 등)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고 유의점은 무엇인지 등등의 사전준비에 따른 관련일지, 체험활동보고서, 성찰일지를 갖추도록 한다.

여섯째, 예화 및 플래시 등의 교과 자료를 개발하여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요즘 학생들에게는 ‘재미있는’ 것이 화두다. 그러므로 단원별 내용을 더 세분화하여 단순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확한 예화의 발굴도 필요하다. 사진이나 만화 등도 훌륭한 예화 자료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상 세대인 학생들의 집중도와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의 플래시 및 동영상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속적·집중적인 교사 연수 기회를 신설하고 확충해야 한다.

경제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경제 지식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교사들이 가진 이데올로기가 관건이다. 연수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현장 수업에서 가졌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여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사고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일선 교사들에 대한 전문기관들의 재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IV. 맺음말

“경제교과서와 현실경제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제교과과정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경제교육의 목표는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며,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경제 관련 교과서를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풍부한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일과,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제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제교육 활성화는 교사의 노력을 대전제로 한다. 그러나 교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기관의 관심과 행·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한 경제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경제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전환돼야 하며, 이론 중심에서 현실 경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체험학습의 기회가 확대되면 아이들이 경제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스스로 경제주체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아이들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경제 교육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체계가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를 더욱 부강하게 하는 지식체계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 토론 11 > 안병근(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I. 교과서 교육과정 설계안의 중요성

교과서 교육과정 설계안은 교과서의 내용을 결정짓게 되고,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본 교육과정 설계안의 연구와 논의의 출발이 기존의 7차 교육과정 경제교과서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평가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해 보면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본 교육과정 설계안에 기초하여 교과서가 나온 후 또다시 교과서가 완벽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7차 교육과정 경제교과서가 비판받게 되는 원인도 결국 ‘경제교과서 교육과정 설계안’ 연구가 철저하지 못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II. ‘개정안의 성격 및 목표’에 관한 의견

본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설계안은 고교경제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현대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고교경제교육은 졸업 이후 독립적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펼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현실 경제의 각종 제도와 원리의 기본 골격을 이해시키는 것을 과정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교육은 세계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번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적 비판은 대학수준의 교육으로 미루고 고교 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제대로 터득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분명히 하는 교과과정이어야 한다.”

(1) 이같이 고교경제교육의 목적을 ‘기본적인 경제지식의 습득(특히 시장경제 원리의 터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다.

고교경제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면 고교경제교육은 소위 말하는 ‘경제학교육’이 되게 된다. 학교경제교육은 ‘경제학교육’이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경제교육은 단순히 경제에 관한 사실이나 경제개념, 경제원리 등 경제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경제문제에 직면할 경우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보다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기 때문이다.

(2) 본 설계안이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위해 필요한 것이 “기본 지식”이라고 본 것도 고교경제교육은 ‘경제학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것이 “기본지식”인지의 의문이다.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개인적·사회적 경제문제에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보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함양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3) 고교경제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교과서에 담을 내용과 서술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III. 교과서 교육과정 설계안의 중요성

(1) 단원별 학습목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주제별 학습목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주제별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 요소와 서술범위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과서 집필자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설계안 본래의 의도대로 집필이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사회’ 교과서 경제영역 교육과정 설계(안) 참조

IV. 교육과정 설계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의견

(1) “1. 경제문제의 이해” 부분

분업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

분업은 아담 스미스가 예로든 핀 공장의 사례처럼 노동의 분업 (division of labor)을 의미하는 경우와 특화(specialization)를 의미하는 경우(사회적 분업)로 쓰인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인 만큼 두 경우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 재화의 생산 공정을 여러 개의 작업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작업을 서로 다른 노동자가 맡는 것을 말하는 ‘노동의 분업’을 의미하는 경우에만 분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회적 분업’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특화(전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분업과 특화라는 두 개념을 혼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제6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아래 인용 부분과 관련된 의견

“7차 과정은 기회비용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의 습득’이라는 관점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학습의 기본 전제가 되는 ‘합리적 인간’의 개념과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도 기회비용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즉, ‘집단 합리성’의 부재에서 많이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한 ‘경제학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 인용문은 옳다. 경제학의 이론은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하였다고 해서 현실에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경제학의 합리성 가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경제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학습 흥미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도 기회비용 개념은 개인적 의사결정에서도 공동체의 의사결정만큼 많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2) "시장과 경제활동" 부분

□ 경제개념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필요

일반적으로 경쟁(competition)은 상대방을 능가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서로 경합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시장구조 측면에서의 경쟁 개념은 상대방을 능가하기 위해 서로 경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경쟁적 과정으로부터 초래된 시장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과정’의 차원과 ‘상태’의 차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과점시장이나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도 생산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정’ 차원)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시장을 경제학에서 경쟁(‘상태’ 차원) 시장이라고 하지 않는다. 완전경쟁시장이 오히려 경쟁(‘과정’ 차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과점시장이 경쟁(‘과정’ 차원)이 치열한 것처럼 보인다(TV 광고는 거의 과점 기업들의 전유물이다). 그 결과,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 ‘시장균형의 효율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세히’ 다루고, ‘완전 경쟁·독과점시장 등 시장 구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이 경우, 교과서가 경제이론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경제 과목이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어 기피 과목으로 고착될 우려가 크다. 경제교과서를 어렵게 만들면 선택하는 학생들이 감소하고, 그 결과 경제교육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3. 시장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부분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교과서에서 너무 경시한 부분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4.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부분

- “7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에서 소비자 선택의 합리성은 모든 소비자들이 희소한 자원을 활용하는 원리인데 7차는 마치 학습해야 할 규범인 듯 오도하고 있음. 또 자원이 희소하면 각자 근검하여 덜 쓰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금욕적 시각을 전수하고 있음. 본 안은 소비자와 기업의 윤리적 행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부분

이 부분 역시 ‘경제학교육’의 관점에서는 타당한 내용이다. 하지만, 경제교육이 규범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하는가 하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규범의 문제에서 자유롭다면 그것을 “교육”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경제윤리가 ‘경제교육’의 범주에 들 수 없겠지만, ‘경제교육’에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5) "5. 국민경제의 활동과 변동" 부분

- "(3) 경기변동과 안정화 정책"에서 경기변동과 안정화 정책이 경제주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

(6) "6.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부분

- "(2) 환율과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변화가 경제주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

V. 교육과정 설계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의견

- 7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경제교육' 관점에 서있었으나 경제적 사고력 내지 합리적 의사결정력 함양에도 미흡하였고, 시장경제원리의 터득에도 미흡
- 본 교육과정 설계안은 '경제학교육'의 관점에 서있어서 경제학의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고, 그 결과로 시장경제원리 터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제적 사고력 내지 합리적 의사결정 함양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경제학교육'의 관점에 섬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7차에 비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경제과목 선택 기피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교과서를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7차에 비해 내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현장의 수업시수를 감안할 때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토론 12 > 김진영(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I. 종합적인 의견

교육과정 개발의 목표를 ‘시민교육의 한 부분으로 독립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점을 크게 찾을 수 없다. 특히 기존의 교육과정이 시장경제의 오류나 한계를 과장하거나 부각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교과서의 논조나 기술이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교과서의 분량이나 집필자의 성향을 보아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기존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들을 수용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존의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있어 왔지만 비판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I. 원론적인 의견

(1) 지나치게 경제윤리를 강조

이 비판은 7차 교육과정의 경제 내용 전체(9-10학년, 11-12학년)에 해당한다. 경제학은 그 자체로 논리체계나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이 우선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은 새 교육과정 개발에서 극복해야 할 것이다.

기존 교육과정이 경제윤리를 강조하여 잘못되었다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장원리나 경쟁에서 강자의 미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이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가치를 강요할 우려가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교육과정의 전개방법

교육과정은 학문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위한 경제학은 모학문인 경제학의 이론체계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최근 역할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여 소비자·기업가·시민 등 역할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새 교육과정은 모학문의 논리체계를 따르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새로운 장의 순서들과 그 순서의 근거에 대한 이론 제시가 있어야 한다.

(3) 내용의 과부족

경제학의 모든 내용을 학생들에게 다 전해줄 수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전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은 필요한 경제학 내용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화폐금융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여러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중앙은행제도와 통화 공급의 원리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4) 교육과정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의 원래 목표인 '인간행동의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와야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상인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혹시 경제학자들의 차가운 경제논리만 가지고 이를 주입하는 데 치중한다면 경제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17-8세 전후의 학생들 인지수준이나 가치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III.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검토의견

(1) 내용의 확장이 필요

전체적인 인상은 시민경제교육이라면서 경제학 지식이나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심화선택 과목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본격적인 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장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좀더 넓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은행제도, 화폐금융이론의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2) 학교급별 연계성이 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심화선택의 단계 간에 위계나 연계성이 부족하다. 특히 도입부를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느 정도 겹치게 할지 구체적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기회비용을 강조하지만 개인의 선택 단계에서 기회비용, 사회의 선택단계에서 기회비용 등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

(3) 합리적 선택

소비자·생산자·정부 등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부분이 모두 빠져 있다. 이 부분은 지식이 아니라 중요한 기능이다. 이 기능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전제로 이해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즉 우리의 편견이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런 부분을 타파하는 것이 경제학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나의 합리적 행동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합리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4) 열거와 예시

2장의 우리 주변의 시장 내용은 예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예시를 한다면 어떤 시장들을 예시할 것인지? 교과서라면 예시로 충분하고 교육과정이라면 열거가 맞다.

(5) 시장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부분에서는 정보에 대한 언급이 필요

광고의 기능, 정보의 비대칭성, 상품품질 표시규정 등 모두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어차피 신문이나 뉴스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을 길러야 한다면 이런 개념들도 소개될 필요가 있다.

(6) 3장과 4장의 논리적 순서가 바뀌는 것이 어떤지 검토

이대로도 논리가 서는 것 같고 또 시장의 기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도 논리가 설 수 있을 것 같다. 시장기능의 뒷받침은 시장기능이 때때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제도적 뒷받침’과 ‘정부의 개입’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7) 경제성장을 소득의 상승으로 보는 단기 부분과 성장잠재력 혹은 잠재소득의 성장으로 보는 장기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음

물가 실업률을 장기성장과 같이 설명하는 것은 혼란스럽다고 생각한다.

(8) 경기변동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

총수요측 요인과 총공급측 요인이 같이 있어서 경기변동의 원인을 혼합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9) 중앙은행제도와 통화공급 체계에 대한 설명이 7차와 마찬가지로 취약

정부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중앙은행과 통화공급체계는 한 절로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시장경제에 중요한 조절자로서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10)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설명, 정부의 경제적 역할(시장개입)이 어느 장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경제활동을 별도의 절로 다루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11) 전체적으로 현재의 6개 장들의 내용 표현방법이 불균형하게 다루어져 있음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각 장-절-항 등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12) 기타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지 말기를 바란다. 1997년 교육과정 개편 당시에 전경련 산하의 자유기업원이 극단적인 시장자유를 강조하다가 오히려 반작용으로 지금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에 따라 경제교육을 받은 전과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은 중립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토론 13 > 박영석(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연구원)

I. 경제교육과정 개발의 의의

현행 교육과정에 대해 수정·보완하는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국민공통 교육과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정 시안을 연구하여 교육부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006년에 학교 현장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올해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경제 영역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경제교육과정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제교육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다양한 연구 성과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II. 경제교육과정 구성 방식에 대해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이번에 개발된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의 경우 구성체제가 ‘대단원 - 중단원 - 내용요소’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7차 교육과정 문서의 체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의 수시 개정 연구보고서에서 사회과는 내용의 범위와 정도를 ‘대강화(大綱化)’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중단원 수준이 아닌 대단원 수준에서 학습 주제와 핵심적 학습 요소를 제시하는 형태이다. 양자의 구성체제상 차이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의 교육과정 설계(안)에서는 경제교육의 목표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내용체제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경제교육 목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중간보고서라 목표 및 성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교육의 목표 제시는 교육 내용 구성에 논리적으로 우선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이에 따라 편성된 내용체계가 적절한가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교육의 목표 설정은 경제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안목과 자질과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는가와 관련된 경제적 인간상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 경제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와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보다 심층적으로 상세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경제'에 대해

경제교육과정의 설계 과정에서 경제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내용을 학습 요소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설계(안)이 개발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참고 의견을 제시한다.

1)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이 III, IV, V 단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체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입세출 관련 부분과 이러한 재정지출의 목적이나 정책적 효과 등이 분산되어 있어서, 실제 교과서 개발과정이나 학습과정에서 내용의 중복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될 필요는 없겠지만, 정부가 국민경제의 작동과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그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2) 소비자(혹은 소비)의 경제적 역할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가 여겨진다. 학습 내용 구성상 비중은 고려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소비 행위와 관련된 요인과 소비의 경제적 기능 등은 학습자의 경제생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것으로 여겨진다.

3) 'VI.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부분에서 '환율제도' 자체에 대한 학습은 경제 과목의 학습 부담이나 추가가 요구되는 다른 학습요소 등을 고려할 때,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변화를 구체

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BRICs의 부상이나 DDA 협상 등의 구체적 내용은 교육과정 문서의 성격이나 교육과정 개정의 주기 등을 고려할 때 해설서 등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4) ‘Ⅲ-(6)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 부분은 경제학습의 내용으로서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이나 사회보장 자체에 대한 내용 학습이 아닌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보장이 어떠한 의미와 필요성을 갖고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토론 14 > 양원택(교육인적자원부 연구사)

1.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배경 및 기본 방향

(1)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요인

- 사회변동과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 학년별 내용의 적정화·타당도 제고
- 사회과 교육과정 시행상의 내재적 문제점 해소

(2)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 유지
 - －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내용의 수정·보완
- 내용상 사회변동·시대상황·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 － 세계화·지역화·지식정보화·저출산 고령화 등 현대 사회의 변동 양상 보강
 - － 역사교육·세계이해교육·경제교육·법교육 등 국가 차원의 요구 반영
- 국가 교육과정의 대강화
 - － 최소 필수 요소만 제시하여 교과서 개발과 교수·학습 과정의 자율성 유인
-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재적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 제시
 - － 내용 구성의 다층적 통합 모형 도입 : 영역간 통합(초등) → 영역내 통합(중·고등학교 1학년) → 영역내 분화(고등학교 선택과정)
 -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체제 개선 : 기본·심화과정 통합,

현행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 최소화

II.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내용 선정 원칙

- 배경 학문의 지식 구조에 따른 개념 체계
- 국가·사회적 요구와 교사·학습자의 수요
- 실생활 경험과 관련된 사회 현상

(2) 내용 조직 방향

- 내용 구성의 대강화와 내용의 정선·감축
 - － 대강화(大綱化) : 주제 차원의 내용만 제시 → 교과서 저적의 재량권 강화
 - － 내용요소 정선 : 최소 필수 요소 중심으로 제시 → 학습 부담 감축
- 사회과 통합 개념과 모형의 재정립
 - － 초등학교 : 범영역 통합 조직 체제 유지
 - － 중고등학교 : 영역내 통합 모형 도입
 - － 심화선택과정 : 영역내의 하위 분야별 분과 모형 유지

※ 중학교·고등학교 공통 기본 과정의 내용 조직 모형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다영역 융합형 통합 - 7학년 : 지리+세계사 - 8학년 : 세계사+일반사회 - 9학년 : 일반사회+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내 하위 부문간 통합 - 지리 : 한국지리+세계지리 - 역사 : 국사+세계사 - 일반사회 : 정치+경제+법+사회문화

III. 경제 관련 교육과정 개정(안) 방향(국민공통기본교과)

경제 관련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

(1) 내용의 정합성 강화

- 경제체제, 합리적인 소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이 기본적인 학습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 내용 첨가
-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의 불필요한 내용들을 점검
- 내용을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경우들을 철저히 점검

(2) 내용 진술 명확

내용 진술 방식에서 모호한 용어, 명확하지 않은 서술, 편향된 시각의 반영 여부를 좀 더 명확하고 신중하게 서술

(3) 서술의 논리적 전개 강화

- 물가와 실업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다룰 때, 물가 서술, 실업 서술, 물가와 실업과의 관계의 순으로 서술 필요
- 즉, 물가가 변동하는 원인을 화폐, 수요, 공급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실업에 대한 서술 비중과 맞출 필요

- 마지막 단계로, 우리나라의 물가와 실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변동 양상을 분석한다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4) 경제주체들의 윤리적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중3, 고1)

- 거시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개별경제 주체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
- 소비자 과소비 금지, 근로자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국제 수지 개선, 국가 경쟁력 향상 등 주요 거시경제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대책으로 등장
- 향후 경제 영역 교육과정에서는 매우 절제된 형태로 경제윤리적 규범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

IV. 교육인적자원부 향후 일정 및 기타

- 선택교과(경제) 교육과정 시안 개발 : 2006년 3월 ~ 8월
- 국민공통기본교과 개정 시안 현장 검토 : 2006년 3월 ~ 5월
- 국민공통기본교과 개정 시안 교육부 홈페이지(www.cutis.moe.go.kr) 탑재 및 다양한 의견 수렴 : 2006년 3월 ~
- 사회과 교육과정 심의회 개최 : 2006년 3회 예정
- 사회과 교육과정 최종 공청회 : 1회 예정
- 최종 교육과정 심의회 : 1회 예정(2006년 12월)
- 교육과정 최종 고시 : 2007년 2월

※ ‘경제교과서 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2006년 3월 ~)

- 교육인적자원부-전경련 간 양해각서 체결시 합의한 사항임.
- 경제교육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식 통로 역할
- 경제계뿐 아니라 노동계, 시민단체, 대학교수, 현직 교사, 교과서 집필자 등 다양한 인사를 참여시킬 예정임.

부록 2. 학회공동세미나 토론자료

- I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박명호/김홍균/
이영섭/최윤재)
- II .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전택수/문승래/
정경호/오영수/김경모/박영석/박재진)

< 토론 1 > 박명호(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I. 사회과 과목 편제의 적정성 검토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국사, 지리/일반사회로 구분
- 김정호(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의 방향과 결과,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공청회, 2005.12)에 따르면 역사, 지리, 일반사회 3분법으로 가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시안의 내용 체계 역시 인간과 시간, 인간과 공간, 인간과 사회로 구분하고 있음.
 - 역사와 지리는 종전보다 과목을 늘리고자 함.
 - 역사는 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지리는 경제지리 대신 환경지리 및 여행지리 등
- 영역별 시간 배당 역시 논란의 소지가 큼 : 역사와 국사 7, 지리 4.5, 일반사회 4.5
- 반면, 외국의 경우 역사/지리, 시민교육으로 구분
 - ⇒ 향후 외국 사례에 대한 보완 연구 및 교육 수요에 대한 일반인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과 과목 편제 관련 바람직한 방향 모색 요망.

II. 경제과목 교육의 연속성 유지 방안

- 현재는 경제과목을 4학년(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6학년(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9학년(민주시민과 경제생활, 시장경제의 이해), 10학년(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에서 배우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0학년에서 배우는 거시 관련 내용을 9학년으로 내리고 10학년에서는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 그 중에서 경제는 세계화를 경제 영역의 주제로 선정하여 경제교과 내용을 다루고자 함.
- 김왕근(일반사회 영역 교육과정의 개정방향,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공청회, 2005.12)에 따르면 일반사회 영역 내용의 통합적 구성을 중학과정은 주제 중심과 개념 중심을 20:80으로 하다가 10학년에는 100% 주제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음.
 - 경제학의 경우 기본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다른 사회과목에 비해 특정 주제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됨.
 - 그러므로 10학년 과정에 100% 주제 중심 교육은 경제 분야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 Walstad에 따르면 교사가 경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화해서 학생에게 가르치려면 대학에서 경제과목을 4단위 이상을 들어야 가능하다고 함.
 - 우리나라 사회과목 교사의 공급체계를 볼 때 특정 경제 주제를 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사료됨.
- 현재 10학년에서 다루는 거시경제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1학년 이후 심화선택 과목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할 경우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경제과목을 배우는 학생이 적은데 그 수가 더욱 줄어들 수 있음.
 - ⇒ 현실적 수업 운영과 경제과목 학습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거시관련 내용을 10학년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III. 경제과목 개정 과정에 대한 제언

-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이 교육부와 교육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과과정이 기존 교육 공급 체계 틀 내에서만 검토되어 왔음. 그러므로 기득권 집단의 이익이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때로는 확대되어지기도 함.

-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사회과 교육과정 자문위원 15명은 5명의 초중고 교장, 10인의 교육 관련 교수로 구성되어 있음.
 - 지리 교육 3인, 사회교육 4인, 역사교육 2인, 교육학 1인
 - 사회과 교육과정 공동연구위원 역시 교사와 교육 관련 교수들로만 구성
 - 사회과 교육과정 협력연구위원 역시 전원 교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구성
- 교과목 개정의 근본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변동, 국가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교육 공급 체계 및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교과 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는 일반사회 과목 중 경제 관련 내용의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 작업 역시 경제학계 및 경제계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소수의 경제학계 인사 참여로 이루어져 왔음.
 - 향후 학회 차원에서 참여 방안을 검토
- ⇒ 교과목 개정 과정 시 교육공급체계 내에 있는 이해 당사자 외에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IV. 교사공급 체계개선관련 건의

- 박명호(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제학교육위원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2006)에 따르면 교사의 경제인지도가 매우 낮으며, 경제관 역시 합리적 근거보다 감정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교사의 낮은 경제 이해도는 우리의 교사 공급체계를 보면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음.
 - 예시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에 개설된 과목을 보면 경제관련 필수과목은 경제와 사회 한 과목에 그치고 있음.

- 이주호 의원에 따르면 경제교육 교사 747명 중 352명(47%)은 일반 사회 전공자이고 86명(11.5%)은 경제를 전공한 반면 나머지 41.5%는 학부에서 다른 과목 전공자로 조사되었음
- 교사가 특정 주제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는 현안 과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경제교육 및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반사회과 교사의 교육·연수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 ⇒ 경제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제과목 이수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교사의 경제 이해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임.

< 토론 2 > 김홍균(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초등학교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제교육의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함.
 - 4학년 경제활동과 선택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음.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이니 만큼 가격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함.
 -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상이한 경제체제들이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함.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왜 시장경제체제가 좋은지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됨.
 -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었으면 함.
 - 환경문제나 분배문제 등 흔히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오해되는 부분들에 대해 시장경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함.
 - 이와 함께 시장경제의 단점 또한 서술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
 - 기회비용은 비단 경제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서술되었으면 함.
 -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함.

< 토론 3 > 이영섭(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1. 종합평가

□ 구성

- 전체적인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각 부분에서의 설명방식도 일상 생활 중의 경제행위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의 교육과정은 명제를 던지고 이를 증명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개선안의 전개방식은 이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잘 첨가됨.
 - 개인의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 등은 일상 중 흔히 접하는 개념이지만 그 동안 본격적으로 취급하지 못했었음.
 - 개선안은 세태의 변화를 잘 반영해 이와 같은 새로운 이슈들을 중요하게 포함시킴.

□ 초점

- 개선안이 현실에 보다 부합
- 과거의 교육과정은 경제영역의 교육을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원리적으로 가르치려 한 느낌
 -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가상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설명하려 함.
 - 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제행위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도록 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비해 개선안은 지극히 자연스런 경제행위를 중심으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진행시킴.

- 이러한 전개는 경제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고, 굳이 가치판단을 개입시키더라도 올바른 경제행위를 유도할 수 있음.

II. 세부적인 지적 사항

- 일부 설명방식에서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
-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 합리적 선택에 대한 정의
 - pp.21-22: “... 포기하는 것(들) ... 합리적 선택이다”라는 표현은 기회비용의 최소화를 합리적 선택의 정의로 설명
 - p.22 중간: “주어진 수단으로 ... 합리적 선택이다”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생활에 나타나는 형태로 표현
 - 후자가 더 나은 설명방식으로 생각됨.
 - 기회비용에 대한 정의
 - pp.21-22: “... 포기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것이 그 선택에 따르는 기회비용이다”라는 정의는 경제학 사전적인 정의라고 생각됨.
 - 물론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중학생들에게는 단순히 이 표현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을 하다보면 포기(희생)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설명만 하면 됨.
 - 비교우위의 원리
 - p.23 마지막 문단: 숫자 예를 통해 설명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아무리 깊게 나가지 않더라도 숫자를 이용해 비교우위 원리를 설명하려면 상당히 깊은 이해를 요구하게 됨.
 - 숫자 예 보다는 단순히 서술적인 예를 통해 설명한다고 하는 편이 나음: 예를 들자면, “아빠가 회사 사장인데 아빠 비서보다 경영과 사무직을 모두 잘하더라도 아빠는 경영업무에 몰두

하고 비서는 사무직일만 하는 것이 회사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처럼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비교우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 위에서 설명한 기회비용의 개념이 비교우위와 관련해 p.23 중간 “기회비용을 가정 적게 하려는”이라는 표현에 나타나는데 이는 생략하는 것이 좋음.

○ 개인의 소비와 저축

- 아주 바람직한 설명
-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선택이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 소비품목 간의 선택인 반면 이 내용은 (동일한 품목을?) 현재와 미래간에 선택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을 부각시키면 이해가 쉬워질 수도 있음.

○ 기업의 목표

- 비교적 잘 설명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일반적인 서베이 결과들은 (특히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들은) 기업의 목표를 이윤추구와 상당히 다르게 보여주고 있음.
 - 부의 사회환원, 고용증대 등
- 이러한 결과들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소개하고 개선안에서 설명한 기업의 이윤추구 방식과 부합될 수 있도록 일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 가격 결정

- pp.32-33: 그래프가 구태여 필요한지 잘 모르겠음.
- 뒤에 첨부한 <부록>의 학생들의 응답을 참조하기 바람: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지만 참조할 만함.

○ 가격 변동

- p.19에는 “시장가격의 변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p.34에는 “시장과 가격 변동”이라고 나와 있음.
- 일부 내용은 “시장과 가격결정”의 내용과 중복되는 느낌
- 여기서는 시장기능을 강조한 것 같은데, 이를 본격적으로 부각시킬 것
- 앞에서 가격결정 과정을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만일 시장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소개하면서 시장기능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그래프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 시장이 효율적 배분 기능을 한다는 예 : 빵은 10개밖에 없는데 100명의 사람이 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얼마나 돈을 내겠는지 물은 뒤 가장 많이 내겠다는 사람 순으로 빵을 주면, 사회에서 가장 빵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빵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시장의 기능 등

○ 시장과 정부

- 좋은 설명 방식
- 한 가지 혼동 우려: p.39에 “...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분위기 혹은 여론 물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음.
-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중학교 · 고등학교 공통 기본 과정의 내용 조직 모형

III. 추가 고려 사항

□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추가 설명

- 중학교 과정에 포함시키기에 무리일 수도 있으나 경제교육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데는 훨씬 효과적인 내용들

- 기본 설명과는 달라 보일 수도 있는 여러 현상들
 - 이타심에 따른 행동
 -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결과들
 -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 기본 설명 혹은 바람직한 경제행동과 배치되는 행동
 - 해악이 되는 듯한 행동
 - 슬럼가 아이들의 선택
 - 공부보다 조폭
 - 정상소비보다 사치 등
- 심리적인 요인
 -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심리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설명
 - 예상(기대)의 역할
 - 가격변화가 수요·공급의 기본적인 상식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나 사회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행동
 - 부동산 가격 변화에서의 예상의 역할 등

<부 록>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

1. 경제라는 학문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선생님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사립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운 좋게도 경제학을 전공하신 선생님께 경제라는 과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학교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보다는 사회과목을 가르치셨던 선생님들께서 경제도 함께 가르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의 경제과목에서 심오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실은 저희가 경제라는 과목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경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 내용이 경제에 대해 오히려 '어렵다'는 인식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텍스타일 CEO이신 아버지께서 어릴 적부터 경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경제라는 과목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와 같이 경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고등학생에게 '경제'라는 분야는 흥미를 갖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선진국과 유대인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대해 자발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경제라는 분야에 대해 별 다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문에서도 경제면은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끼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갑자기 수요와 공급곡선이 나오고 어려운 용어들을 마구 쏟아내는 책은 거리감만 느껴질 뿐입니다(사실 경제과목은 문과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목이고,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에게 그래프

라는 자체만으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 예로 이과에서 전과를 하는 학생들이 경제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하는 이유도 '그래프가 나오는 사회과목 중 가장 이과적인 과목'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또한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경제를 수능시험을 보는 과목에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그래프를 보기 어려워서'라는 선입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단순한 수요공급 곡선에 대한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몰랐던 경제원리에 대해 풀어나가는 식으로 경제를 배운다면, 경제과목에 대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등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해하기 쉬운 교과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3. 고등학교 경제 과목은 너무 문제풀이식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과목이 수학능력시험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과목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어려운 과목'이라는 편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제 수업이 아쉬웠습니다. 대학교에서 자신의 관심분야를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고등학교에서는 그를 위하여 여러 학문에 대해 흥미를 갖고 어느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를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비하여 고등학교의 경제과목 수업은 너무 딱딱합니다.

< 토론 4 > 최윤재(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설계안의 제5장은 문화, 정의, 환경, 세계화, 인권, 변화, 삶의 질 등 7개 주제 가운데 경제 영역 중심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화를 골라, 세계화와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만을 살펴보았다고 한다. 이 논평도 같은 면에 대한 논의에 국한하기로 하며, 각 주제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기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지 않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대단원명을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화와 지역화>로 정한 점이 눈에 띈다. 세계화만 해도 간단한 주제가 아닌데, 여기에 지역화를 나란히 넣은 까닭이 궁금하다. 지역화는 세계화와 대비되는 것인가 아니면 세계화의 한 부분 또는 한 단계인가.

세계화(globalization)에 지방화(localization)를 대비시키면서 때로 세방화(glocalization)라는 신조어까지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지방화와는 다르다. 설계안에 나와 있듯 지역화는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뜻의 지역화와 나란히 쓰는 세계화라면, 이제 세계화는 문자 그대로 세계 전체를 한 울타리로 만드는 것이고 지역화는 세계의 특정 부분만을 한 울타리로 만드는 것이 된다. 둘 다 개방이로되, 그 개방이 전체적인 것이냐 부분적인 것이냐의 차이이다(세계화는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개방을 포함하고,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화는 경제 개방만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지역화를 교육내용에 넣었다면, 이는 세계화가 아닌 지역화, 즉 개방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현상을 다루기 위함인가, 아니면 세계화의 한 형태로서의 지역화, 즉 부분적으로라도 개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다루기 위함인가. 비유하자면 잔에 물이 반만큼 찬 것인가 반만큼 빈 것인가. 어떤 시민단체가 자유무역협정, 곧

“지역화”에 반대한다면, 그 단체는 개방을 부분에 그치지 말고 전체에 대해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는커녕 부분에 대해서도 개방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지역화는 세계화의 한 부분일 것이며, 그렇다면 굳이 혼동을 초래할 위험을 무릅쓰며 지역화라는 개념을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표현으로 도입해야 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현실에서는 지역화가 아닌 순수한 세계화는 없는 것이며,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대학 수준의 경제학에서도 경제학원론에서는 개방 그 자체만을 다루며 그것이 전 세계적인 개방인지 몇 나라들 사이만의 지역적인 개방인지는 (거의) 따지지 않는다. 그러한 차이는 최소한 대학 3학년 수준의 국제무역론 정도가 되어야 다루기 시작한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무역론에서 지역화를 다룰 때 나오게 되는 핵심 개념인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화는 교과과정에서 생략하든지, 아니면 <세계화와 지역화>에서처럼 지역화를 제목에 나란히 넣을 것이 아니라 세계화의 (미진한) 한 형태로서 본문 가운데에서 잠깐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면 세계화보다는 시장개방이나 자유무역 또는 경제통합과 같은 용어를 주제로 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주제를 시장개방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정치, 사회, 문화 현상을 아울러 다루지 못할 법은 없다.

시장개방이라 하면 경제적인 면에 국한해 보더라도 재화시장뿐 아니라 노동시장, 서비스시장, 자본시장 등의 개방이 있는데, 대학 수준의 경제학원론에서도 사실 재화시장만을 다룰 뿐, 노동시장이나 자본시장의 개방과 같은 주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 재화시장에서조차도 의견 대립이 간혹 있긴 하지만 - 노동시장이나 자본시장의 개방에 이르러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을 흔히 볼 수 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채 “사회”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

는 고등학교 현실에서 노동시장이나 자본시장과 관련된 교과내용이 선 불리 도입되면 오히려 혼란만 불러와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줄 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겠다.

단원의 내용 요소와 설명 범위에 관한 논의를 살핀다면, ①에서 경제 통합의 추이를 나타내 보여줄 때 우리나라의 경제통합 추이만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들의 추이를 반드시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세계화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②에서 자유무역의 효과를 수출입 규모의 추이로 파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수출입 규모의 추이는 이미 ①에서 보았다). 시장개방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③의 아래에도 나와 있듯이, 시장개방은 분명히 한쪽에는 이익을 주지만 다른 쪽에는 손해를 끼친다(그러나 “계층”, 특히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냐에 따라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 점을 분명히 기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개방은 세계 어디에서고 찬반 대립을 (때로는 격렬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이런 점을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왜 전체적으로 이익이 손해보다 큰지, 손해 보는 집단을 어떻게 설득하고 보상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시장개방을 마치 선과 악이 대립하는 문제와 같이 생각하여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사람은 “잘못”이라는 식으로 설득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정치·경제적인 논의가 중요하다. 재화시장의 개방만 해도 제대로 다루기 버거울 수 있는데, 논의를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문화, 법, 제도, 교육, 의료 등의 개방 문제로까지 너무 서둘러 확대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힘들 수 있다. ②와 ③을 합해서 논함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④는 다른 것들에 비해 너무 가벼운 주제일 듯하다. 진지하게 논할 내용이 많이 있을까.

⑤에서 기업의 “국적”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이는 국적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없을까.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학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합의가 얼마나 깊고 넓게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별 근거 없이 즉흥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비슷한 지적을 ⑥에서도 할 수 있겠다.

⑦에서는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발생한다”고 하는 대신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점은 다행이나, 세계화를 일단 양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처럼 비추일 우려가 있다. 둘 사이에 과연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지 않을까. 그 답은 무엇일까. 세계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낙후”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런 나라들은 세계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세계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말인가. 교실에서 자칫하면 교사에 따라 또는 교과서에 따라 정반대되는 “모범답안”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으므로 설명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 토론 5 > 전택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

본 설계안은 기존의 내용체계를 대폭 수정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혁신적인 시도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단원 3과 4를 과감하게 편입시켰고, 다른 단원에도 기존의 개념을 제외시키는 대신 새로운 개념을 과감하게 포함시켰다. 특히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특이하다. 이는 한국경제의 실정을 감안한 연구자들의 남다른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몇 가지 논평자의 심술을 부리고자 한다. 본 심술은 미국의 K-12 경제교육 표준내용체계인 (i) A Framework for Teaching Basic Economic Concepts(1995) (ii)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 (NCEE 1997) 그리고 한국경제에 대한 논평자의 현실인식에 근거함을 밝힌다.

미국의 상기 두 시도는 경제학자, 중·고교 교사를 포함한 경제교육자, 그리고 경제교육 관련 단체들의 오랜 토론 끝에 공통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다. (i)은 22개의 기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별하면 근본 개념, 미시, 거시, 그리고 국제경제로 나누고 있다. 반면 (ii)는 경제학의 어떤 내용이 학생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서술한 20개의 문장과 이것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212개의 벤치마크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위의 내용 설정은 학생의 미래 자질이 개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능한 의사결정자, 국제경제무대에서의 효과적인 참여자, 생산적인 근로자,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 그리고 자유기업체제의 후원자 등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자질을 키우기 위해 가장 적은 내용, 경제학 원리에서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 교사나 학부모 등이 쉽게 이해하는 내용 등의 기준에 맞추어 선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주로 본 토론자의 심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물론 미국의 두 표준내용체계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단원 1에서 보자. 고교수준에서 학생들이 경제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의 강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체제와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이것을 연구자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경제체제를 대학에서 배우면 된다고 했는데, 이는 “too late and too little”이다. 미국 통계에서 대학진학자의 40% 정도가 경제학 1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분업과 특화가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준내용체계 (i)에서는 근본개념군에 포함되어 있는 교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화와 분업이 설명된다. 그리고 (ii)에서는 교역의 이점을 설명하는 과정 특히 국제무역에서 이들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교환활동에서 이들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소주제의 제목으로 나올 만큼 근본적인 개념은 아닌 것이다.

셋째, 합리적 의사결정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경제학의 기본 가정인 합리성과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제외하였다.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장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합리적 선택보다는 효율적 선택이 적절한 용어일 것이나 미국에서도 상호교차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국인의 경제관습과 인식수준을 고려할 때 합리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문제에 대한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의 수집, 분석 등의 기초로 추론된 판단의 필요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형식논리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성 가정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제고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흥적이고도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단원 3을 시장기능의 뒷받침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고교수준에 너무 어려우면서 시장의 단점을 깊이 지적한 것이 아닐까? 여기서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들 제도가 고안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i)과 (ii)에서는 시장경제체제 내에

서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목적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 각종 제도가 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노동조합, 회사, 법류제도, 비영리기관 등이 중요한 사례들이고 동시에 시장경제체제에 필수불가결한 제도로는 잘 정의되고 집행되는 재산권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는 관점의 문제이지만 학생의 미래 자질의 함양을 위한 내용인가는 trade-off 관점에서 잘 판단할 일이다.

다섯째, 단원 4도 마찬가지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 단원 3과 4를 독립적인 단원으로 만드는 것은 “배워야 할 대상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하기 쉽다(1쪽 세 번째 문단)”는 연구자의 우려를 재현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단원 3과 단원 4를 통합하고 내용을 대폭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대신 소득분배, 실업, 인플레이션 등은 소주제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거시경제현상의 분석틀에 관한 근본개념 즉 총체적 수요와 총체적 공급 등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교육받은 경제학자들은 모든 활동을 경제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경제학적 분석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경제학이 제국주의적 학문(imperialistic science)이라고 비난 받는다. 인간은 가장 복잡한, 그래서 재생할 수 없는 기계이다. 경제학에서는 행동동기에서는 사리추구, 인지능력에서는 합리성을 가정하여 인간을 단순한 기계로 치환한다. 인간의 다른 모습도 많이 있으며 그에 따른 활동도 다양하다. 문화활동, 정치활동 등도 있다. 경제활동은 여러 활동 중 하나이며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혹은 학습에 의해 인간은 지식, 기능, 가치태도가 개선된다.

경제교육의 목표에 건전한 민주시민의 양성이 포함된다면 경제활동에서의 윤리도 다소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역지(?)로부터 얻는 함의를 정리해보자. 우선 기존의 내용체계는 미국의 표준내용체계에 너무 의존했다면 본 안은 이를 너무 무시

하고 한국적 현실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라도 일선교사들과 경제학교수들이 모여 한국문화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학생을 세계 환경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로 필요한 경제학 개념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경제과학으로서의 보편성과 한국인이라는 특수성을 서로 잘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

< 토론 6 > 문승래(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8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설계안은 7차 교육과정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고심한 흔적이 많이 돋보인다. 예를 들면, 분업의 강조와 조정의 문제를 다루고,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였으며,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의 소개와 같은 새로운 시장 개념과 상품을 소개하는 노력이 있었고, 마지막 단원의 세계시장과 한국경제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 애매모호하고 잡다한 여러 부분을 세계 속의 한국경제로 축약한 것 등은 참신한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참신하고 창조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제2단원 : 시장과 경제활동

1)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을 어느 범위까지 소개 할 것인가? 하는 의문

예) 국제금융시장 : 각종 국내예금, CD, RP, CMA, 표지어음, MMDA, MMF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다루는 생활과 연관된 많은 금융상품이 있다.

국제금융시장: CB, DR 등 수 많은 상품이 있음

얼마만큼 소개 할 것인가 궁금.

2) 더욱이 외환시장까지 포함시키려는 노력도 있어 보여 심히 우려스러움.

외환시장문제는 마지막 단원 세계시장과 한국경제에서 가볍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음.

3) 이 단원의 소주제인 새로운 시장에서는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도 연관된 인터넷 시장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음. 현재 인터넷 시장은 그 규모가 2005년만 하더라도 약 360조원에 이르러 급속

히 팽창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인터넷 시장은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고 고객 개개인의 욕구와 개성이 중시되는 시장이므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듦.

II. 제3단원 : 시장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 1)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문제는 「제 4단원인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함.
- 2) 왜냐하면 시장실패 중 소주제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빠졌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써 누진소득세, 누진상속세, 누진증여세 등의 세금문제와 「사회안전망 및 사회보장제공」문제가 언급되어야 논리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됨.
- 3) 더욱이 이러한 시장 실패 등(공공재, 독과점, 외부성 문제 및 소득불평등)과 더불어 정부의 예산 및 지출이 언급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움. 즉 정부 예산 중 얼마가 사회복지 및 사회안전망 건설에 쓰이는지 등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물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에 대한 지출은 IMF기준이나, OECD기준이나에 따라 그 지출정도가 다르므로 상당히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많은 주의를 요함.

III. 제5단원 : 국민경제의 활동과 변동

- 1) 경제성장문제에서 경제성장의 이익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음.
- 2) 경제성장은 피할 수 없는 상충문제를 수반함. 즉 경제성장은 국가나 어떤 집단의 경우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하도록 만듦. 따라서 경제 성장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성장의 이익뿐만 아니라 성장의 비용도 균형 있게 언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예) 성장의 비용: 예산비용, 노동시간의 기회비용문제, 다른 사회적 목

표의 희생(쾌적한 환경 등)등도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함.

- 3)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자금의 최종공급자로서의 중앙은행에 대한 비중이 너무 작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음.

IV. 제6단원 :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 1) 21세기 세계화의 본질은 무엇이며, 세계화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경쟁 속에서의 자유무역의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데 세계화의 개념, 본질이 빠졌음.
- 2)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지위확대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남북경협도 이러한 틀 속에서 새롭게 접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토론 7 > 장경호(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I. 경제교육의 목표와 시행 방안

「경제」 교과서 교육과정 설계(안)(이하 설계(안))에서는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목표를 ‘졸업 이후 독립적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펼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가르쳐 ‘현실 경제의 각종 제도와 원리의 기본 골격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계(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선, 설계(안)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결여한 학생들에게 선부르게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시키면 배움의 대상인 시장경제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비판’은 지양하고 경제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설계(안)는 제7차 교육과정이 한국경제에 대해 “통일시대를 위한 경제적 준비” 및 “통일 한국의 경제 선진화 방안” 등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일경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예상을 전제로 하여 교육을 하기보다는, 남북한 경제력의 비교와 같은 객관적인 인식에 기초를 두는 동시에 통일의 장·단기에 걸친 경제적 효과 분석과 같은 현실 문제를 제시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II. 설계(안) 내용체계

우선 전체적인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Ⅲ. 시장기능의 제도적 뒷받침’과 ‘Ⅳ.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하에서는 단원별로 제시된 소주제 및 내용요소에 대해 개편의 취지와 부합되는지 검토한 후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설계(안)의 순서대로 논의하겠다.

(1) 경제문제의 이해

설계(안)에서는 ‘경제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학생 스스로가 정립’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강조하여 ‘직접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또한, ‘시장경제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비판’은 지양하고 경제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 교육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경제체제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자생적인 교환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시장은 ‘분업’과 조정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안)는 제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분업’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은 체계는 그 동안 경제교육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편향적 시각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개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설계(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회비용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회비용의 문제와 ‘합리적 인간’의 개념과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설계(안)는 그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회비용의 개념을 개인보다는 공동체 또는 집단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인 문제도 강조하여 ‘직접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2) 시장과 경제 활동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결여한 학생들에게 선부르게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시키면 배움의 대상인 시장경제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설계(안)는 시장의 실패에 관한 부분은 IV단원에서 독립적으로 다루고 현실 경제의 각종 제도와 원리의 기본 골격을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설계(안)

는 시장균형의 효율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주변의 다양한 형태의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설계(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체계는 설계(안)의 기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인다. 아울러 설계(안)가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은 그 동안 일선교사로부터 제기되었던 금융부문에 대한 보강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도 그 의의가 있다.⁴⁾ 다만, 내용체계를 완벽하게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경쟁과 독과점 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증권시장을 비롯해 새롭게 등장한 오염배출권 시장 등을 소개한 후, 독과점 시장에서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자율과 임금도 가격의 한 형태로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모두 이해시키고자 하고 있다. 방대한 내용에 비해 5주(10단위)로 할당된 시간적 제약으로 설명·주입·암기식 교육에 치우친다면 자칫 그 기본 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

(3) 시장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설계(안)는 제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시장의 실패와 불법·부당행위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정부개입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설계(안)는 기업가의 역할과 이윤추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여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노동3권을 포함한 사회보장 장치를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체계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결여한 학생들에게 선부르게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시키면 배움의 대상인 시장경제

4) 경제교육현실에 대한 교사인식 조사에 따르면 학교경제교육 중 가장 부족한 부문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금융부문(41.8%),저축·소비부문(34.7%), 기업·기업가 정신부문(18.2%), 국제경제부문(5.0%)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2005.3)

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II 단원에서의 충분한 이해에 기초를 둔다는 취지에 부합된다. 하지만, 내용체계의 순서상 시장의 실패에 대한 설명이 IV단원에서 유보된 채 III 단원에서 불공정행위를 시장의 실패와 명확히 차이를 두면서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또한, 시장의 실패는 시장경제에서 재화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경제의 한 측면인 반면 불공정행위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근절되거나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공정행위를 시장의 실패와 명확히 구분하자면 시장의 실패를 포함한 시장경제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III단원은 IV단원 다음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III단원의 기업가 정신에 관한 부분은 III단원의 주요 내용인 제도적 장치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II.시장과 경제활동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분에 기업가 정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스페터의 혁신적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의 사회·윤리적 책임이 혼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설계(안)는 제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논의를 독립된 단원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 방법과 한계를 살펴본 후 재량적 정부개입이 정부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 제7차 교육과정의 III.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에서 다뤄졌던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경영에 관한 내용은 축소되어 소비자와 기업의 윤리적 행태는 삭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설계(안)는 정부 세입세출의 구성 및 내용을 소개한다.

이러한 내용체계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시장실패를 시장경제에 대한 II 단원에서의 충분한 이해의 기초 하에서 다룬다는 취지에 부합된다. 하지만, 시장실패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자칫 정

부만이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물론 정부의 실패 가능성에도 주목하여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민간 스스로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코즈 정리)는 점이 추가되어야 한다.

외부효과의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에만 초점을 두어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만 개입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즉, 교육과 같은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는 공립학교 설립 및 각종 장학금 혜택 등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민간 스스로 시장실패를 해결하지 못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직접적 규제만이 아니라 세금부과 또는 오염배출권 거래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시장의 기능을 활용한 후자의 정책이 전자보다 효율적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공공재의 경우에는 공유자원의 고갈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도 좋겠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도 시장이 실패할 수 있음을 살펴 보면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IV단원의 다섯 번째 ‘정부의 세입과 재정지출’은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V단원의 말미에서 다루지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대신 세금 부과와 같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순 손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정부의 역할을 위한 조세가 필요하지만 적정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어 정부가 실패만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입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국민경제의 활동과 변동

설계(안)는 제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을 분리하여 경제성장을 장기적 측면에서 이해한 후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설명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소득지표를 GNP에서 GNI로 변경한 것과 발맞춰

GNI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안정화 정책으로서 재정 정책과 화폐금융정책을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체계는 경제지표들의 비교를 통해 각 국가간의 성장률 차이와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고 아울러 통화량, 인플레이션율, 금리, 실업률 등 주요 지표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현실 경제의 각종 제도와 원리의 기본 골격을 이해’시킨다는 목표에 부합하다고 생각된다. 덧붙이자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IV단원 다섯 번째 항목인 정부의 세입과 재정지출이 여기서 다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또한 정부의 재정정책만이 경기변동에 최선의 대응책이 아니라 그 한계에 의해 일정한 규칙에 준거한 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실질GDI 개념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6)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설계(안)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맞춰 제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통일시대의 한국경제에 관한 부분을 축소하는 대신 국제거래와 경쟁력에 대한 내용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교역에 따른 이득을 살펴본 후 보호무역 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 환율의 의미와 제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및 한국을 둘러싼 국제 경제적 환경 등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체계는 통일경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예상을 전제로 하여 교육을 하기보다는 남북한 경제력의 비교와 같은 객관적인 인식에 기초를 두는 동시에 통일의 장·단기에 걸친 경제적 효과 분석과 같은 현실 문제를 제시한다는 취지에 부합된다. 다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 다뤄졌던 ‘국제적 경제마찰’ 부분이 누락되어 교역에 따른 이득이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강조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 집단이 존재하는 한 교역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실을 보는 집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FTA, WTO 협상과정에서 왜 각 계층 간 마찰이 나타나는지를 미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율의 결정모형을 설명한다는 설계(안)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에게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환율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생활에 연관지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 토론 8 > 오영수(경북대 사회교육과 교수)

1. 전체적으로 내용의 외연이 더 확대되었고, 내용적으로도 더 이론적인 교재가 되었다. 금융, 노동, 제조물책임 등 이전의 교과서에 없던 부분들이 새로 등장하였고, 외부성, 공공재, 자연독점 등도 더 이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더 공부할 것이 많아지고 더 어려운 교과서로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경제학의 핵심적 내용을 좀 더 간결하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2. 경제체제 절을 삭제한 것은 잘 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시장 이외에 여러 다양한 자원배분 방식(선착순, 추첨, 할당, 명령, 전통적 가치 등등)과 시장 이외의 다양한 조직(가정, 학교, 군대, ...)에서의 자원배분 방식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위상과 그 의미를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3. 자원배분기구로서 시장의 장점(유인과 정보 등)을 보다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4. 고등학생의 경우, 시장을 완전경쟁, 독점적 경쟁, 독점, 과점과 같은 4분보다, 경쟁적 시장과 독과점(비경쟁적 시장)으로 2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완전경쟁시장은 어차피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아 이론적인 중요성만 있는 것이므로, 그 의미를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

5. 시장의 설명에서 시장의 역기능이나 시장의 실패를 너무 강조하고 있으며, 또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IV장의 제목을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으로 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음. 위와 같은 제목은 시장의 실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외부성이나 공공재, 자연독점은 자원배분의 왜곡이라는 이론적 측면

보다는, 정부의 개입이나 조정, 중재가 필요한 부분으로 설명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

다만,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그 폐해나 문제점을 정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새 교육과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6. PL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잘 인식시켜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소비자의 의도적 불법행위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역기능도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7.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금융의 문제임. 이 문제를 꼭, 그것도 시장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이들 단원은 별도의 단원으로 하기보다는 시장의 여러 유형과 같은 단원을 통해 예로서 드는 것이 나올 것 같다.

8. ‘시장기능의 제도적 뒷받침’장에서 4절(금융시장과 금융규제)과 5절(노동시장과 노동3권 보장)은 시장과 경제 활동 장 내의 ‘4. 우리 주변의 시장들’로 축소하여 옮기고, 6절(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은 다음 장(정부의 경제적 역할)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그리고 ‘시장기능의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장의 명칭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9. 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 한국 경제의 미래’나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과 같은 장을 보다 구체적인 국제경제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여기서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 원 명	소 주 제	내 용 요 소
경제 문제의 이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생활과 경제의 중요성 2.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제문제 3.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4. 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이해 5. 시장경제체제의 특징과 운용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문제의 중요성 - 희소성의 의미, 선택과 기회비용 - 분업 및 특화의 이익과 자원배분 문제 - 시장의 의미와 특성
시장 경제 원리의 이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한 자원배분 방법과 시장원리 2.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 3. 시장의 구조와 경쟁 4. 다양한 시장의 사례(1) - 금융시장 5. 다양한 시장의 사례(2) - 노동시장 6. 정보화 시대와 시장의 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자원배분 방식 - 수요, 공급, 가격 - 시장의 균형과 효율성 - 시장의 구조(경쟁과 독과점) - 노동시장과 다양한 형태의 금융시장 - 시장의 발전과 새로 등장한 시장들
기업과 소비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본질과 기업가 정신 2. 생산활동과 부가가치 3. 기업 윤리와 공정 거래 4. 경제주체로서 가계의 중요성 5.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6. 소비와 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의 역할과 이윤추구 보호의 필요성 - 불공정 경쟁 행위 - 무상보증, 제조물책임법, 품질인증제도 - 소비자 권리....
정부의 경제적 역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 2. 시장 기능의 한계- 사적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충돌(외부성, 공공재 등) 3. 시장 경제하의 소득 분배 4.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 5.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 정부의 심판 기능 -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의 괴리와 대처방법 - 공공재, 자연독점 등에 대한 정부개입 필요성, 방법 및 한계 - 정부 세입세출의 구성 및 내용
국민경제의 활동과 변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의 경제의 발전과 위상 2. 국민경제의 운용 원리 3. 국민 경제의 주요 경제지표 4. 경제 성장의 주요 결정요인 5. 실업과 인플레이션 6. 경제정책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제의 소득과 지출의 순환 - 국내총생산(GDP)과 거시경제지표 - 장기적 경제성장의 특성 및 국가 간 경제성장의 비교 -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속의 한국경제 2. 국제 경제의 상호 의존성과 국제 무역의 중요성 3. 국제교역의 발생 원리와 효과 4. 환율과 외환시장 5. 국제수지의 자본이동 6. WTO 체제 하의 세계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 거래와 상호의존성의 중요성 - 보호무역의 논리, 방법과 문제점 - 자유무역의 추세와 한국경제의 비교우위 - 환율과 외환시장의 이해의 필요성 - 세계화와 국가간 자본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10. 경제교육과정의 내용보다 고등학교에서 경제의 실제 수업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7차 교육과정에서 중등학교 사회과목 단위 구성 및 수업시간

	합계		지리		세계사		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단원수	수업시수	단원수	시수	단원수	시수	사회 소계		경제	
							단원수	시수	단원수	시수
7 학년	10	102	7	71	3	31	-	-	-	-
8 학년	7	68	-	-	4	39	3	29	-	-
9 학년	7	68	2	19	-	-	5	49	2	20
10 학년	10	102	4	41	2	20	4	41	1	10
합계	34	340	13	131	9	90	12	119	3	30

‘경제’가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학년에서 28.5%(7개 단위 중 2개), 10학년에서 10%(10개 단위 중 1개)로 이를 9, 10학년에 할당된 시간으로 환산하면 9학년에 20시간, 10학년에 10시간 등 총 30시간이 된다. 이는 전체 사회과 수업 시수의 8.8%에 해당하며, 소위 ‘일반사회’ 영역의 4과목 가운데는 25.2%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경제’의 ‘지리’에 대한 비중은 22.9%(=30/131)이며, ‘세계사’에 대한 비중은 33.3%(=30/90)이다.

심화과정에서 개설된 과목은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등 총 9개 과목인데, 여기서도 지리나 역사에 비해 경제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 토론 9 > 김경모(경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1. 분석 1

먼저 토론자의 개인적 지적에 앞서 오늘의 공동학술대회에서 제시된 경제교과서 내용체계가 이전의 교과서 분석 작업과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전의 연구(이하에서는 이를 《내용 검토》로 줄여서 표현하고자 한다)에서 지적된 것, 특히 심화 선택 과목인 「경제」 교과서와 관련하여 연구진들이 개선 방안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 이것이 오늘의 《시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1. 《내용 검토》의 다섯 가지 개선방안과 《시안》에서의 반영 실태

《내용 검토》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심화 선택 교과로서의 <경제> 과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섯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대한상공회의소, 전게서, 2005)

첫째, 경제교과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에 있으므로 현행의 제 7차 경제교육과정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III장의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단원을 삭제하되 소비자와 기업에 관련되어 꼭 필요한 사항은 1장으로, 정부라는 경제주체와 관련되는 재정운용의 내용은 IV장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그리고 화폐·금융 및 재무에 관한 내용은 독립된 장으로 만들거나 추가하자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기업의 목적, 기능 및 역할 등에 따른 운영 메카니즘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내용을 추가 혹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에서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식 등 가치를 중시하는 내용은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굳이 가치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사

회안전망 또는 사회보험' 등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셋째, 첫 번째 지적에서 더 나아가 교과서의 체계 자체를(경제관련 교육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고교 경제 교과 과정(이 용어도 내용적으로는 고등학교 경제교육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에서 전달해야 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전면 개편, 재집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교과서의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집중적인 고민과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경제교과서의 편찬 단계 및 수정 보완 단계 등에서 교과서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 간에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교과서 내용의 오류나 형태 및 체제 관련 문제점은 이 같은 경쟁과정을 통해 상당한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는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잘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교과서 전체의 질적 수준을 상승시키는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이번의 경제교육과정 설계안은 세 번째에서 지적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경제원리 중심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을 토대로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의 방안과 두 번째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교과서 분석 작업을 진행한 연구진과 교육과정 설계안을 만든 연구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당한 정도 기존 교과서의 분석과 《시안》의 내용은 상당한 정도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분석 2

토론자가 이해한 이번 《시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원리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과도하게 들어가 있던 가치나 윤리 관련 내용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 전체 다섯 개의 중단원 내용 체계에서 4개의 중단원이 미시영역에 배당되어 있고, 거시경제(국제경제포함) 영역은 한 개의 중단원에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내용체계에서 세 번째 중단원의 내용인 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가치 혹은 윤리적 내용들은 해당 중단원을 없애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새롭게 설정한 중단원 3에서 다루고 있다.

이 같은 《시안》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미시와 거시 영역간의 균형과 소주제 서술의 구체성 수준에서의 동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 7차 경제교육과정에 비해 이번의 《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단원 1과 2의 내용은 상당한 정도로 정리되고 체계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단원 1의 2번째 소주제의 제목을 희소성과 기회비용보다는 희소성과 경제적 선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러나 소주제들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의 수준을 다른 중단원 소주제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묶을 수 있다면 중단원 3과 중단원 4는 하나의 중단원으로 내용 체계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중단원 3과 4의 소주제 내용이 다른 것에 비해 더욱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두 단원의 소주제 중 중단원 3의 소주제 1-3까지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고, 4-5는 시장 기능의 보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소주제로 묶을 경우 3개 정도의

소주제로 통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소주제 4-5의 설정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중단원 4의 소주제 1-3은 시장의 실패와 개선 방안으로 4-5는 정부의 개입과 실패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할 경우 중단원 3-4는 크게 5개 내외의 소주제로 통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합칠 경우 중단원의 이름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국제경제현상의 기본 개념과 우리 경제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독립된 단원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안한 안을 받아들일 경우 따로 확보된 중단원의 내용에 국제경제 현상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개념과 제도(예컨대 비교우위, 환율, 국제 경제기구 등) 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실제 경제문제로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거시 경제나 국제경제 관련 내용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다. 학생들이 실제적 경험 세계를 고려하고 접하는 경제문제의 중요도를 고려해 보아도 거시와 국제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은 최소한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의 《시안》이 의도하는 경제교육 내용체계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경제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교과서의 집필과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최근 들어 미국식 경제교육내용체계에 접근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제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까지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경제개념을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다소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매시기마다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학생 나름대로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등의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예가 될 수 있다.

3) 경제현상의 과학적 연구에서 가치나 윤리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과 경제생활의 실천의 맥락에서 가치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중등학교까지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보통 교육에 속하는 것이라면 경제교육의 경우 경제현상의 과학적 이해와 실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개념 중심의 경제교육을 매우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경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와 목표, 그리고 이기심과 개인적 가치를 따로 경제교육과정 표준안에서 다루고, NCEE(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의 관련 내용은 눈여겨 볼 만하다.

구체적으로 NCEE의 표준안에서 사회적 수준에서 경제관련 가치와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적 자유,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평등, 경제적 안정, 완전 고용, 물가안정, 경제성장 그리고 이들 간의 상충관계, 그리고 이기심과 개인적 가치가 사회적 수준의 경제적 가치간에 발생하는 상충관계(NCEE, 2000, pp.44-48)에 대해 다루고 있다.

4) 다소 지엽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중간보고서의 제목으로 채택된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경제」 교과서 교육과정 설계안’은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 시안’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싶다.

III. 제안들

형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번의 공동세미나에서 개진된 내용체계안은 앞으로 확정될 제 8차 「경제」 교육과정의 하나의 참고자료 정도밖에 아닐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후의 확정안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비록 준비 기간이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경제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심도 있고 근본적인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치고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입안해 나가는 기본 절차는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교사나 관련 전문가는 물론 관련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은 이후의 경제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도 하나의 표준적인 절차로 지켜졌으면 한다.

기본교육과정과 선택과정 공히 새로운 교육과정의 모색 과정에서 경제학자와 경제교육자 그리고 교사의 참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내용체계가 현행의 우리나라 교육과정 양식에 따라 정리될 필요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 경제교육을 통해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핵심 개념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 하고, 나아가 이들 기본 개념들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K-10)과 심화과정에서 어떻게 반복 심화될 필요가 있는지를 후속의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었으면 한다.

< 토론 10 > 박영석(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연구원)

I. 경제 선택교육과정안의 의의

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의 기초가 되며, 교과서는 학교 현장의 경제 학습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으나, 교육과정의 변화가 경제 교육에 대한 모든 기대를 실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문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기보다는 대강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교과서 집필의 과정에서 또한 학교 현장의 경제교육 실행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 연구과정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경제교육과정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많은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교육과정 관련 논의를 전문적인 집단이 공식적 연구주제로 삼아 풍부한 토론과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는 자체가 교육과정 개발에 의미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교육과정 연구과정에서 기존 교육과정의 한계나 문제점이 분석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 또한 교육과정 개발과정의 수고들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II. 경제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가.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교육 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의 바탕이 되며,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검토안에서는 목표를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인 현실 경제의 각종 제도와 원리의 기본골격을 이해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고자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국민경제의 활동과 변동 부분

경제 활동의 거시적 측면에 대한 학습 내용 중 5단원의 2, 3항목에서는 구체적인 학습 항목이 제시되지 않고 주요 경제지표를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물가와 실업의 관계 등의 주요 학습 요소가 자연스럽게 추론될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다른 부분은 내용적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부분은 기능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 시장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부분

시장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부분은 이 교육과정안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첫 항목의 내용 중에서 기업의 이윤추구행위가 제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내용을 토대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인지가 다소 불명확하게 느껴졌다. 또한 제조업체 책임강화 제도의 필요성을 주요한 학습 주제 차원으로 구성할 경우 학습 분량의 적정 차원에서 다른 주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관련 설명에서 제시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향도 이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장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부분은 일정정도 정부의 역할과도 관련될 수 있다. 4단원의 정부개입 문제와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거나 차별화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부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관련 주제 부분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추세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보호무역의 논리와 문제점’ 등에 대한 강조는 그 취지와 관계없이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러 환율제도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인 학습요소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경제 교육과정 개발관련 기타 고려 사항

다양한 경제교육과정 안들이 공식적 경제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검토될 때 확인될 필요가 있는 점들이 있다. 교육과정 총론과의 조화, 다른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과의 균형, 고등학교 수준의 국가 사회적 교육 목표와 요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경제 교육과정의 한계 혹은 제약이 될 수도 있고, 경제 교육과정의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은 관련 내용영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과 교육 전문가 및 학교현장의 현장적합성 검토 등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토론 11 > 박재진(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차장)

I. 검토대상

-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경제」 교과서 교육과정 설계(안)

II. 검토내용

1. 설계(안)의 통화·금융 비중

가. 미국 경제교재의 통화·금융부문

- 미국에서 경제교육의 표준교재로 많이 활용되는 G. Mankiw의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교보문고, 2002.4.5 초판4쇄, 김경환·김종석 번역)의 통화·금융부문 구성은 다음과 같음.

(1) 금융제도, 통화제도 등에 직접 관련된 부분

- 제25장(저축, 투자와 금융제도), 26p
 - 제27장(통화제도), 24p
 - 제28장(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30p내외
- ⇒ 3개의 장에 총 80p의 분량을 기술(전체 873p의 9.2%)

(2) 금융정책 부문

- 제32장(금융정책·재정정책), 17p(총35p분량의 1/2)
 - 제33장(인플레이와 실업의 상관관계), 15p(총31p분량의 1/2)
 - 제34장(거시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총23p중 5p
- ⇒ 3개의 장에 총 37p의 분량을 기술(전체 873p의 4.2%)

(3) 종합

- 화폐·금융에 관한 내용이 총6개의 장에 117p 내외의 분량으로 전체873p의 13.4%를 차지

나. 교육과정 설계(안)의 통화금융 비중

- 설계(안) 33개 소주제중 통화금융비중은 다음과 같음.
 - (1) 위 가의 (2)에 대응하는 부분은 4.금융시장과 금융규제 ⇒ 전체의 1/33으로 약 3% 비중
 - (2) 위 가의 (2)에 대응하는 부분은 7.안정화정책 ⇒ 전체의 2/33으로 약 6%의 비중을 차지
 - (3) 종합 ⇒ 전체의 약 9%를 차지

2. 설계(안)의 통화·금융내용 기술체계

- 설계(안)은 통화제도를 소주제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경제학원론」은 통화제도를 소주제로 기술하고 있음.

⇒ 통화제도를 거시경제부문에서 소주제 단위로 확대 취급할 필요

- 설계(안)은 금융시장을 미시부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반면 「경제학원론」은 거시부문에서 저축, 투자와 함께 다루고 있음.

⇒ 시장경제의 특성을 기술하는 미시경제부문에서 금융시장을 기술하는 것은 거시경제의 한 부문에서 즉, 국민경제순환 속에서 통화금융시장을 이해시키기에 부족함.

⇒ 미시경제부문에서 국민경제순환 속에서 통화금융시장이 하는 역할을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하더라도 체제구성상 오류

3. 기타 설계(안) 내용에 관한 검토

- 전반적으로 미시부분이 과도하게 많고 거시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지고 있음.
 - 어려운 경제학을 쉽게 이해시키는 데에는 국민경제의 운행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첩경이기 때문에 재화시장, 화폐시장, 노동시장, 증권시장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관점에서 거시경제학적 내용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음.
- 소비, 투자, 이자율, 인플레이션, 실업 등은 별도의 단원명 또는 소주제로 하는 것이 필요함.
- 설계(안)의 단원명 중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에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원명은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예를 들면 ‘시장과 정부’).
- 정부의 세입과 재정지출은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활동으로 다루어야 할 것임.
 - 시장이 실패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이 필요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설계(안)이 기존 교과서의 차별화하고자 하는 관점이 불분명함.
 - 설계(안)이 학생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시장실패’를 제목으로 부각시킬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현실에서의 반시장경제적인 행태를 예를 들어 경각심을 줄 필요.

III. 검토의견

- 설계(안)에서는 통화·금융부문의 비중이 미국 교재보다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동 비중을 확대할 필요
- 화폐경제에 대한 내용은 현실경제의 운영원리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 전체의 균형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동 비중을 확대할 필요
 - ⇒ 설계(안)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통화제도에 관한 내용을 소주제 단위로 취급
- 화폐·금융부문(금융시장)을 미시부문에서 기술하기보다는 거시부문에서 저축, 투자와 함께 다룰 필요
- 미시부문의 내용이 과도하고 거시부문의 내용이 미흡한바 경제학을 쉽게 이해하는 데는 국민경제의 운영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첩경이므로 거시경제내용을 크게 늘려 전체적으로 균형화 할 필요
 - 고등학생 때부터 재화시장, 노동시장, 화폐시장, 증권시장 등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거시경제 내용을 대폭 늘릴 필요
- 소비, 투자, 이자율, 인플레이션, 실업 등은 별도의 단원명 또는 소주제로 할 필요
- 설계(안)의 단원명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을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예: ‘시장과 정부’)
- 정부의 세입과 재정지출은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활동에서 취급할 필요
- 설계(안)이 학생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시장실패’를 제목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없음.

「경제」 선택과정의 설계(안)과 「경제학 원론」의 구성내용 비교

설계(안)		맨큐의 경제학 원론 ²⁾	
단원명	소주제 ¹⁾	단원명	소주제
경제문제의 이해	1. 우리 생활과 경제문제 2. 희소성과 기회비용 3. 분업, 특화와 조정 4. 시장과 경제문제 해결	제1부 서론	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제2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제3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
시장과 경제활동	1. 수요, 공급, 가격, 균형 2. 시장 균형과 효율성 3. 시장의 구조와 경쟁 4. 우리 주변의 시장들 5. 시장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	제2부 수요와 공급1 (시장의 작동원리)	제4장 시장의 수요와 공급 제5장 탄력성과 그 응용 제6장 수요·공급과 정부정책
		제3부 수요와 공급2 (시장과 경제적 후생)	제7장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 제8장 응용: 조세의 경제적 비용 제9장 응용: 국제무역
시장기능의 제도적 뒷받침	1. 기업이 정신의 고취와 법치 확립 2. 불공정 경쟁행위의 근절 3. 공급상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책임 강화 4. 금융시장과 금융규제 5. 노동시장과 노동3권 보장 6.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	제4부 공공 경제학	제10장 외부효과 제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제12장 조세제도
		제5부 기업행동과 산업조직	제13장 생산비용 제14장 경쟁시장 제15장 독점 제16장 과점 제17장 독점적 경쟁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1. 외부성과 자원배분 왜곡의 시정 2. 공공재와 무임승차의 방지 3. 자연독점과 경제적 규제 4. 정부의 실패 5. 정부의세입과 재정지출	제6부 노동시장의 경제학	제18장 생산요소 시장 제19장 임금소득과 차별 제20장 소득불평등과 빈곤
		제7부 소비자 행동 모형	제21장 소비자 선택 이론
국민경제의 활동과 변동	1. 국민경제의 소득과 지출 2. 국가경제의 주요 경제지표 3. 국가간 장기적 경제성장 비교 4. 경제성장과 주요 결정요인	제8부 거시경제 데이터	제22장 국민소득의 측정 제23장 생계비의 측정
		제9부 장기 실물 경제	제24장 생산과 성장 제25장 저축, 투자와 금융제도 제26장 실업과 자연실업률
국민경제의 활동과 변동	5.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정책의 역할 6. 단기적 경기변동의 특성과 원인 7. 안정화정책 : 재정정책과 화폐정책	제10부 화폐와 물가의 장기적 관계	제27장 통화제도 제28장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제11부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제29장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 기본개념 제30장 개방경제의 거시경제 이론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1. 국제 거래의 상호의존성 2. 보호무역의 논리와 문제점 3. 무역자유화와 한국경제 4. 환율과 외환시장 5. 국제수지의 자본이동 6. 세계속의 한국경제	제12부 단기 경기 변동	제31장 총수요와 총공급 제32장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제33장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관계
		제13부 책 말미에	제34장 거시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주: 1) 33개 소주제는 각각 약 1주의 수업분량에 해당하도록 구성

2) 맨큐의 경제학(2판) 교보문고, 2002.4.5, 초판 4쇄, 김경환 · 김중석 번역

